



2025 경대로자람학교 실천사례집

경대로 빛나는 우리 학교 이야기 I



CONTENTS

1

함께 걷는 결대로자람학교 교육공동체, 어떻게 만들어가야 하는가?

- ▶ 인천동암초등학교 _ 교육공동체와 함께 만들어가는 즐거운 학교 프로젝트 9
- ▶ 인천별빛초등학교 _ 함께 성장하는 교육공동체의 주도성 13

2

학생의 '앎과 삶'의 주도성'을 기르는 워컨쓰 기반 미래형교육과정,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가?

- ▶ 명신초등학교 _ 공동체 속에서의 배움과 앎으로 삶의 주인이 되어가는 명신 STAR 21
- ▶ 인천구산초등학교 _ 결대로, 함께, 멀리:
구산교육공동체 모두가 함께 만든 성장 이야기 27
- ▶ 인천부개초등학교 _ 존중과 협력으로 함께 성장하는 따뜻한 배움터!
앎과 삶이 연결되는 미래형교육과정의 실천! 34

3

교사와 학생이 함께 성장하는 '삶 중심의 워컨쓰 기반 미래형교육과정', 지속 가능한 방안은 무엇인가?

- ▶ 인천남동초등학교 _ 결대로, 함께 걸어온 길 43
- ▶ 인천주원초등학교 _ 삶의 힘이 자라는 '라벌교육과정' 레시피를 소개합니다! 49

4

지역 특성을 담은 워컨쓰 기반 미래형교육과정 운영, 학생의 성장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 ▶ 인천봉화초등학교 _ 결대로의 빛들이 만들어 낸 어울림의 시네마 57
- ▶ 인천신흥초등학교 _ 신흥 어린이, 자연을 품고 문화를 걸어요! 64

5

학교와 마을이 연결되는 읽건쓰 기반 미래형교육과정은 어떻게 '읽과 삶'의 주도성'을 기를 수 있는가?

- ▶▶ 동광중학교 _ 학교 안에서 학교 밖으로! 배움의 테두리 확장으로 성장과 배움 키우기 75
- ▶▶ 인천남중학교 _ 골목길에도 남풍이 분다. 교문을 넘어선 마을학교 '인천남중' 80

6

3주체의 주도성과 성장을 이끌어내는 결대로자람고등학교 읽건쓰 기반 미래형교육과정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은 무엇인가?

- ▶▶ 강화여자고등학교 _ 교육공동체의 주도성과 협력으로 만들어가는 읽건쓰 기반 미래형교육과정 87
- ▶▶ 대인고등학교 _ 학생, 학부모, 교사가 함께하는 읽건쓰 중심의 교육과정 실천 사례 94

7

함께 걷는 결대로자람고등학교 교육공동체, 어떻게 학생 성장을 이끌어내고 있는가?

- ▶▶ 인천대중예술고등학교 _ 함께 배우고 함께 자라다 101
- ▶▶ 인천예일고등학교 _ 결대로 성장을 위해 함께 만들어 가는 예일 교육공동체 ... 107

초 등



1

함께 걷는 결대로자람학교 교육공동체, 어떻게 만들어가야 하는가?

- 인천동암초등학교
- 인천별빛초등학교

교육공동체와 함께 만들어가는 즐거운 학교 프로젝트



학 교 명	인천동암초등학교	학급 수(학생 수)	20학급(298명)
소 재 지	인천광역시 부평구	결대로자람학교 지정 연도	2022. 3. 1.
세션 주제	함께 걷는 결대로자람학교 교육공동체, 어떻게 만들어가야 하는가?		

1 새롭게 시작하는 학교자치



배려와 협력으로 함께 성장하는 동암 결대로자람학교는 모든 학생들이 동등한 위치에서 행복하게 생활해야 한다는 의미로 전교학생회를 운영하지 않고 전교다모임 운영을 통해 학교자치를 운영하고 있다. 중요한 의사결정은 학생 다모임, 교직원 다모임, 학부모회 등 교육공동체의 참여와 의견 수렴으로 민주적 학교공동체를 이루고 있다.

2 동행길 걷기, 동암코인제 운영



2022년 학교 숲이 조성된 후 학생들이 이야기를 나누며 거닐 수 있는 둘레길이 만들어졌다. 둘레길을 애용하는 학생들이 많아짐에 따라 2023년 전교다모임에서 명칭 공모를 통해 '동행길(동암 행복 둘레길)'로 둘레길 이름을 결정하였으며, 학교에서는 현재 학교스포츠클럽과 연계하여 매일 아침 활동 시간 및 점심시간을 활용해 걷기 운동을 실시하고 있다.

프로그램 미션	동행길 걷기
동행길 (동암 행복 둘레길) 3바퀴 걷기(약 1km)	- 2023년 획득 코인: 4,794개(명) - 2023년 학생들이 걸은 총 거리: 4,794km
	- 2024년 획득 코인: 4,356개(명) - 2024년 학생들이 걸은 총 거리: 4,356km

3 중간놀이 시간 확보 프로젝트



중간놀이 시간은 쉬는 시간을 조정하여 놀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는 시간으로 10:20 ~ 10:50, 30분간 운영되는 시간으로 2022년 동암 꿈자람 놀이터 설치를 계기로 놀이 시간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시작되어 2023년부터 확장되어 운영되었다.

2022년 국민은행·세이브더칠드런과 함께 ‘동암 꿈자람 놀이터’를 완공했다. 설치 위치, 놀이기구, 놀이터의 색깔 및 컨셉 등 계획·제작·감리의 모든 과정을 교육공동체로 구성된 학교놀이환경지원단과 함께하며 이루어 낸 뜻깊은 놀이터였다. 완공과 동시에 학생들 사이에서 이를 활용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했다.



동암 꿈자람 놀이터



미끄럼틀



그물망 오르기

동암 꿈자람 놀이터 활용에 대한 교직원 다모임을 실시한 결과, 정규 수업 시간이 아닌 별도의 시간을 할애하여 놀이터 활용뿐만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 나왔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 교육공동체를 대상으로 놀이 시간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였고, 설문 결과 놀이시간 확보에 대해 학부모 87.7%, 학생 86.5%의 찬성 의견이 나왔다. 이를 바탕으로 2023년도에는 ‘중간놀이 시간’이라는 이름으로 10:20 ~ 10:50(30분간) 놀이 시간을 별도로 운영하기로 결정하였다.

중간놀이 시간은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구성되었다. 교실 내에서 이루어지는 학급 교실 놀이부터 시작하여 꿈자람 놀이터를 활용한 놀이, 도서관에서의 책놀이, 교내 둘레길을 활용한 걷기 놀이, 지능형 과학실을 활용한 카페 운영 등 학교 곳곳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었다.

학부모회에서도 중간놀이 시간에 학생들의 안전 지도, 전래놀이, 공예 만들기, 요가교실 등 학부모님이 강사나 봉사단으로 교육활동에 참여하여 중간놀이 시간에 지원해 주고 있다.

장소	실내						실외			
	교실	강당		지능형 과학실	도서관	돌봄 교실	동암 행복 둘레길	꿈자람 놀이터	실외 놀이터 (모래사장)	놀이 마당 골목 운동장
내용	자유놀이	방송댄스	전래놀이	동암카페 음악감상 보드게임	책 읽고 한 문장 쓰기	공예 만들기	함께 걷기	자유 놀이		세계 놀이
대상	전교생	전교생	2~5학년	4~6학년	전교생	3학년	전교생	전교생	3~6학년	2~5학년
일정	매일	주 2회	주 1회	주 3회	매일	주 1회	매일	1일 1학년	매일	주 2회

4 중간놀이 시간에서 시작된 진로 오디션



중간놀이 시간에 학생들 선호도가 가장 높은 프로그램 중 하나가 방송댄스였다. 유행하는 음악이나 간단한 안무를 강당에서 함께 춤을 추는 방송댄스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큰 활기를 불어 넣어줬고, 또한 우리도 학생들의 끼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결국 본교에서 가장 큰 연간 행사 중 하나인, 동암 꿈자람 진로 체험 한마당으로 확장되었다. 행사 운영 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노래와 춤 등 자신의 끼를 펼치고 싶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이다. 이에 따라 행사 기간 중 자신의 끼를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방과 후 진로 오디션을 실시하기로 했다. 원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진로 오디션은 노래, 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학생들이 참가했고 한마음으로 응원했다. 그 결과 어느 한 팀 아쉬워하는 마음 없이 순수한 의미로 열정을 발산하며 서로를 격려했고 박수칠 수 있었다.



노래



치어리딩



기타 연주

5 교육공동체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진로체험 한마당 운영



교육공동체가 함께 중간놀이 시간을 운영하면서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함께 동암 꿈자람 진로체험 한마당을 운영하였다.

5~6학년은 학급별로 2개씩 부스를 운영하고 3~4학년은 체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고 교사 및 학부모회에서도 부스를 운영하여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진로체험 한마당이 되었다.

2023년부터는 학생 부스만 운영하던 방식에서 선생님과 꿈을 쏘다 부스를 추가하여 교사 부스를 함께 운영하였고 학부모회에서 운영하는 태양계 친구들, 엄마랑 놀자 두 개 부스로 확대하여 운영하였다. 이는 전교다모임을 통한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로 학부모님들도 적극 호응해 주셔서 많은 학부모님이 학생들과 함께 진로체험 한마당에 참여하면서 운영하였다.

학생 체험 중심의 다양한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자기주도적인 학습 경험을 제공하여 진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미래 사회에 필요한 자질을 함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진로체험 한마당 체험 부스



선생님과 꿈을 쓰다



엄마랑 놀자

6 삶의 맥락과 연계한 배움을 통한 학생들의 재발견

지난 3년간 본교는 동암 꿈자람 놀이터 구축, 동행길, 동암코인제 운영, 꿈자람 진로체험 한마당, 중간놀이 시간을 거쳐 진로 오디션까지,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한 걸음 한 걸음씩 밟아왔다.

또한 학생들이 조금 더 흥미를 갖고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을 운영하기 위해 많은 교직원들과 학부모님들이 노력해왔다. 그 결과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톡톡 튀는 아이디어와 끼를 펼치는 새로운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특히, 수업 시간에 집중하기 어려워하거나 소극적인 태도로 임하던 학생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찾아가 반짝반짝 빛나는 눈으로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보았을 때 비로소 학생들의 진짜 모습을 찾을 수 있었고, 웃으며 즐거워하는 표정에 모두가 행복과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육공동체가 함께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다.

현재도 작지만 강한 인천동암초등학교의 결대로자람학교는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다. 교육공동체가 함께 고민하고, 함께 걸어가는 우리 학교는 지금도 여전히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중이다. 서로가 소통하며 함께 성장하는 모두가 행복한 학교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함께 성장하는 교육공동체의 주도성



학 교 명	인천별빛초등학교	학 급 수(학 생 수)	53학급(1,350명)
소 재 지	인천광역시 중구	결대로자람학교 지정 연도	2022. 3. 1.
세 선 주 제	함께 걷는 결대로자람학교 교육공동체, 어떻게 만들어가야 하는가?		

1 결대로자람학교의 시작



2020년 9월 코로나19로 인해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여건 속에서 별빛초가 개교하였다. 성장하는 신도시에 설립된 학교답게 별빛교육가족은 빠르게 늘어났고, 5년이 채 되지 않은 현재에는 교내 모든 교실이 아이들로 가득 찼다.

신설 학교가 안정적인 체계를 갖추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 학교는 자연스럽게 소통하는 문화가 정착할 수 있었고, 관례적으로 이어져 내려온 업무나 교육활동이 없었기에 새로운 문화나 교육활동이 쉽게 자리 잡을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래를 위한 교육 혁신, 결대로자람학교는 우리 학교가 나아가야 할 이정표와 같았다.

결대로자람학교로서 별빛초는 민주적 리더십과 신뢰를 바탕으로, 교직원·학생·학부모·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교사는 자율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교육과정을 주도하고, 학생은 자율과 책임을 배우며 이를 실천한다. 학부모는 교육의 동반자로 참여하고, 마을은 교육의 협력자가 되어 지역과 함께 살아 있는 교육을 지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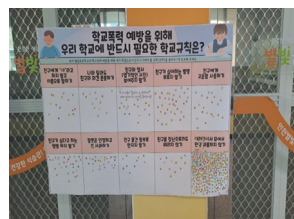
별빛초는 '삶을 가꾸는 학교',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공동체', '미래에 배움을 더하는 교육'을 핵심 비전으로 삼고, 지난 4년간 이 철학을 학교문화와 교육과정에 녹여 왔다. 일상의 수업부터 공동체 활동, 마을과의 연계까지 학교의 모든 교육활동에 비전의 실천이 스며들도록 하였다. 소통의 창구는 넓히고, 서로의 교육활동을 공유하며 아카이빙하여 교육공동체가 꿈꾸는 학교를 함께 만들어 가고 있다.



별빛 팽나무숲 소통방



STAR PLAY 교육과정



민주적 학교 규칙 세우기



소통하는 금식

2 민주적인 리더십과 신뢰, 학교를 움직인다.



결대로 자란다는 말은 학생에게만 해당되지 않는다. 별빛초에서는 교직원 또한 자신의 결대로 배우고 성장한다. 교직원 개개인의 전문성과 자율성이 존중되는 분위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공동체 안에서 함께 배우고 함께 자라는 문화가 자리잡았다.

안건 중심의 다모임은 관리자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에서 벗어나 모두가 학교의 주인으로서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만들어가는 학교문화로 교직원 간 소통의 물꼬를 터 주었다. 처음에는 전달 사항이나 간단한 의견 조사를 하는 수준이었지만, 점차 교직원의 의견을 존중하고 학교 운영에 직접적으로 반영이 된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며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올해 첫 다모임에서 ‘내가 학교에서 첫근무를 한 이래로 가장 열정이 넘치던 순간은 언제였나요?’란 질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마치 드라마 속 인물이 과거의 자신의 순수했던 시절을 다시 떠올리며 변화하듯, 과거의 빛나던 나를 떠올리고 멋진 오늘의 나를 새롭게 그려보았다. 서로의 교육관을 존중하고 응원하는 따뜻한 공동체 속에서 각자의 마음 속에 ‘하고 싶은 것’이 피어났다. 관리자의 전폭적인 지지와 공동체의 따뜻한 공감대는 교직원들에게 용기를 주었고 실패는 비난이 아닌 서로 간의 공유와 성찰의 시간이 되었다. 학교 곳곳에서 각자의 색깔이 담긴 다양한 교육활동이 피어났다. 신뢰와 수평적 관계가 살아 있는 학교 문화는 구성원 모두가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공동체로 이어졌다.

교직원 개개인의 전문성과 자율성이 존중되는 분위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공동체가 함께 배우고 자라는 좋은 교직 문화 풍토가 싹틀 수 있었다. 별빛초는 학년별 교육과정 연구를 위한 전문적학습공동체와 교-수-평, 읽건쓰, 생활교육, 상담, 놀이 등 교직원의 관심사를 반영한 주제형 전문적학습공동체가 씨실과 날실을 잇듯 구성되어 있다. 공동체별 계획에 따라 관심 분야를 함께 연구하고, 학교 교육과정과 수업에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공유한다. 예를 들면, 2023년에는 전문적학습공동체에서 개발한 디지털 시교육 프로그램을 학교교육과정에 반영하여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졌고, 결대로자람 컨퍼런스에 참여하며 학교 밖 나눔활동에도 참여하였다. 2024년에는 한글교육 교재를 개발하여 1학년 학생들의 한글 학습에 활용하거나, 공개수업과 성찰협의회, 읽건쓰 체험활동도 진행하였으며, 2025년에는 학교자율시간 개발 및 적용, 성과 공유 워크숍 운영 등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 결과를 나눌 예정이다.

한 교사는 “처음에는 자신의 연구물이나 수업을 드러내는 것에 대한 부담스러움도 있었지만, 수업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소중한 시간으로 자리잡았다. 물론 생각한 것만큼 수업 결과가 잘 나오진 않았을 때도 있었다. 그런데 그 실패 덕분에 공동체가 더 많이 이야기하게 되었고, 그래서 더 많이 성장한 것 같다.”며 전문적학습공동체 참여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이처럼 별빛초의 교직원 공동체는 늘 새로움을 시도하고 돌아보며 서로 나누는 성장을 하였으며, 교육 공동체를 통해 앎을 삶으로 배움을 생활로 만들며 변화하는 존재가 되어간다.



교직원 다모임



교육 3주체 대토론회



전문적학습공동체 워크숍(디지털시)



전문적학습공동체 공개 연수 (놀이 체육)

3 결대로 자라는 학생, 주도성과 책임감을 키우다



1,350명 학생들의 걸을 살리는 교육, 우리는 그 길을 주도성, 다양성과 개별화에서 찾았다. 학년 교육과정에 녹아든 다양한 교육활동과 학생의 개별 성장 속도에 따른 맞춤형 수업과 피드백, 그리고 각자의 길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주도성 교육 전략으로 별빛초의 교실은 ‘가르치는 교사’보다 ‘함께 살아가는 교사’가, ‘배우는 학생’보다 ‘함께 만들어가는 학생’이 중심이 되는 공간이 되었다.

학생들에게 주도권을 내어준다는 것은 사실 교사에게는 큰 도전이다. 마치 휘청이며 자전거를 타는 아이에게 손을 처음 떼는 마음이다. 결대로자람학교를 시작하며 학습자 주도성 향상을 목표로 STAR-PLAY 학교 교육과정의 틀을 만들었고, 학생들의 주도성을 마음껏 펼칠 무대를 만들고 지원하였다.

예를 들면, 우리 학교 5, 6학년은 학생자율동아리를 운영한다. 6학년 학생들이 동아리를 기획하고, 5학년 학생들은 원하는 동아리에 지원한다. 활동은 전적으로 6학년이 주도하고, 교사는 조력자 역할에 머문다. 이렇게 자율성과 책임을 경험한 6학년은 자신감을 키우고, 5학년은 선배를 보며 ‘나도 내년에 동아리를 열어보아야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된다. 주도성은 자연스럽게 다음 학년으로 이어진다.

또 별빛 학생회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공약과 사업들은 학생들의 새로운 문화가 되었다. 학생들은 스스로 윤리적이고, 유익한 교육활동을 스스로 생각해냈고, 이를 구체적으로 기획하고 준비하고 운영하고 성찰하였다.

그 외에도 교육과정 이외 밴드 동아리, 스포츠클럽, 학습지원 동아리, 청소년단체와 봉사동아리 등 다양한 선택 활동을 지원하였고, 학생회 외에도 다양한 학생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올해 학생들의 요구로 학급배치가 바뀌기도 하였는데, 3년 연속 5층을 사용하게 된 5학년 아이들의 건의로 학생과 교직원이 함께 협의를 하며 아이들의 의견을 수용해 다른 층으로 변경하기도 하였다. 또 학생들이 양념치킨을 먹을 것인지 후라이드치킨을 먹을 것인지와 같은 투표를 진행하며 급식 메뉴가 정해지기도 하는데, 학생들은 자신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었다고 느낄 때 기쁨을 느끼고 더 만족하였다.

이처럼 별빛초의 교실은 ‘단순한 지식 전달의 장’이 아닌 자신의 걸을 찾고 확장해 나가는 공간이 되고 있다. 결대로의 의미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별빛 아이들은 생활 속에서도 친구를 이해하고 존중할 줄 알며, 스스로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학교 생활을 보다 행복하다고 느낀다. 주도성과 책임감은 교사나 부모가 가르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아이 스스로 경험하고 느끼고 실천하는 과정 속에서 자라나는 역량임을 별빛초 아이들이 보여주고 있다.



학생회 주최
등곳길 독서퀴즈 이벤트



학생회 주최
친구사랑 캠페인



학생주도형 동아리



스포츠클럽

4 학부모도 함께 자랍니다



별빛초의 교육을 지켜본 많은 학부모들은 “아이뿐만 아니라 우리도 함께 자랐다”고 하였다. 때로는 더디고 서툴렀던 학부모의 변화 역시 이 학교가 만든 중요한 결실 중 하나이다.

많은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면서 우리 아이가 학교 생활을 잘 할 수 있을지 걱정한다. 하지만 별빛 학부모회는 학부모 교육을 통해 결대로자람학교에 대한 이해와 학부모의 역할에 바른 인식을 갖고자 노력하며 그 불안을 기다림으로 바꾸어 나가려 노력하였다. 한 학부모는 “결대로자람에 대한 이해는, 아이를 지켜보는 일의 의미를 새롭게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누군가의 기준에 맞춰 서두르기보다는, 아이가 가진 결대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학교가 먼저 기다려주고, 응원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는 낯을 많이 가려 발표나 단체활동에 소극적이었지만, 선생님은 아이가 글쓰기를 좋아한다는 점을 발견하고 우리 반 작가라는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아이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학급 활동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가 먼저 아이의 방식을 인정해주시 저도 더 이상 ‘남들처럼’의 기준으로 아이를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고 말했다.

결대로자람학교는 아이에게 주도권을 주는 문화를 기반으로 하기에, 학부모도 그 철학에 따라 아이를 ‘이끄는 사람’이 아니라 ‘뒤에서 지켜보는 사람’으로 역할을 조율하게 된다. 예컨대, 학급 축제 때 아이가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를 묻는 대신, “그 활동을 하며 어땠니?”, “다음엔 어떤 걸 해보고 싶어?”라고 묻는 것이다. 한 학부모는 “아이가 하는 활동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게 되었어요. 우리 아이의 경험과 성장에 집중하며 아이의 걸음에 마음을 맞추는 법을 배운 시간이었습니다.”고 말했다.

이러한 변화는 아이의 자존감뿐만 아니라 부모로서의 정체성에도 영향을 주었다. 기존에는 ‘교사-학부모 간 관계’에 대해 수직적이고 요청 중심적 관계를 떠올렸다면, 별빛초에서는 점차 ‘동반자적 관계’로 전환되는 경험을 하게 된 것이다. 알림장을 통해 주고받는 작은 피드백, 행사 준비 과정에서 함께 논의하는 시간, 자녀의 수업을 참관하며 느끼는 배움의 연결감 속에서, 부모는 학교의 구성원으로 자연스럽게 포함되었다.

학부모들의 변화는 결국 학교 공동체의 성숙으로 이어졌다. 학부모회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학교 행사에 도움을 주는 것을 넘어, 교육의 동반자로서 목소리를 내고 협력하는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다.



학부모 연수



학부모회 플리마켓 운영



학부모회 크리스마스 이벤트

5 미래를 여는 새로운 과제



결대로자람학교로서의 4년은 아이들을 이해하고 기다리는 시간, 교직원이 함께 실천하며 성장한 시간, 마을과 함께 배움을 확장한 시간이었다. 숨 가쁘게 달려온 시간 속에서 우리는 교육의 본질을 되묻고, 그 해답을 아이들의 삶과 일상속에서 찾고자 노력해왔다.

배움의 공동체 문화는 미래형교육과정을 이끄는 힘이 되어 교실 수업의 변화로 이어졌다. 교사에게는 자율성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진정한 교육과정 주체의 길을 열어주었고, 학생에게는 자기 삶과 연결된 배움을 통해 진짜 배움의 주인이 되는 경험을 제공했다. 예를 들어, 학년별 주도적 동아리 운영, 융합적 프로젝트 수업, 지역과 연계한 실천 중심의 교육과정 등은 모두 학생과 교사의 주도성을 현실로 만든 별빛초만의 '결대로자람형 수업 문화'였다. 교사는 수업의 틀을 스스로 고민하고 구성하며, 실패조차 함께 공유하는 전문적학습공동체를 통해 끊임없이 성장했다. 학생은 주어진 수업을 따라가는 존재가 아니라, 직접 질문을 만들고 지식을 연결하며, 배움을 일상에서 실천하는 존재로 거듭났다. 이처럼 별빛의 결대로 교육은 단지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단편적인 활동에 그치지 않고, 학교 구성원 모두가 스스로 움직이고 연결되며 변화하는 살아 있는 시스템이 되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는 결대로자람이라는 단어 하나에 담긴 철학이 실제 학교문화와 교육과정 속에 스며들며 가능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고민 앞에 서 있다. 결대로자람이 철학에 머무르지 않고 지속 가능한 교육 시스템이 되려면 무엇이 더 필요할까? 학생 자치, 교직원의 자율, 마을 협력은 어떤 구조적 기반 위에 있어야 더욱 깊고 넓게 확산될 수 있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단위 학교의 노력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이 도전들 앞에서 교육청과 지역이 어떤 방식으로 함께 걸어야 할까? 4년은 그 시작을 보여주기에 충분했지만, 그 가능성을 모두 실현하기엔 조금 짧은 시간이었다. 우리는 여전히 자라고 있고, 더 자라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지원과 확장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별빛초는 앞으로도 아이들을 향한 신뢰를 잃지 않고, 교직원의 성장을 공동체의 성장으로 연결하며, 마을과 함께 아이들의 하루를 가꿔나갈 것이다. 결대로자람이라는 이 이름이 단지 별빛초의 교육 이야기가 아닌, 인천 교육 전체의 방향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2

학생의 '읽기와 삶의 주도성'을 기르는 읽기 기반 미래형교육과정,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가?

- 명신초등학교
- 인천구산초등학교
- 인천부개초등학교

공동체 속에서의 배움과 앞으로 삶의 주인이 되어가는 명신 STAR



학 교 명	명신초등학교	학 급 수(학 생 수)	6학년(45명)
소 재 지	인천광역시 강화군	결대로자람학교 지정 연도	2022. 3. 1.
세 선 주 제	학생의 '삶과 삶의 주도성'을 기르는 읽견쓰 기반 미래형교육과정,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가?		

1 학생이 배움의 과정을 주도하고, 삶의 주인으로 성장하는 읽견쓰 기반 미래형교육과정

□ 학생의 자율성, 학부모의 신뢰와 참여, 교직원의 성장과 보람이 있는 교육공동체

명신초등학교는 강화 하점면에 위치한 전원 속 자연학교로 1944년 4월 개교한 8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학교이다. 여느 농산어촌 학교와 마찬가지로 급격한 학생 수 감소로 폐교 위기까지 겪었지만, 2022년 행복배움학교, 2023년 결대로자람학교 지정 등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교육공동체의 노력과 교육청, 군청의 도움으로 현재는 검단 24명, 강화 21명의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교를 다니고 있다. 명신초의 과거와 현재를 지켜봐 오신 분들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들을 하신다.

“선생님, 내년에도 학교에 계시지요? 직장과 주거 문제로 2년을 고민하다 명신을 왔는데, 아이들도 저희도 너무 잘한 선택인 것 같아요.”

“맞벌이로 자녀 돌봄이 쉽지 않은데 먼 곳까지 자녀들을 보내는 데는 이유가 있겠지요.”

“내가 명신초 1회 졸업생이야. 우리 아들, 딸들도, 손자, 손녀도 다 명신초 졸업생이야.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는 명신초에 다니려고.” 「89세, 이○○ 어르신, 실버 봉사자」

명신초는 소인수에 교원 이동 주기가 비교적 짧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힘 있고, 특색있는 교육과정의 운영과 지원을 해주고 있는 교직원, 긴 등하교에도 배움이 즐거운 학생들과 자녀 교육에 헌신적인 학부모님, 학교에 우호적인 동문 선배님들을 지역 주민들로 두고 있다. 시작은 생존이었지만, 현재는 학생들이 주도하고 교육공동체가 함께 실천하는 배움의 과정을 통해 「삶이 있고, 학생들이 삶의 주인」으로 성장하는 학교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

□ 명신의 교육목표와 비전

인성 · 꿈 · 건강이 함께 자라는 행복한 자연학교

더불어 생활하며 기본에 충실한 어린이(Share)

자기주도적으로 미래를 설계하는 어린이(Talent)

창의적이고 예술적 감성과 실력 있는 어린이(Art)

자연 속에서 건강, 행복이 있는 어린이(Run)

「함께 빛나며 성장하는 명신 STAR」

□ 삶을 통한 배움, 스스로 성장해 가는 명신 예뚱이

♣ 학생 중심 학교문화의 조성, 지역 교육공동체의 협력과 역할 강화

2022학년도에 우리 학교는 2015 개정 교육과정과 결대로자람학교에서 강조하는 미래핵심역량과 학생배움중심 교육의 구현을 위해 빛깔있는 창의적 교육과정의 개발과 지역사회와의 거버넌스 연계, 학부모와의 소통과 연계에 초점을 맞추었다. 도시에서 자발적으로 찾아오는 학교인 만큼 학교에 대한 기대가 큰 학부모님들은 학교와의 소통방식을 배워야 했고, 의사결정 과정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적용하기 시작하였다. 먼저, 교육공동체 워크숍을 통해 학생주도 교육의 방향을 정하고 이를 통해, 학교 주변의 다양한 자연환경과 물적·인적 자원을 활용한 마을연계 교육과정의 운영, 학생의 능동적 참여와 체험, 문제해결, 배움과 소통 중심의 수업과 교육을 실천하였다.



교육공동체 워크숍

독서, 음악극 수업(학부모)

메밀 수확 체험(지역민)

지역문제 발굴(다모임)

♣ 학생 주도 학교문화로의 전환과 미래사회 요구 역량의 인식

2023학년도는 결대로자람학교 2년차로 학생의 교육과정 및 수업의 계획, 의사결정 과정에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학생 중심에서 학생 주도 문화로의 전환에 역점을 두었다. 또한, 2015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자주적, 창의적, 교양있는, 더불어 사는 사람이라는 인간상을 반영하여 학교 교육과정에서 학생의 역량강화와 주도성을 높이는 교육 프로그램 내실화를 기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Critical Thinking), 창의력(Creativity), 의사소통(Communication), 협력(Collaboration)의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을 높이는데 노력하였다. 학생 주도 다모임과 교육과정평가 설문, 프로젝트 수업 계획 등을 통해 학생들의 교육과정과 수업 속에서의 참여, 의사결정 권한이 확대되었고, 학생들은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였다. 2024년부터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됨에 따라 교육과정의 변화를 모색하는 한 해였다.



자기주도학습 전략 코칭 수업



책 읽어주는 선배(꿈타래, 의형제)



학년군별 창작 연극 발표회

♣ 융합 역량(Convergence competency)과 인성(Character) 교육의 강화

2024학년도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시작 해로, 학생들이 자신의 삶을 책임감 있게 이끌어 가는 주도성을 바탕으로 미래사회의 불확실성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고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협력하는 공동체 의식을 내면화하며, 자기진로를 주도적으로 설계하는 창의융합형 인재로 키워가는데 중점을 두었다.



컴퓨팅 사고력 수업(마을 자원)



교우관계 개선 집단상담(교육청)



전자출판(작가 체험) 수업

♣ 삶 속에서의 배움, 주도적 삶을 살아가는 방식의 내면화

2025학년도는 삶과 연계한 학습, 학생 스스로 학습 과정에 대한 성찰을 통해 미래인재로서의 역량을 지닌 삶의 주체로서의 교육활동에 초점을 두었다.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6C의 미래사회의 요구 역량에 근거하여 복잡하고 다양하며,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기존의 학습 상황들을 현실에 적용하고, 주체적으로 응용하여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개인의 역량 강화를 넘어 공동체 속에서의 협력과 배려, 공감 등의 인성적 요소와 다양한 주제와 대상에 대한 이해와 소통에도 관심을 두었다.



강화 전통음식 만들기(지역)



지역 환경정화 활동(플로깅)



지역 어르신 초청행사(인성)

2 깊이 있는 학습을 통해 창의융합형 미래인재로 성장하는 예뻐이들!



깊이 있는 학습은 학생의 삶과 연계한 학습, 교과 간 연계와 통합, 학습 과정에 대한 성찰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는 학습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명신초에서는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과 환경을 활용한 특색있는 교육과정을 계기, 체험, 프로젝트, 탐구, 문제해결의 방식을 통해 교육하고 있다. 연중 지속되는 기타와 민요, 펜싱, 골프, 합창 등 문화예술체육 교육과 연 단위 발표회, 원어민이 상주하며 협력 수업을 하는 All-Day 영어교실, 학교 주변, 지역자원 활용 연중 생태환경체험 교육, 펜싱, 골프, 악기 등 학생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해 학생들은 미래사회에 필요한 소양과 역량을 강화해 가고 있다.



생태숲 탐사(학교, 지역)



평생체육 교육(펜싱)



문화예술 발표회



계절학교 프로젝트 발표

또한, 사제동행 아침맛이 독서, 온 책 읽기와 연계한 On-Off Line 읽건쓰 교육, 교과 연계와 마을자원을 활용하여 재구성된 교육과정은 논리적 사고력과 글쓰기 능력, 정보수집 및 분석 능력을 가져왔고, 직간접 경험의 현장 적용을 통해 창의력과 융합능력이 향상된 것으로 수요자 설문조사 결과 확인할 수 있었다. 교직원들은 주, 월, 수시 전문적학습공동체 연수와 교류를 통해 배움중심, 마을과 지역연계교육과정 운영, 학생성장평가에 대한 소양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교육과정, 성장평가, 연수만족도 조사 결과)



온 책 읽기-독서토론



읽건쓰 역사탐방(삼랑성)



Up-Cycling 작품 만들기



Only-1 창작 로봇(엠봇)

3 공감과 소통이 있는 공동체, 삶의 주인되어 가고 있는 명신 STAR!!

「OECD Education 2030」은 미래교육의 역량(The Future of Education and Skills)을 학생주도성(student agency) 및 변혁적 역량(transformative competencies)을 강조하며, 창의성과 문제해결력, 협동, 공감, 갈등관리, 책임감과 시민성을 요소로 제시하였다. 명신의 학생들은 타인과 지역, 세계가 직면한 문제를 찾아 갈등의 상황을 스스로 이해하며 자기주도적으로, 때로는 지역공동체가 함께 고민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



장애이해체험교육(지역)



세계문화이해 페스티벌



분단현장 견학(평화전망대)



강화 갯벌생태 탐사(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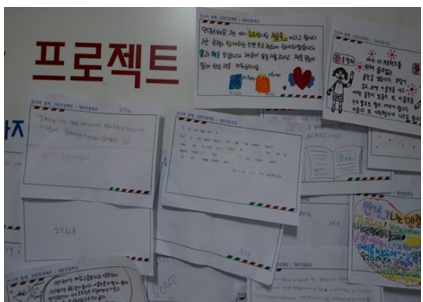
배움과 삶의 장면을 함께 고민하고, 서로 다른 생각을 모아 해결책을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학교 교육의 수혜자가 아닌 주체가 되어, 책임감과 주도성, 유창성, 문제해결력을 키워나가고 있다. 또, 배우고 알고 싶은 분야를 개인이 결정하고 시간을 관리하여 함께 활동함으로써 공동체 의식, 배려, 조직 관리 역량 등이 향상되었으며, 자신의 진로를 스스로 탐색하고, 「Life-time table」을 작성, 관리함으로써 진로인식, 시간 관리, 정보수집 및 분석능력, 컴퓨팅 사고력이 향상되었다.



학생회 교육과정 반성회(계절학교)



1인 1체육 동아리(교육특구, 골프)



진로 프로젝트 발표

4 삶과 배움을 담은 미래형 교육, 지혜와 마음의 그릇을 키워가는 아이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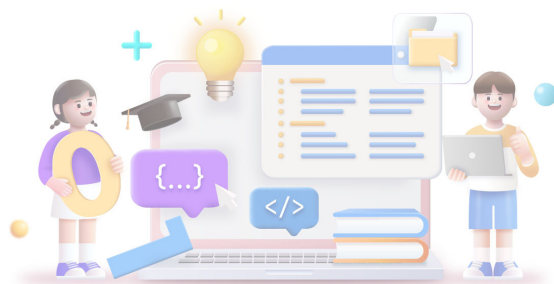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개정중점은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역량 함양이 가능하고, 학습자의 삶과 성장을 지원하며, 지역·학교의 자율성과 책임이 강조되고, 디지털·AI 교육환경에 맞는 교수학습 및 평가체제 구축의 4가지로 제시되고 있다. 명신의 교육과정은 결대로사람학교를 운영해 나가며 학생들에게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개선, 보완되어 왔고, 학습자 중심에서 학습자 주도의 교육으로 변화를 시도해 오고 있다. 또한, 교육공동체와 지역의 자원, 환경 등을 활용한 지역연계교육, 생태환경교육, 진로교육, 문화예술체육 교육 등도 상호 연관성을 높이고, 체계와 위계를 구조화 해 나가고 있다. 학생들은 학교생활과 수업에서의 모습이 주도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소규모 학교의 인적자원 부족, 교육적 기대가 높은 학부모에 반해 노후화되고 부족한 교육시설(강당, 특별실)과 예산, 농어촌 학교 폐교 위기 속에 1면 2교의 딜레마, 명신초로의 전학을 희망하는 관외 재학생과 학부모님들의 지속적 문의(광역학구제) 등은 명신초의 노력과 교육청의 관심이 필요한 부분이다. 좋은 교육을 위한 지역, 공동체의 의지도 학생과 학교가 존재할 때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학교 교육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 지역 및 학부모와의 협력과 소통 강화, 시, 강화교육청의 현행 학구제 개선 노력 등은 희망적인 부분이라 하겠다.

5 사람과 사람을 잇는 교육, 결대로 성장하는 미래의 주인공들!!!

‘한 사람의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마을(지역)이 함께 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이제 옛말이 되었다. 한 명의 아이가 삶과 배움의 주도성을 갖고,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을 갖춘 삶의 주인으로서 온전한 역할을 하는 것은 교육이 온전히 집중해야 할 과제이다.

‘우리는 아이들을 위해 앞으로의 30년을 준비해야 합니다.’



결대로, 함께, 멀리: 구산교육공동체 모두가 함께 만든 성장 이야기



학 교 명	인천구산초등학교	학급 수(학생 수)	14학급(285명)
소 재 지	인천광역시 부평구	결대로자람학교 지정 연도	2022. 3. 1.
세션 주제	학생의 '읽과 삶의 주도성'을 기르는 읽견쓰 기반 미래형교육과정,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가?		

1 결대로자람학교의 시작: 함께 나누는 구산초의 교육 철학

인천구산초등학교는 '함께 배우고 나누며 성장하는 행복한 학교'를 비전으로 삼아, 2018년 3월 행복배움학교를 시작으로 2022년 재지정을 거쳐 올해 8년차 결대로자람학교이다. 모든 구성원이 배움의 주체로 참여하며 성장할 수 있는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교육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설정하고, 학생·교사·학부모·마을이 서로 협력하는 교육공동체 중심의 교육 철학을 바탕으로 결대로자람학교를 운영해왔다.

결대로자람학교 1·2년차(2022~2023년)에는 교육과정 자율화의 기반을 마련하고, 학교 문화를 민주적이고 협력적인 방향으로 전환하는 데 집중하였다. 교사는 교육과정의 주체로서 함께 배움의 흐름을 설계하였으며, 학생은 생활 속 경험과 학습을 연결하며 자신의 '결'을 발견해 나갔다. 학부모와 지역사회는 학교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교육활동의 동반자로 참여하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3·4년차(2024~2025년)에는 이러한 기반 위에서 교육과정의 질적 내실화, 교육공동체의 주체성 강화, 지속 가능한 교육 모델의 정립에 주력하였다. 교사는 전문적학습공동체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함께 설계하여 실행 후 성찰하였고, 학생은 질문 중심 탐구수업과 시 기반 프로젝트 수업을 통해 자기 주도성을 키웠다. 또한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교육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실제 사회와 연결된 배움의 경험을 쌓았고, 학부모와 지역사회 구성원도 학교 교육에 적극 참여하며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를 이루었다.

2 결대로 자라는 문화 형성: 교육공동체 주체로 나아가기

□ 학생 주도의 문화 형성: 학교 주체로 나아가기

2024년부터 학생들은 ‘구산초 학교문화책임규약’을 스스로 정하고 지켜나가기 시작했다. 이 규약은 교사나 학교가 정해주는 약속이 아닌, 학생들이 고민하고 논의하며 만든 것이다. 해마다 전교학생자치회는 단순한 회의체를 넘어, 다양한 행사를 학생 주도로 기획하고 실천하였다. 2인3각 경기, 급식 선택권 투표, 구산 런닝맨, 보물찾기, 산타행사 등 모두 학생들이 책임감을 갖고 기획하고 실행하여 학교 문화를 활기차고 민주적으로 이끌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학교의 일원이 아닌, 학교를 함께 만들어가는 주체임을 경험하며 성장하였다. SW동아리, 구산밴드부 등은 학생들이 관심과 재능을 바탕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서로 협력하여 활동하는 배움의 장이 되었다.



2022년 2인3각 경기



2023년 구산 런닝맨 활동



2024년 보물찾기 행사



2024년 산타 행사

□ 학부모의 변화: 교육 동반자로서의 성장

초기의 학부모 참여는 행사 지원이나 참관 위주에 머물렀지만, 4년간의 운영을 거치며 학부모는 교육과정의 실질적인 협력자로, 교육 동반자로 성장하였다.

어린이날 아침 등교맞이, 꽃차 동아리 활동, 체육대회 간식 부스 운영, 졸업식 포토존 제작 등 다양한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 특히 2025년 ‘찾아가는 결대로자람학교 학부모강사단 연수’를 통해 읽건쓰 활동과 지역사회 연계 활동에 대한 이해를 높였으며, 학부모회와 전교학생자치회가 함께 기획한 ‘카네이션 만들기 봉사활동’을 지역 경로당과 연계하여, 교육의 울타리를 지역사회로 확장하는 뜻깊은 성과를 이루었다.



2022년 꽃차 동아리 활동



2023년 체육대회 간식



2024년 졸업 포토존 제작



2025년 지역 경로당 방문

□ 교사의 실천: 공동 연구와 성찰 중심 문화 정착

교사는 전문적학습공동체를 바탕으로 2022년에는 교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2023년에는 노트북 활용 연수를 진행하였으며, 2024년에는 AI 활용 연수를 통해 교사 역량을 강화하였다. 학교 구성원이 바뀌는 매년 2월에는 행복 마중물 연수를 실시하며 교사의 전문성과 창의적 수업 실천 문화를 더욱 확산시켰다. 또한 학년말 교육과정 설문과 성찰협의회를 통하여 학생·학부모의 피드백을 반영해 교육과정과 평가를 개선하며 독서교육, Si융합교육 등 창의적 수업 역량을 강화하는 주체적 실천 문화를 확산시켰다.



2022년 교원 네트워크

2023년 노트북 활용 연수

2024년 AI 활용 연수

2025년 행복 마중물 연수

3 결대로 실천한 교육과정: 4년간의 성장 발자취



□ 2022년: 교육과정의 특색화와 문화예술·체육의 통합

2022년은 구산초의 미래형교육과정 기반을 다지는 해였다. 학교는 '빛깔 있는 창의적 교육과정'이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학생 개별성에 맞춘 맞춤형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 문화예술교육은 체육과 통합되어 '문화예술체육 교육'으로 확장되었고, 어울림밴드부, singing school 합창부, SW동아리, 봉사동아리 등 다양한 학생동아리가 활성화되며 학생의 자율적 선택권과 탐색 기회가 크게 확대되었다. 티볼, 줄넘기, 피구 등 스포츠클럽 운영은 학생들의 신체 역량 강화뿐 아니라 팀워크, 협력의 가치를 체험하는 장이 되었다. 학생들은 '흥미를 바탕으로 한 탐구와 실천'을 경험하며 배움에 깊이를 더했다.

□ 2023년: 마을과 연계된 실천 중심 교육과정 확산

2023년에는 '마을연계 교육'이 핵심 키워드였다. 교사들은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육 콘텐츠를 함께 연구하고 공유하는 마을연계 교사 네트워크를 운영하며 수업의 현장성과 실효성을 높였다. 학생들은 굴포천 생태탐사, 북토크, 도서관 온책읽기, 부평구의회 견학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한 실천 중심 학습에 참여하였다. 이러한 경험은 단순 체험에서 끝나지 않고, 학습 내용과 연결되어 사고를 확장시키고, 결과물을 표현하며, 지역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해 가는 과정을 만들어냈다. 학생들은 "내가 사는 곳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는 배움의 확장을 경험하였고, 교사들은 교육과정의 경계를 학교 밖으로 넓히는 시도를 통해 실천 역량을 강화하였다.

□ 2024년: AI융합교육 기반 교육혁신 실천

2024년은 AI융합교육을 기반으로 프로젝트 수업을 실현한 해였다. 교내 AI·SW 체험 부스 운영, 비버챌린지 대회, 1·6학년 멘토링 수업 등은 학생들에게 논리적 사고력, 디지털 리터러시, 협업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AI를 활용한 교과 수업, 패들렛을 활용한 글쓰기 및 피드백, 창의적 문제해결 활동은 학습의 몰입도와 효과를 높였다. 교사들은 챗GPT, U-class 운영 등 시기반 교육과정 설계 역량을 기르는 연수에 참여하고, 교육과정에 융합하며 창의적 수업 설계자로 성장하였다. 학생은 디지털도구의 수용자에서 벗어나 능동적 활용자이자 창의적 문제해결자로 한층 더 성숙해졌다.

□ 2025년: 질문과 탐구 중심의 통합형 프로젝트 실천

2025년은 '읽건쓰×AI융합 프로젝트'라는 통합형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의 앎과 삶이 연결되는 수업을 구성하여 실천하고 있고 학년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교 비전	함께 배우고 나누며 성장하는 행복한 학교					
공통 주제	학생주도성을 기르는 깊이 있는 학습을 위해 '질문으로 여는 읽건쓰×AI융합 프로젝트'					
학년 주제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교육 중점	호기심과 정서적 표현	질문을 통한 탐구력 증진	창의적 사고와 감성 기르기	협업 통한 책임감 확장	자기 주도적 배움의 정착	생태·미래 감수성 강화
핵심 질문	자연 속 궁금증 찾기	마을에서 궁금한 것 묻기	독서로 얻은 질문 공유	평화로운 교실 위한 질문 만들기	나를 이해하고 친구를 이해하는 질문 만들기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위한 질문 만들기

1학년은 그림책 읽기, 삼산체육공원 탐방, 한글 놀이 활동, AI 기반 동화 감상 후 창작 이야기 전시 활동을 통해 기초 문해력은 물론 정서 표현력, 창의력, 감성 소통력 등 기초 미래 역량을 체계적으로 함양하고 있다. 2학년은 마을 관련 도서 탐독과 도서관 견학, VR을 활용한 우리 마을 체험 활동을 통해 공감 능력과 지역사회 이해도를 높이고, 의사소통 역량과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을 균형 있게 신장시키고 있다.



1학년 그림책 읽기



1학년 삼산체육공원



1학년 놀이 한글



1학년 도서관 전시회

2. 학생의 '읽과 삶의 주도성'을 기르는 읽걸쓰 기반 미래형교육과정,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가?



2학년 마을 도서 읽기



2학년 마을 질문



2학년 지역 도서관



2학년 VR 마을 체험

3-4학년은 읽걸쓰 활동과 시융합 교육을 통해 비판적 사고력, 자기주도성, 정보활용 능력, 협업과 공감, 인권 감수성 등 미래사회에 필요한 핵심 역량을 체계적으로 기를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하였다. 3학년은 하브루타 독서 토론을 통해 비판적 사고와 자기 표현력을 증진하고, AI 이미지 생성 도구 및 챗봇 체험을 통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으로 창의적 문제 해결 역량을 강화하였다. 4학년은 인권 관련 도서를 기반으로 한 탐구 활동과 안전 체험, Bookcreator를 활용한 전자책 제작 및 협동 영상 제작을 통해 인권 감수성과 공동체 의식을 기르고, 실천 중심의 융합적 사고를 함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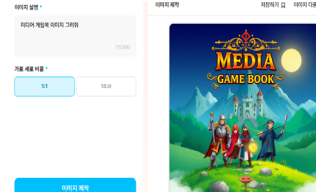
3학년 독서 토론



3학년 독서 연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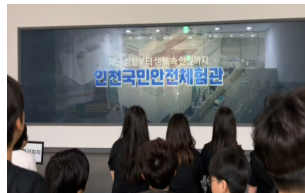
3학년 미디어 이해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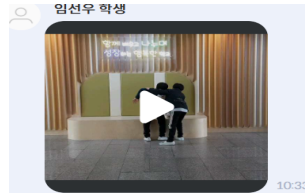
3학년 AI 이미지 생성



4학년 질문하고 답하기



4학년 안전체험관



4학년 협동 영상 제작



4학년 인권사전 전자책

5-6학년은 진로 탐색 능력, 변혁적 사고, 생태 감수성, 디지털 리터러시, 세계 시민 역량 등 미래 사회에 요구되는 핵심 역량 함양에 중점을 두고 교육과정을 운영하였다.

5학년은 북구도서관 탐방과 진로 관련 영화 감상 및 감상문 작성, 학교 텃밭 가꾸기, 온라인 진로검사, AI 도구 활용 등 다각적인 진로 탐색 활동을 통해 자기주도성과 실천적 태도를 체계적으로 길렀다. 6학년은 환경 관련 도서 온책읽기와 지구의 날 행사 참여, 부평구 의회 체험을 통한 생태환경 의제 제안, 디지털 플랫폼 패들렛과 캔바를 활용한 환경 캠페인 도구 제작 등 실천 중심의 활동을 통해 생태 감수성뿐만 아니라 세계시민으로서의 책임감과 참여 의식을 강화하였다.



5학년 온라인 진로검사



5학년 엔트리 직업여행



5학년 영화 감상



5학년 학교텃밭 가꾸기



6학년 온책읽기



6학년 지구의 날 행사



6학년 부평구의회 체험



6학년 환경 캠페인

4 결대로자람학교의 고민과 성찰: 깊이 있게 되돌아보기

전교학생회, 학부모회, 교사 전문적학습공동체 등 교육공동체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자발적 참여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학교 문화가 형성되었으며, 학교 구성원 모두가 주체적으로 협력하여 민주적 학교 문화를 뿌리내리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

그러나 교육과정 운영에서는 몇 가지 과제가 발견되었다. 첫째, 학년 간 교육 내용의 유기적 연결과 심화 단계가 부족하여 학생들의 학습 경험이 단절되는 사례가 있었고, 이는 배움의 흐름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는데 어려움을 주었다. 둘째, 질문공책이나 시융합 프로젝트 수업과 같은 핵심 프로그램이 표면적으로는 학생 주도형으로 보였지만, 실제 수업 운영은 교사 중심의 설계와 진행으로 이뤄져 학생주도성의 한계가 드러나는 부분도 있었다.

5 결대로 연결되는 새로운 도약: 결대로, 함께, 멀리

지난 4년 동안 학생들은 스스로 질문하고 탐구하며 협력하고 표현하는 힘을 키워왔고, 학부모는 학교를 넘어 지역사회로 활동의 폭을 넓혀왔으며, 교사들은 전문적학습공동체를 통해 협력을 기반으로 한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성장시켜 왔다. 구산교육공동체 모두는 이러한 성장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새로운 고민과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다.

먼저, 학년 간 주제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학년군별 교육과정 협의체를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학생의 발달 흐름에 맞춘 연속성 있는 주제 중심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구성해야 한다. 또한, 각 학년의 수업 주제가 상호 연결될 수 있도록 공통 주제와 학년별 주제를 시각적으로 정리한 '배움 이음 지도'를 개발하고 공유함으로써 교육과정의 일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을 실현하기 위해 질문 기반 수업 설계 역량을 강화하는 교사 연수 프로그램을 정례화하고, 질문공책과 시 융합교육의 맞춤형 교육 자료를 학년별로 개발하여 수업의 질을 높여야 한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구산초등학교는 학생 한 명 한 명의 걸을 존중하는 '결대로' 교육을 더욱 깊이 있게 실천하고, 교육공동체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협력적 학교 문화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앞으로도 '결대로, 함께, 멀리'라는 교육철학 아래, 학생의 삶을 중심에 둔 교육의 길을 '결대로, 함께, 멀리' 이어나갈 것이다.



존중과 협력으로 함께 성장하는 따뜻한 배움터! 앞과 삶이 연결되는 미래형교육과정의 실천!



학 교 명	인천부개초등학교	학 급 수(학 생 수)	14학급(195명)
소 재 지	인천광역시 부평구	결대로자람학교 지정 연도	2022. 3. 1.
세 선 주 제	학생의 '앞과 삶의 주도성'을 기르는 읽견쓰 기반 미래형교육과정,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가?		

부개 미래형교육과정과 미래형 핵심 인재 설정



세계화가 급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개인의 의식이나 행동이 한 나라에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를 배경으로 나아가고 있다. 더불어 정보통신, 네트워크 또한 이에 발맞추어 사회 곳곳으로 확장되고 있다. 이러한 세계화 및 정보화는 개인의 삶을 세계 공동체의 무대로 확장시켰으며 앞으로의 미래 사회에는 이와 같은 초국가적 이동과 교류가 더욱 빠르고 활발하게 일어날 것이다. 이에 유네스코는 미래시민교육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으며, 그 속에서 평화·인권·문화다양성·환경보호 등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폭넓게 이해하고 실천하는 미래시민양성을 추구하고 있다. 이와 발맞추어 우리나라 또한 '글로벌교육우선구상(GEFI) 지원국그룹'에 가입하여 미래시민교육의 역량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본교 교사들은 '우리의 학생들에게 미래시민역량을 키워줄 수 있는 어떠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서로에게 지속적으로 협의회 때 제시하였으며, 아래와 같은 네 가지의 미래형 핵심 인재를 중심으로 미래시민교육을 통한 미래형교육과정의 방향을 설정하였다.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학년별 미래형교육과정의 기초 토대가 되었다.

첫째, 창의 인재(배움을 즐기며 함께 성장하는 어린이)로써 핵심역량 중심 빛깔 있는 교육과정 운영,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 운영, 도서관 활용, 독서·토론토의 교육, 과학 탐구, 생태 환경 교육, AI교육, 디지털 문해력 교육 등을 적용하였다. 둘째, 실천 인재(존중과 협력으로 배려를 실천하는 어린이)로써 인성중심 교육과정 운영, 주제별 인성교육, 교육공동체와 함께 하는 인성교육, 함께 하는 친구(다름) 이해 교육 등을 적용하였다. 셋째, 융합 인재(서로 같음과 다름을 인정하고 활용하는 어린이)로써 민주 시민 의식 함양 교육, 인천형 세계시민교육, 어울림 다문화 교육, EDU-CARE로 따뜻한 선택형 교육 프로그램 실천 등을 적용하였다. 넷째, 감성 인재(꿈과 끼를 펼치며 감수성을 키워주는 어린이)로써 오감을 깨우는 문화·예술교육, 몸도 마음도 튼튼한 건강(체육) 교육, 미래의 꿈을 찾아가는 진로 교육, '모아우아' 지역 연계 교육 등을 적용하였다. 본교에서는 4년 동안의 결대로자람학교를 운영하면서 미래형교육과정을 위한

미래형 핵심 인재를 만들기 위해 모든 교원들이 노력하였으며, 부개교육공동체들의 모두 만족하는 미래형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었다.

2 부개 교육공동체와 함께 그린 미래형교육과정



가. 학생들은 무엇을 배우고 싶어 하는가?

본교의 교사들은 학기말에 다음 해의 교육과정 참고를 위하여 학생들에게 학교교육활동에서 어떠한 것들을 경험하고 싶은가를 항상 질문한다. 학생들은 다양한 문화예술공연의 관람 및 감상, 여러 가지 체육 활동(체육시간에 경험하기 힘든 운동종목 등), 시관련 수업(코딩 등), 친구들과 함께 활동할 수 있는 토의·토론식 수업, 수업시간에 배운 곳 현장체험학습 가기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올바른 인성함양을 위한 배려, 공감, 경청의 태도도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배우고 싶다는 의견들도 있었는데, 학생자치회의를 통해 학생들이 학교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토의의 결과로 나온 의견이었다. 결과적으로 학생들은 기존의 학교수업을 통하여 어떠한 지식적인 부분을 습득하는 것만이 아닌 친구들과 함께 활동적, 협력적, 인간적인 교감을 통하여 같이 성장하는 것을 희망하였다. 이에 본교에서는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미래형교육과정을 운영하고자 하였다.

나. 교사들은 무엇을 가르치길 원하는가?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결대로자람학교를 운영하기 전에는 교과서 중심의 수업이 대부분의 학교에서 전개되었음은 교사라면 부정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교과서의 진도를 빠뜨리지 않고 나가는 것이 수업의 커다란 목표였으며, 학생들의 지식적인 부분의 성취·도달 유무만이 중요하였다. 때문에 본교의 교사들은 학생들이 수업의 과정에서 보이는 개인적·집단적 흥미, 협업능력의 함양, 배려, 공감, 어떠한 결과물을 완성하였을 때의 성공 및 실패의 경험 등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교사협의를 통해 도출하였으며, 이를 최적화한 방법으로 프로젝트교육과정을 본교의 미래형교육과정의 기본 베이스로 삼아 운영하기로 하였다.

다. 학부모들은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학교평가와 관련했던 설문조사에서 본교의 대부분 학부모들은 학생들의 올바른 인성함양을 위한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시시대가 더욱 구체화됨에 따라 학교에서 다양한 시교육을 실시하여 학생들이 유능한 미래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을 학교에서 제공해주는 것을 희망하였다. 그리고 지역의 다양한 인력풀을 활용한 지역연계교육의 활성화, 생태감수성의 함양, 기초체력향상, 독서교육, 기초학력(수학)의 향상 등을 학교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주기를 희망하였다. 이에 학부모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용하여 본교 미래형교육과정에 녹아내기로 하였다.



학생자치회의(전교임원회의)



프로젝트교육과정 협의



학생, 학부모, 교사 협의

〈인천부개초등학교 교육공동체 운영 사례〉

3 부개 미래형교육과정의 운영 및 실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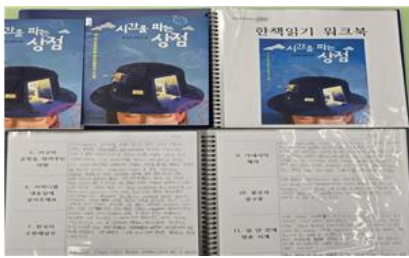


본교의 미래형교육과정의 핵심은 학년별로 프로젝트교육과정을 운영한다는 것으로 압축할 수가 있다. 기존의 교사중심 교육과정에서는 볼 수 없었던 학생주도적인 프로젝트교육과정을 설계·실행하고 있으며, 학년별로 차이는 있으나 교사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소극적 프로젝트교육과정’을 추구한다. 결대로자람학교에서 강조하는 학생들의 미래역량을 함양시킬 수 있는 프로젝트교육과정을 학년별로 겨울방학 동안 협의과정을 통하여 설계 및 구체화하고 각 학년에서 추구하는 미래역량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가. 배움을 즐기며 함께 성장하다!(창의 인재)

본교의 프로젝트교육과정에서 창의성, 협업능력, 타인의 존중, 생명존중사상을 중점적인 미래역량으로 적용하였으며, 이러한 역량들을 공동체의 기본이 되는 학급에서 지역 사회, 세계로 넓혀 가치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미래형교육과정의 교육이념 중에 하나인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문제를 학생들이 탐구해보고 해결함으로써 미래시민으로서의 올바른 미래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가정통신문으로 학부모들에게 안내가 되어 1년 동안 학년, 학급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이 무엇이고, 학생들의 미래역량 중 어떠한 부분이 향상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또한 프로젝트교육과정 중 학생 개개인의 역량 함양을 볼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항상 모둠별, 개인별로 운영하였으며, 한 학기에 2~3회 있는 프로젝트가 끝날 때마다 학부모들에게 ‘프로젝트 과정 통지표’를 배부함으로써 교사, 학부모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하여 주요 교육공동체의 긍정적 관계 형성을 유도하였다.

2. 학생의 '읽과 삶'의 주도성을 기르는 읽걸쓰 기반 미래형교육과정,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가?



프로젝트 포트폴리오

프로젝트명	주제	수행 방법	진행 과정	결과물	평가
1.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학생들이 직접 캠페인 문구와 포스터를 제작하여 학교 곳곳에 게시하였다.	1. 1월 1주	1. 캠페인 문구, 포스터	4.5
2. 학교폭력 예방 연극	학교폭력 예방 연극	학생들이 학교폭력 예방을 주제로 연극을 제작하여 학교에서 공연하였다.	1. 1월 2주	1. 연극 대본, 연극 영상	4.5
3. 생태감수성 키우기 활동	생태감수성 키우기 활동	학생들이 학교 텃밭에서 작물을 키우며 생태감수성을 높였다.	1. 1월 3주	1. 텃밭 사진, 작물 키우기 일지	4.5
4. 생태감수성 키우기 활동	생태감수성 키우기 활동	학생들이 학교 텃밭에서 작물을 키우며 생태감수성을 높였다.	1. 1월 4주	1. 텃밭 사진, 작물 키우기 일지	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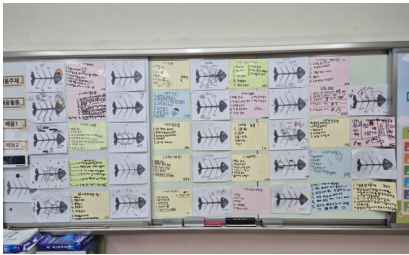
프로젝트 통지표

개인의 창의적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가치
 • 현명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최선의 해결방안 탐색
 • 신선하고 새로운 아이디어 산출, 다양한 관점 유지
 • 질문노트 답변노트
 • 공동체 속에서 함께 살아 가자 하는 태인을 배려하고 존중할 수 있는 가치
 • 타인과의 긍정적인 관계 유지를 위한 양보, 배려, 경청, 존중의 문화 정착
 • 어른들의 세상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개인주의, 이기주의를 지양하고 올바른 공동체 의식 함양

공동체 속에서 타인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가치
 • 다양한 지역적, 사회적 문제들을 타인과 협력하여 해결할 수 있는 능력 함양
 • 집단지성 발휘하기
 • 오동원간의 협력, 상호보완
 • 공동체의 기본바탕이 되는 자구를 사랑할 수 있는 가치
 •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의 탐색, 제시
 • 지속가능발전목표 17가지 중 생태계와 관련된 '해양 생태계, 육상 생태계 등을 탐구하여 생명존중 사상의 함양 및 지속가능한 자구를 위한 목표 설정'

CURE 프로젝트
 C (creativity)
 U (united)
 R (respect)
 E (earth)

학급프로젝트 예시



프로젝트 활동 결과물

〈인천부개초등학교 프로젝트교육과정 운영 사례〉

나. 존중과 협력으로 배려를 실천하다(실천 인재)

결대로자람학교를 운영하면서 본교의 교사들은 무엇보다 학생들의 올바른 인성함양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였다.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안들이 발생하지 않기 위한 적극적인 학교폭력예방교육활동 및 사안이 발생하더라도 학생들이 서로에게 상처보다는 존중, 배려, 관용 등의 활용을 통하여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1~2주 정도의 인성교육중심 미니 프로젝트를 설계·실천함으로써 효, 공경, 경청, 공감, 인내, 절제, 생태감수성, 생명존중사상 등을 함양시키고자 하였다. 이러한 교육의 결과는 학생들의 학교생활 모습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는데, 본교 결대로자람학교 연차가 올라갈수록 학교폭력 사안이 줄어드는 반비례의 상황을 보였고, 대부분 학생, 학부모들의 반응 또한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시대가 바뀌어도 학생들은, 넓게 나아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어야 하는 올바른 인성을 학교는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함양시켜야만 하는 책임이 있다. 이에 본교에서는 의미 있는 학생들의 변화를 위하여 결대로자람학교 하나의 중심축으로 인성교육을 설계·실행하였다.



학교폭력예방 캠페인



학교폭력예방 연극



생태감수성 키우기 활동 (학년별 농작물 키우기)



생태감수성 키우기 활동 (제비집 찾기 체험활동)

〈인천부개초등학교 인성교육 운영 사례〉

다. 서로 같음과 다름을 인정하고 활용하다!(융합 인재)

학생들이 주인공이 되어 살아가게 되는 미래사회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상식, 틀을 모두 깬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 확실하며, 무엇보다 **사회적·문화적 다양성이 중요시 될 것이 분명하다**. 최근 학교에서 다문화학생들을 많이 볼 수 있게 되었으며, 우리나라 역시 세계적인 흐름에 맞춰 다문화국가로 재편성된다고 말할 수 있다. 때문에 학생들에게 다문화의 개념을 정확히 알려주고 오해와 편견으로 생길 수 있는 문화적 충돌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었다. 본교에서는 해마다 늘어나는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건강한 어울림을 위하여 다문화를 이루고 있는 주요 국가들의 문화·역사·언어 등을 공유해보는 시간을 갖고, 그 결과가 세계시민교육 속으로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는 다양한 체험활동을 실시하였다.**



다문화교육(일본)



세계시민교육(인천의 역사)



민주시민교육(타협의 과정)



어울림 교육(벽화 꾸미기)

〈인천부개초등학교 미래시민교육 운영 사례〉

라. 꿈과 끼를 펼치며 감수성을 키우다!(감성 인재)

본교의 **결대로자람학교 미래형교육과정의 특색 중 하나는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이다**. 결대로자람학교 이전의 문화예술교육은 악기 다루기, 노래 부르기, 만들기, 춤추기 등 문화예술의 범위가 주로 학교 안에서만 실시되는 경향이 있었다. 때문에 본교는 **학기초 교육과정을 구성할 때 교육공동체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하여 ‘읽건쓰 기반의 미래형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추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들의 문화감수성의 향상**이라는 결과로 나타났으며, 학생 및 학부모들의 만족도 또한 매우 높았다. 다양한 문화예술교육(공연관람, 1인 1악기, 전통예절교육, 미술관 감상 등) 외에도 뉴스포츠 수업, AI 활용 체육활동, AI 활용 정보화교육, 지역연계교육을 활용한 체험활동 등을 통하여 학생들의 꿈과 끼를 펼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고자 하였다.



문화예술교육(공연관람)



뉴스포츠 수업



토요 워킹투게더 행사



1인 1악기



디지털 사이언스 데이(읽견쓰 중심 AI 진로교육활동)



지역연계교육(읽견쓰 중심 사회문화체험활동)



〈인천부개초등학교 문화감수성 교육 운영 사례〉

4 부개 미래형교육과정에 대한 고찰 및 앞으로의 방향



가. Q: 교육과정의 재구성은 과연 필요한가? A: 필요하다.

결대로자람학교를 운영하면서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기 전 본교의 교사들은 학년의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기 위하여 상당히 분주한 시간을 보냈다. 물론 처음에는 누구나 불만어린 목소리가 나왔으며, 전국의 초등학교에서 주로 사용하는 프로그램으로 그냥 돌리면 교육과정이 완성되어 나오는 것을 왜 이런 고생을 해야만 하는가라는 대답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결대로자람학교를 운영하면서 교사들의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는 능력이 처음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성장하였고, 교사의 성장은 학생의 성장 및 학교에 대한 학부모의 신뢰로 수렴되었다. 시작은 어렵다. 교육과정 재구성을 하며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은 담금질의 결과인 인천부개초등학교의 미래형교육과정은 초등 결대로자람학교 중 하나의 매뉴얼이 되었다고 자부하고 싶다.

나. Q: 결대로자람학교는 지속되어야 하는가? A: 지속되어야 한다.

결대로자람학교의 취지는 학생주도성을 강조하고, 학교 문화를 민주적으로 변화시키며, 혁신적인 교육을 추구하는 인천형 혁신학교를 만드는 것에 있다. 본교에서는 이러한 취지를 반영하여 2022~2025년 동안 교육과정 차치 기반 조성, 민주적 학교 공동체, 전문적학습공동체, 윤리적 생활 공동체, 미래형교육과정 운영, 학생주도성을 살리는 수업 혁신, 학생의 성장·과정중심평가 등을 중점적인 실천사항으로 설정·운영하였다. 이러한 실천 과정 및 결과는 기존의 학교시스템에서는 보기 힘들었던 결과를 도출하였다. 기존의 학교시스템에서는 대부분 업무부장, 학년부장과 같은 각각의 큰 톱니바퀴가 전체를 이끌어가는 경향이 짙었다. 그러나 결대로자람학교를 운영하면서 이러한 기존의 흐름은 모든 교사가 비슷한 크기의 톱니바퀴가 되어 학교라는 조직을 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결과로 바뀌었으며, 마치 블록체인과 같은 탈중앙화현상이 학교 내에서 발생하였다. 직위에 관계없이 민주적으로 모든 교사는 협의회 때 자신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고, 교사들 간의 다양한 의견교환은 집단지성의 보편화로 귀결되었다. 또한 결대로자람학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본교 관리자들이 적극 실천했던 교사행정업무경감 역시 교사들이 수업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러한 긍정적인 학교의 변화는 결대로자람학교 전에는 보기 힘든 것이 사실이었으며,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결대로자람학교는 지속되어야만 할 것이다.

다. Q: 학생들에게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는가? A: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

4년 동안의 결대로자람학교를 운영하면서 학생들에게 나타났던 가장 큰 변화는 학습에 대한 자기주도성의 향상이었다. 결대로자람학교의 가장 큰 장점 중의 하나는 학생이 중심이 되어 운영하는 미래형교육과정이며, 이러한 부분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본교의 교사들은 학생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된 내용들을 교육과정 속에 최대한 반영하였다. 결대로자람학교가 시작되던 초창기에는 대부분의 교사들에게서는 학생들이 주도하는 교육과정 운영의 현실가능성이 주된 논쟁거리였으나, 해가 지날수록 그러한 우려는 조금씩 사라졌으며 학생들은 본인들이 원하는 내용들을 수업시간에 적극 개인·모둠별로 탐구하는 모습을 보였다. 4년 동안의 결대로자람학교를 통하여 학생들의 면학분위기가 향상된 모습을 교사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는 것은 매우 행복하고 흥미로운 경험이었는데, 이 속에는 교사의 개입을 최소화한다는 핵심이 있었다. 일부에서는 초등학생들의 특성상 교사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수라고 말한다. 다만 이러한 주장은 기초생활습관형성이 매우 중요한 1·2학년에서 주로 적용이 되는 내용이고, 모든 학년에서는 안전, 교우관계, 예의범절 등에 주로 해당이 된다. 본교에서 시행하는 수업을 피자 만들기로 비유를 하자면 교사는 학생들에게 기본이 되면서 탄탄한 도우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고 학생들은 본인들이 원하는 토핑들을 올림으로써 다양한 맛의 피자를 만드는 요리사의 역할을 한다. 학생들은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토의·토론능력의 향상, 자료조사 및 탐구 능력의 향상, 듣기·말하기·쓰기·읽기능력 등이 많이 향상되었으며, 특히 모둠의 목표를 위하여 모든 구성원들이 하나의 팀으로 움직이는 능력이 매우 탁월해졌다. 이는 결대로자람학교에서 중요시하는 학생 개개인의 성장을 충족하면서 올바른 미래시민의 필수조건인 협업능력을 고무적으로 향상시켰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학생들은 일상생활 속에서도 다양한 주제에 대하여 흥미를 가지고 탐구하며, 학교에서 배운 내용들을 그대로 적용·실천하고자 하는 모습들은 보였다. 이는 삶과 삶이 하나가 되는 읽건쓰 교육의 모범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본교는 오늘도 결대로자람학교를 통하여 교사·학생들은 성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성장의 열매 속에서 나온 씨앗이 다시 많은 학교로 퍼지기를 희망한다.

3

교사와 학생이 함께 성장하는 ‘삶 중심의 익선쓰 기반 미래형교육과정’, 지속 가능한 방안은 무엇인가?

- 인천남동초등학교
- 인천주원초등학교

결대로, 함께 걸어온 길



학 교 명	인천남동초등학교	학급 수(학생 수)	17학급(312명)
소 재 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결대로자람학교 지정 연도	2022. 3. 1.
세션 주제	교사와 학생이 함께 성장하는 '삶 중심의 읽견쓰 기반 미래형교육과정', 지속 가능한 방안은 무엇인가?		
		(최초 지정 연도)	2018. 3. 1.

1 두 번째 결대로자람학교의 시작



2022년 2월, 새로운 학기를 준비하던 워크숍에서 우리는 물었다.

“우리 학교의 아이들이 어떤 사람으로 자라났으면 좋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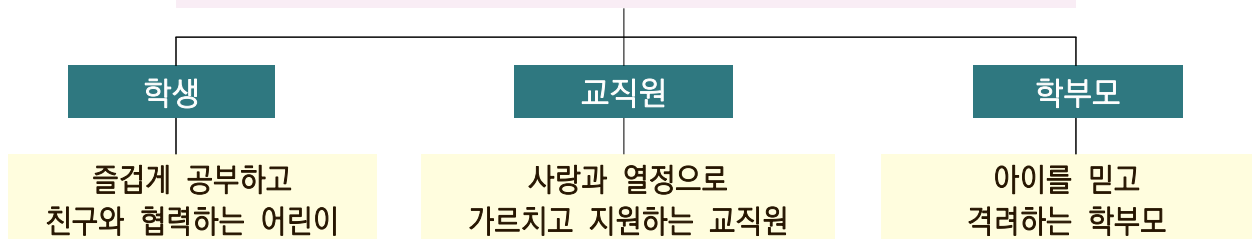
“이곳에서 함께 살아갈 우리 모두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할까?”

깊고 긴 대화 끝에, 우리는 하나의 비전을 완성해 나갔다.

‘스스로의 걸음으로 세상과 마주하는 남동교육공동체.’

그 한 문장이 방향이 되고, 기둥이 되었으며, ‘결대로자람학교’로서의 남동초의 뿌리가 되었다.

스스로의 걸음으로 세상과 마주하는 남동교육공동체



2 스스로의 걸음으로: 주체적인 아이들



‘스스로의 걸음’은 결대로자람학교 교육의 출발점이었다.

우리는 아이들이 남이 만든 길을 따르기보다는 자기 속도와 자기 색깔로 걸어가는 사람이 되길 바랐다. 그 믿음 아래, 학생 자치의 문을 열었다.

2022년, 아이들은 그 문을 스스로 통과했다. '개성찌는 축제'는 그해 가을 처음 열린, 오롯이 아이들이 만든 학교 축제였다. 어떤 틀도 주지 않았다. 아이들이 하고 싶은 것을 기획하고, 자신들이 참여하고 싶은 축제를 설계했다. 축제의 이름도 직접 만들었다. 처음에는 '개성찌는'이라는 단어가 학교에서 쓰기 쉽지 않다고 했지만 아이들이 구상하는 축제는 개성이 대단한, 아이들 표현으로 개성 찌는 축제 그 자체였다. 4~6학년들은 선배로서 부스를 기획하고 운영했으며 1~6학년 모두 축제의 참여자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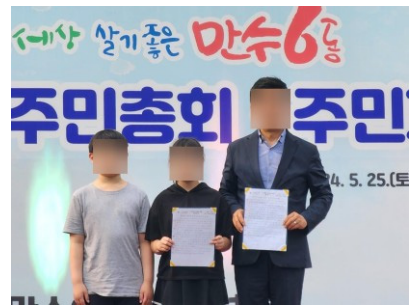
음식 부스, 학교 관련 퀴즈, 드론·VR 체험, 심지어 공연까지... 축제는 해를 거듭할수록 깊어지고 넓어졌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매해 축제 뒤에 아이들이 남긴 성찰이었다. “다음엔 이런 점을 더 잘하고 싶어요.”, “제가 4학년이 되면 부스를 운영할 거예요”, “이건 친구들이 잘 안 참여했어요.” 아이들의 언어로, 다음 해의 축제를 바꿔 나갔다.



개성찌는 축제



나는 Citychanger이다.



만수 6동 주민총회

또한, 학생들의 주도성은 수업에서도 나타난다. 우리 학교는 전 학년에서 '프로젝트형 수업'으로 운영된다. 단편적인 지식 전달을 넘어, 삶과 연결된 배움, 스스로 기획하고 탐구하는 과정 속에서 학생들은 주도적인 학습자가 되어간다.

2024년, 4학년 교실에서 진행된 「나는 Citychanger이다」 프로젝트 수업은 그 대표적인 예다. 이 수업의 출발점은 '나는 더 좋은 인천에서 살고 싶어요'라는 빅아이디어였다. 아이들은 우리 지역의 공공기관에 대해 배우고, 우리가 겪는 불편과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을 익혔다. 단지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넘어, 배운 내용을 실제 삶 속에서 실천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학생들은 직접 마을을 탐방하며 변화가 필요한 장소를 찾았다. 첫 번째로 아이들의 눈에 들어온 곳은 '장승백이 전통시장'이었다. 한때 북적이던 시장이 점차 조용해지는 모습을 보며, 아이들은 “이 시장을 살리고 싶다”는 간절함을 품게 되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다시 시장을 찾게 될까?” 아이들은 고민 끝에 '학생들을 위한 쉼터'가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아이와 함께 오는 보호자, 쉼터에 머무는 사람들로 유동 인구가 늘어나면 시장도 살아날 수 있다는 추론이었다. 이를 담은 제안서를 아이들 스스로 작성했고, 만수6동 주민총회에 직접 참석해 제안까지 했다. 초등학생이 제안한 그 한 장의 글에는 마을을 사랑하는 마음과 스스로를 변화의 주체로 여기는 자긍심이 담겨 있었다.

두 번째로 주목한 문제는 '학교 뒤 어두운 골목길'과 '무분별한 쓰레기 투기'였다. 이 문제는 어른들이 쉽게 놓칠 수 있지만, 매일 그 길을 오가는 아이들에게는 실감나는 불편이자 위협이었다. “전봇대에

부딪혔어요.”, “쓰레기 냄새가 너무 심해요.” 아이들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문제를 정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가로등 설치’와 ‘분리수거함 마련’을 제안했다. 국민신문고에 직접 제안서를 제출했고, 실제로 남동구청과 만수6동 행정복지센터로부터 답변을 받았다. 가로등 설치에 긍정적인 검토가 이뤄졌고, 쓰레기 문제 역시 대안적 조치가 안내되었다. 이 과정을 통해 아이들은 ‘작은 목소리도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배웠다.

이처럼 프로젝트형 수업에서 ‘학생주도성’은 단지 발표나 활동의 주체로서만 존재하지 않는다.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정보를 탐색하며, 가장 효과적인 해결 방법을 고민하는 과정 전체가 배움이다. 교사는 설계자이자 조력자로서 그 여정을 곁에서 함께할 뿐, 진정한 배움의 주인은 늘 학생이었다. 아이들은 이 경험을 통해 사회와 관계 맺는 법을 배우고, 세상에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힘을 키웠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삶 그 자체에서 시작된 ‘진짜 수업’이었다.

3 세상과 마주하는: 삶과 연결된 교육과정



우리는 울타리 안에 갇힌 배움을 원하지 않았다.

교과서 속 지식으로만 머무는 수업이 아니라, 삶과 연결되고, 감각을 열며, 세상과 대화하는 교육을 꿈꿨다. 그 방향은 우리 학교의 생태교육과 문화예술교육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구체화되었다.

생태교육은 계절을 따라 흐르는 교육이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바뀔 때마다 우리는 장수천으로, 인천대공원으로 나갔다. 봄꽃의 흐드러짐, 여름 곤충의 생동감, 가을 단풍의 물듦, 겨울 숲의 적막함.

아이들은 그 안에서 자연을 관찰했고, 그 흐름에 자신을 포개며 자라났다.

계절이 변할수록 아이들의 시선도 변했다. 봄에는 꽃의 이름을 묻고, 가을에는 나무의 나이테를 궁금해했다. 자연은 아이들에게 가장 깊은 교과서였고, 우리는 그 안에서 배움의 문을 열었다.

‘착한 지구인 프로젝트’는 생태 감수성을 일상속에 녹여낸 교육과정이었다.

학교 1층에 설치된 페트병 수거기, 폐건전지 모으기, 지구의 날 소등 캠페인. 이 모든 활동은 단순한 실천을 넘어, ‘지구와 어떻게 관계 맺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품게 했다. 아이들은 그것을 행동으로 대답했다. 어제는 무심코 지나쳤던 쓰레기를 주워 담고, 오늘은 친구에게 분리배출을 이야기했다. 환경 교육은 교실에서 시작됐지만, 그 실천은 아이들의 삶 속에서 이어졌다.

우리 학교의 문화예술교육 또한 이러한 철학 위에 세워졌다.

예술은 단지 감상하거나 흉내 내는 활동이 아니었다. 그것은 아이들이 삶의 한가운데에서 자신을 표현하는 존재로 성장해 나가도록 설계된 교육과정이었다. 해마다 이어지는 경험은 단절 없이 연결되었고, 그 흐름 속에서 아이들은 점점 더 깊이 있는 표현의 언어를 배워갔다.

1학년의 교실에서는 노래와 몸짓이 먼저 말을 대신했다. 음악은 감정을 열게 했고, 움직임은 마음을

드러내는 첫 통로가 되었다. 2학년, 3학년을 지나면서 아이들은 전통 음악을 배우고 작은 장면극을 구성하며, '내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에 대해 처음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저 부르던 노래는 이제 감정을 담는 도구가 되었고, 친구들과 함께 구성한 장면 하나하나 '함께 만든 이야기'가 되었다. 5학년이 되었을 때, 아이들은 마침내 자신의 이야기를 직접 무대 위에 올리기를 시작했다. 역사 속 인물을 주제로 극본을 쓰고, 장면을 나누며 조명과 감정의 흐름을 구상했다. 무대에서 아이들은 단지 배운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다. 대신 그들은 자신이 이해한 세계와 역사를, 타인 앞에서 전하고 싶은 이야기로 바꾸어 표현했다.

그리고 그 흐름의 끝자락, 6학년의 교실에서는 영화가 탄생했다. 아이들은 자신이 쓰고 싶은 시나리오를 스스로 쓰고, 장면을 구상하며 촬영과 편집을 함께 해나갔다. 완성된 단편 영화는 실제 영화관에서 상영되었고, 부모님과 친구들 앞에서 아이들은 스크린을 통해 '나의 세계'를 펼쳐 보였다. 그 순간, 아이들은 관객이 아닌 창작자였고, 예술가였다. 이 모든 과정은 단지 '활동'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설계하고 실천한 하나의 교육과정이었다. 표현은 감정의 분출이 아니라, 생각을 정리하는 힘이며 삶을 이해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술과 생태를 단지 '한 번쯤 해 보는 활동'이 아니라, 아이들이 성장의 길목마다 반드시 만나야 할 배움으로 놓았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우리 아이들은 점점 더 단단한 언어를 가지게 되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은 말할 수 있다. 나는 지금, 세상과 이야기할 수 있다고.



계절 생태 수업



지구의 날 소등캠페인



5학년 역사연극제



6학년 영화제 준비

4 남동교육공동체: 함께 자라는 우리



남동초를 지탱하는 또 하나의 뿌리는 바로 '남동교육공동체'다. 학교는 단일한 공간이나 조직이 아니라, 서로 배우고 나누며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라고 믿었기에 우리는 교사, 학생, 학부모가 각각의 자리에서 자율성과 책임을 바탕으로 관계를 맺고 연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실천을 이어왔다.

교사 공동체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함께 배우는 교사'의 길을 걸어왔다. 교사들은 학년 단위의 전문적학습공동체를 넘어, 학교 차원의 연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두레'라는 이름의 학습 공동체를 자발적으로 조직해 운영해왔다. 두레는 크게 혁신, 연구, 생활이라는 세 축으로 운영되며, 각 두레는 자신의 주제에 따라 지속적인 연구와 실천을 이어왔다. 혁신 두레는 결대로자람학교의 방향성과 지속 가능성에 대해, 연구 두레는 미래형교육과정 설계를 위한 개념기반탐구학습 프레임 개발, 다양한 학생 평가 방안 연구 등 심화된 교육과정 탐색에 초점을 맞추었다. 생활 두레는 학생 생활지도의 방향을 함께 고민하며, 학교

문화를 따뜻하게 다듬는 역할을 했다. 이렇듯 각자의 두레 안에서 교사들은 질문하고 토론하며, 교육에 대한 철학과 실천을 맞추어 나갔다.

특히, '수업 나눔'은 우리 학교 교육과정 연구 문화의 정점이었다. 단순히 한 교사의 수업을 참관하고 피드백하는 수준을 넘어서, 하나의 단원을 설계하는 과정부터 실행과 평가에 이르기까지 공동의 탐구로 이뤄지는 협력적 연구 문화가 정착되었다. 학년 단위로 교육과정 협의가 시작되면, 하나의 주제를 선정하여 개념기반탐구학습을 바탕으로 단원 전체를 공동 설계하고, 그 설계를 기반으로 대표 교사의 수업이 실제로 이뤄진다. 수업 이후에는 해당 수업을 기반으로 다른 반에서 수업을 실험적으로 적용해 보고, 실시간으로 생긴 학생 반응이나 교수학습 전략에 대해 다시 협의한다. 단원 종료 후에는 사후 협의를 통해 전체 단원을 되돌아보며, 교육과정 설계와 수업 실행 간의 간극, 학생 참여와 배움의 수준에 대해 함께 성찰한다.

이러한 수업 나눔 과정은 교사 한 사람의 역량을 넘어서, '학교'라는 공동체 전체가 교육과정의 주체로 자리매김하는 과정이다. 우리는 누가 더 잘 가르쳤는지를 따지기보다, 어떻게 하면 더 나은 배움을 아이들에게 선사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문화 속에서 교사로서 서로에게 배우고 성장할 수 있었다.

또한, 학부모와의 소통 역시 교육공동체로서의 운영을 단단하게 만드는 기반이 되었다. '학부모 동행 모임'에서는 특히 저학년 학부모들이 학교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학부모 동아리 활동을 통해 교육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학교 구성원으로서의 자부심도 함께 자라났다.

결대로자람학교는 교사, 학생, 학부모가 '교육'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각자의 방식으로 다가가고 있는 공동체다. 우리는 여전히 질문하며 실천하고 있으며, 그 과정 안에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서로에게 배우며, 함께 나아가고 있다. '남동'이라는 이름 아래 모인 우리 교육공동체는, 그렇게 결대로 자라나는 중이다.



두레 활동



수업 나눔



학부모 동아리 활동

5 우리에게 남동초란



결은 억지로 틀지 않아야 한다. 자연스러운 흐름일수록, 그 결은 단단하고 아름답다.

결대로자람학교의 지난 4년은 바로 그런 시간이었고, 우리는 여전히 그 흐름 속을 걸어가고 있다. 아이들은 스스로의 걸음으로 배우고, 세상과 마주하며, 공동체 속에서 함께 자라고 있다.

지난 4년을 돌아보며 우리는 물었다. 남동초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남동초만의 결대로, 그 길을 다시 함께 걸어 나간다.

□ 남동초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 ➔ 폭죽처럼 준비 되었을 때 빵-터져서 아무것도 없는 도화지에 가장 예쁜 색을 남기는 학교
-학생 A-
- ➔ 남동초는 안경이다. 안보이는 곳을 보게 해 주고 거기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학생 B-
- ➔ 남동초는 '지니'다. 머릿속에 상상한 했던 활동을 현실에서 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학생 C-
- ➔ 새싹이던 아이들을 꽃으로 활짝 피어나게 해 주는 학교: 왜냐하면 우리의 첫 발걸음을 이 남동초에서 시작해 지금 이렇게 성장했기 때문에 -학부모 D-
- ➔ 남동초는 무한도전이다. 끊임없이 도전하고 성장하는 곳이니까 -교사 E-
- ➔ 남동초는 여행이다. 기쁜 일도, 힘든 일도 많지만 끝내고 나면 행복한 기억만 남아 있다
-교사 F-



삶의 힘이 자라는 '라별교육과정' 레시피를 소개합니다!



학 교 명	인천주원초등학교	학급 수(학생 수)	15학급(240명)
소 재 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결대로자람학교 지정 연도	2022. 3. 1.
세션 주제	교사와 학생이 함께 성장하는 '삶 중심의 읽견쓰 기반 미래형교육과정', 지속 가능한 방안은 무엇인가?		
		(최초 지정 연도)	2022. 3. 1.

1 주원초 '라별교육과정'은요!



인천주원초등학교 교육 슬로건은 '빛나라 별들아!'이다.

주원초 '라별교육과정'은 '빛나라 별들아!'의 줄임 표현으로, 주원초 모든 교육활동의 중심과 철학은 여기에서 시작한다.

높이 떠서 저마다의 색깔로 밝게 빛나는 별처럼 주원초 학생들이 각기 다른 자신의 꿈과 장점을 스스로 찾을 줄 알고, 주변 사람과 더불어 도우며 살아가려는 삶의 힘을 가꾸는 교육을 하기 위한 촘촘한 계획과 기대하는 역량이 녹아 있다.

주원초 안에 똑같은 아이들은 아무도 없다. 배움의 속도도 다르고, 성격도 모두 다르며, 자신이 경험한 것에 관한 생각이나 느낌도 모두 저 하늘의 별만큼이나 다르지만 저마다 자신만의 특별함이 있기에 더욱 아름답고 돋보인다.

2022년 행복배움학교, 2023~2025년 결대로자람학교를 운영하며 학생 자신의 힘으로 나다움을 찾고, 일상이 배움이 되어 더불어 성장하는, 읽과 삶이 연결된 교육을 실현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리고 다음의 교육비전 및 목표를 수립하여 실천하고 있다.

자신의 힘으로 삶을 가꾸고 더불어 성장하는 주원배움공동체

2022~2025년 주원초 '라별교육과정'은 여기에 능동적 배움, 실천적 자치, 일상 속 어울림. 이 3가지의 Tip을 더하여 삶의 힘이 자라는 결대로자람학교를 운영하였다.

그럼, 이제 더욱 풍성해진 "Version 1. 라별교육과정" 레시피를 소개해 보고자 한다.

2 (Tip 1) 라별교육과정 + '능동적 배움' 한 스펀 → 학생주도성을 기르는 삶의 힘

학생이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실행한 생태전환교육, 인천세계시민교육, 지역연계교육 기반 교육과정 재구성 프로젝트

우리 학교는 학년말부터 다음 해 2월까지 교육공동체 모두의 의견을 담아 새 학년도 배움의 밑바탕을 마련한다. 이렇게 재구성한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학생들과 함께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수행하며 능동적 배움을 실현해 나가는데 여기서는 라별교육과정 중점 주제인 '나&이웃', '공존&어울림', '공정&참여'를 중심으로 생태전환교육, 인천세계시민교육, 지역연계교육 기반 학생주도성을 기르는 배움의 실천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주원초에는 학교숲 1호 '꿈트리 정원', 학교숲 2호 '신나는 등갯길'이 펼쳐져 있다. 또한 앞으로 2026년에는 인천형 1호 숲속학교가 구축될 예정이다. 이렇듯 주원초 학생들은 항상 숲이 함께 하고 있다. 그 누구보다 생태환경에 진심인 학생들은 학년별로 위계를 갖춘 '초록초록 생태전환교육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운영하며 생태 감수성과 환경의 소중함을 가꾸었다. 학생들은 숲과 함께 놀며 자연과 친구 되기, 에플(에너지, 플라스틱) 다이어트 실천하기, 우리 주변 동물사랑 활동하기, '아낌없이 주는 나무' 기후변화 프로젝트, 학교 텃밭을 활용한 친환경 농작물 재배하기, 식물 이해와 함께하는 자연보호 프로젝트로 주변 환경 보호 문제 해결에 참여하기와 같은 프로젝트를 실천하며 생태환경 지킴이로서 성장하기 위해 삶의 힘을 기르고 있다.

好朋友(hǎo péng you) 인천세계시민교육 프로젝트는 2020년부터 현재까지 진행해 오고 있는 주원초의 역점 활동 중 하나이다. 주원초는 다문화 학생 비율이 약 23%에 달하는 다문화 중점학교로 문화 다양성이 풍부한 환경인 만큼 학생 중심의 세계시민프로젝트 운영이 빛을 발할 수 있었다. 6년째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는 함께 배우는 중국어교실, '나&이웃', '공존&어울림', '공정&참여'라는 중점 주제를 중심으로 '친구야 사랑해', '나와 이웃', '연와마을 탐험대', '나는 자랑스러운 인천인', '인천세계인권문제 해결을 통한 평화와 공존', '우리 마을 지키기 함께 해요' 등의 세계시민교육과정, 홍콩·중국학교와의 국제교류 활동을 운영하였다. 우리 학생들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 나와 이웃, 세계 속 우리나라를 바로 알고 세계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과 품성을 직접 체험하며 세계 속 1인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태도와 마음을 알차게 준비하고 있다.

질문하고 상상하며 걷기를 강조한 인천교육 브랜드가 발표되기 전부터 주원초 학생들은 읽건쓰 기반 지역연계 프로젝트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었다. 주원초는 결대로자람학교, 숲속학교 조성 공모사업, 인천세계시민학교, 교육혁신지구 지역연계 교육활동 등 특색사업을 조화롭게 융합하여 학생들과 함께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운영하였다. 학생들은 체험 장소를 미리 상상해 보고 체험해 본 후 결과를 정리하고 소통하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읽건쓰 교육을 체득하였다. 가까이 있는 마을 불링장, 수영장, 아이스링크장,

시청, 중앙공원, 중앙도서관, 조금 멀리는 인천대공원, 소래습지, 월미도, 송도신도시, 영종도, 강화도까지 배움의 영역을 넓히며 삶에서 배움의 힘을 기르고 있다.



우리가 심고 가꾸는 학교 텃밭



홍콩 친구들과의 추억 - 국제교류



인천바로알기 - 산업현장 견기체험

3 (Tip 2) 리별교육과정 + '실천적 자치' 한 스펀 → 스스로 가꾸는 삶의 힘

학생자치회가 중심이 되는 우리 학교 학생활동

매월 둘째 주 화요일. 학생자치회가 만드는 아침 방송 '주원해피통신'이 방영된다. 지난 한 달간 있었던 학교의 다양한 소식을 사진과 함께 알려주는 시간으로 그중 많은 학생의 관심을 끄는 활동은 바로 이달의 베스트 포토이다. 사진 속 재미있는 장면을 만든 학생들을 뽑아 베스트 포토로 선정하고 과자 선물을 주는 이 시간은 심심한 방송조화를 모두가 기다리게 하는 순간이다.

우리 학교 학교숲 1호 꿈트리, 학교숲 2호 신나는 등갯길은 계절마다 모양과 색을 달리한다. 학생자치회는 사계절 추억 남기기 프로젝트로 학교숲에서 '즉석 사진 찍기' 주간을 정해 운영하였다. 여러 차례의 회의를 거쳐 각 계절에 어울리는 주제를 선정하여 소품을 활용한 인생네컷 콘셉트 사진을 찍고 학교숲도 거닐어 보는 오솔길 사진관도 열어보며 스스로 만들어 본 활동에서 즐거움을 느끼고 있다.

이제 슬슬 다 함께 모일 때가 되었다.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 모여도 250여 명 남짓한 전교생이 모여 학생 대토론회를 연다. 마이크를 잡고 자신의 의견을 가감 없이 토해내는 학생의 모습에서 스스로 자신이 주원초의 주인임을 알고 학교의 변화를 일으키는 장면을 통해 삶 속에 녹아든 실천하는 학생 자치의 성장을 볼 수 있다.

주원초 여름 방학식은 모든 학생이 기다리고 있을 만큼 특별하다. 왜일까? 여름방학 맞이 소감 인터뷰도 하고, 한 학기 동안 길러왔던 특색 활동을 뽐내기도 하고, 전교생 다 같이 핸드벨도 연주하고, 또 한목소리로 여름방학 선포식도 하는 행복한 시간이기 때문이다. 이 모든 아이디어는 오로지 학생들을 통해 나왔다. 그렇기에 주원초 모든 학생은 함박웃음 지으며 즐겁게 여름 방학식에 참여한다. 이렇듯 스스로 의견을 내어 만든 행사는 강한 힘을 가진다.

어느 학교에서도 볼 수 없는 학생 자치의 끝판왕은 학생자치회가 주관하여 기획하고 운영하여 개교기념일 전날인 12월 5일에 열리는 '학교 생일잔치'이다. 학생자치회는 11월부터 학급마다 빠짐없이 돌아다니며

행사를 홍보하고, 공연팀을 모집하고, 오디션을 실시한다. 참여하는 학생도 심사하는 학생들도 긴장하여 선발한 팀이 학교 생일잔치 무대에 오른다. 또 모두 참여하는 학교 사랑 OX 퀴즈 시간에는 선후배 함께 팀을 이루어 문제를 풀어보기도 한다. 주원초 학생들은 이날 얼굴만 알던 선후배와 친구들의 끼와 재능을 알게 되고 함께 모여 노는 즐거움을 느꼈다. 스스로 만드는 일상의 기쁨은 학생들의 삶을 풍요롭게 한다.



주원해피통신



꿈트리학교숲 추억 찍기



학생 대토론회



학교 생일잔치

4 (Tip 3) 라별교육과정 + '일상 속 어울림' 한 스펀 → 함께 성장하는 삶의 힘

학생이 함께 만드는 #인성올림교육
 교직원과 함께하는 라별 전문적학습공동체
 학부모가 함께하는 교육 기부활동

주원초 #인성올림교육은 한 학교에서 생활하는 학생 모두가 형제자매처럼 서로 어울려 아끼고 존중하며 소통하는 교육을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시민의 역량을 키우고 바른 품성을 지닌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한 인성교육 브랜드이다.

작은 학교의 이점을 살려 학년과 상관없이 함께하며 믿음과 신뢰를 쌓아간다. 주원초 학생들은 1학년 신입생의 급식을 도와주는 1+6학년 매듭 묶기 행복한 급식 시간, 그림책 읽어주기, 1학년 백일 잔치-선배님께 감사 인사하기, 4학년 낭독극 발표회, 2+5+6학년 연극 발표회에 함께 참여하기 활동으로 따스함이 늘 곁에 함께하는 일상을 경험하고 있다.

매월 3주와 4주 수요일에는 교직원이 자유롭게 참여하는 라별 전문적학습공동체 활동이 있다. 주원의 교육비전에 맞는 라별교육과정을 실현하기 위해 각 교사와 교직원들은 온-오프라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시시각각 변하는 교육환경을 만들어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매월 4주 차 주원 사랑방(교직원 다모임)은 누구나 안건을 내고 자유롭게 토론하는 장으로서 교직원 소통의 창이 되었다. 서로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으며 우리도 함께 민주적 배움공동체로 성장한다.

여기, 주원초 학생들을 위해 재능 나눔을 실천하는 분들이 있다. 바로 학생들 가장 가까이에서 그 누구보다도 튼튼하게 자라기를 바라는 학부모님들이다. 우리 학생들을 위해 직접 선정한 그림책을

읽어주시고, 모루 인형을 만들어 학생들이 만드는 플리마켓이 풍성해지도록 도움을 주신다. 또한 각각의 학부모님의 직업 특색을 살려 소방 교육, 캘리그래피 교육, 내 몸 내가 지키기 호신술 안전교육, 미국 원어민 학부모님의 미국문화 소개 등 다양한 교육 기부가 이루어졌다. 이렇듯 학부모님이 함께한 교육 기부활동은 라별교육과정을 더욱더 풍요롭게 만들었다.



1+6학년 매듭 묶기 행복한 급식 시간



라별 전문적학습공동체



학부모 교육기부활동

5 앞으로 만들어갈 “Version 2. 라별교육과정” 레시피는요!



주원초는 “Version 1. 라별교육과정”을 통해 ‘능동적 배움, 실천적 자치, 일상 속 어울림’이 3가지 맛깔나는 Tip을 더해 학생의 나다움을 살리고 스스로 배움을 주도하며 자신의 선택을 실천하고 함께 더불어 성장함을 보여주는 결대로자람학교 읽건쓰 기반 미래형교육과정의 한 유형을 제시하였다.

2026년도 주원초는 인천 1호 숲속학교 조성을 시작하는 한해로 큰 변화를 맞이한다. 본교에 조성될 숲속학교는 인천 최초의 생태체험이 가능한 숲속학교로서 학생들이 숲에서 함께 놀고 배우며 힘을 누릴 수 있는 즐겁고 행복한 교육 공간이 될 것이다. 우리는 이와 발맞추어 자연과 더불어 배우고 익히는 초록초록 생태전환교육을 업그레이드하여 생생함이 살아있는 “Version 2. 라별교육과정”을 구현하고자 한다.

주원배움공동체는 각자의 다름을 존중하고 사랑하며 더불어 성장하고 함께 빛내며 아름답게 가꿀 수 있는 “Version 2. 라별교육과정”을 만들어갈 것이다.

결대로의 빛들이 만들어 낸 어울림의 시네마



학 교 명	인천봉화초등학교	학급 수(학생 수)	18학급(301명)
소 재 지	인천광역시 서구	결대로자람학교 지정 연도	2022. 3. 1.
세션 주제	지역 특성을 담은 읽걸쓰 기반 미래형교육과정 운영, 학생의 성장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최초 지정 연도)	2018. 3. 1.

#0 봉화 시네마의 시작



“넘어지고 부딪치면서 배우는 거야. 별들도 그렇게 빛나기 시작했어.”

영화 『스타더스트』(Stardust, 2007)의 이 대사는 함께 고민하고 실천하며 걸어온 봉화초 결대로자람학교의 여정을 떠올리게 한다. 서툴렀기에 ‘넘어지고 부딪치면서’ 좌충우돌 했지만,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함께 뜻을 모아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별들도 그렇게 빛나기 시작했음’을 증명하는 가르침과 배움의 여정을 쉬지 않고 걸어왔다.

봉화초 결대로자람학교는 처음부터 완성된 형태가 아니었다. 마치 한 편의 영화가 탄생하듯 교사, 학생, 학부모가 함께 시나리오를 구상하고, 시퀀스를 선택하여 밀도 있게 촬영하며 우리만의 이야기를 만들어 왔다. 막막했던 순간도 있었지만 우리가 놓지 않았던 것은 바로 ‘학생들을 믿고 함께 성장하자.’는 약속이었다. 이제, 학생들의 열망에 찬 눈빛, 학부모들의 관심과 기대, 교사들의 신념과 열정을 토대로 우리만의 속도와 방향으로 성장해 온, 봉화의 따뜻한 결실의 장면들을 하나씩 펼쳐 보이고자 한다.

빛나는 나, 꿈꾸는 우리, 행복한 봉화, 세계로 미래로! 스텐바이 큐!

#1 stand by: 모두가 빛나는 별이 될 준비



- ☆ 교육공동체의 협력과 전문적학습공동체의 고민으로 **교육력 UP!**
- ☆ 학생들과 학부모에게 열린 학교 운영으로 **추인의식 UP!**

한 편의 영화가 관객을 만나기까지는 시나리오 구상, 영화 기획, 연출 및 제작 등 수많은 절차와 과정이 필요하고, 노력이 하나로 모일 때, 비로소 감동적인 영화가 탄생할 수 있다. 우리 봉화에서는 학생 개개인 모두가 저마다의 '결대로' 아름다운 별이 되어 세상을 밝게 빛낼 수 있도록, 먼저 다양성을 바탕으로 교육 시나리오를 구상하게 되었다.

1. 영화 시나리오를 만들기 위한 학교의 현실

인천봉화초등학교는 서구 가좌동 공단 지역에 있으며, 목재단지와 공장, 고밀도 주택가로 주변 환경이 열악하다. 교육복지 대상이 절반을 넘고 다문화 비율도 30%를 넘어 점점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별이 어둠 속에서 가장 밝게 빛남을 알기에, 학생 한 명 한 명을 자신의 결대로 만들어 가는 영화 속 주인공이 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다.

2. 봉화만의 시나리오를 쓰다

봉화의 시나리오는 교직원들의 헌신으로 첫 단추가 끼워졌다. 신학기 교육과정 워크숍을 통해, 우리 학교의 현실과 상황에 맞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학교 비전을 수립했으며, 정기적인 다모임을 실시하여 교육과정 운영에 중요한 사항들을 교사 간의 대화와 토론을 통해 민주적으로 결정했다. 또한 교직원 불링대회, 교육력회복 단합회, 교직원 체육 연수 등을 실시하여 교육력 회복에도 힘썼다. 그 결과, 교직원의 마음이 하나로 모여 오롯이 학생 교육에 헌신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이러한 교직 문화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실질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보다 내실있고 실효성 있는 전문적학습공동체를 만들어 가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동학년 단위 '수업 연구 전문적학습공동체' 및 '주제형 전문적학습공동체(학생상담, 협력과 소통의 체육 수업 방법, AI 디지털 활용 수업 방안, IB기반 개념 탐구학습 연구)'를 꾸준히 운영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신학기 교육과정 워크숍



교육력회복 단합회



놀이체육 팀워크 다지기



학교생활규칙 정하기 다모임

이런 멋진 시나리오의 토대는 학생들의 협력과 주도적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더 나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생자치회가 주도적으로 다양한 사업(자치회 간담회, 강당 개방, 실내화 및 우산 대여, 화장실 보수 건의 및 방향제 설치, 학년별 스포츠 클럽 계획 및 대회 운영)을 추진하였다. 또한, 학생들이 학교생활규칙을 직접 정하여 공유하고 실천하는 등 학생 다모임을 활성화하였다.

1, 6학년 띠앗 맷기 활동은 월 1회 '멘토가 멘티에게 책 읽어주기', '학교 시설 소개하기', '줄넘기 가르쳐 주기', '협동화로 계절 표현하기' 등, 서로의 마음을 교감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로 진행되었으며, 이를

통해 협력적 소통과 공동체성 역량 강화에 힘썼다. 여기에 봉화 학생들이 자신만의 빛을 마음껏 발할 수 있도록 학부모들도 기꺼이 동참했다. 학부모들은 ‘교육 기부’ 및 ‘학부모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아낌없는 응원과 지지로 시나리오를 써 내려가는데 든든한 밑거름이 되어 주었다. 이에 더하여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함께 어우러지는 교육활동으로 ‘사제동행 아침 걷기(매수 수, 금요일 아침, 전체 학생의 70% 참여)’ 및 ‘봉화 가족 한마음 운동회’, ‘봉화 히든 스타 축제(성탄트리 개회식 및 온이음 연계 푸드트럭 운영)’를 운영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1,6학년 띠앗맷기 활동



봉화 가족 한마음 운동회



봉화 히든스타 축제



사제동행 아침 걷기

#2 Ready Action! 파노라마 같은 봉화 교육 이야기의 시작



☆ 경험하고 체험하며 성장하는 놀이교육으로 **자주성, 창의력 UP**

☆ 읽고, 걷고, 쓰며 세상을 만나는 독서, 도서관 활용 교육으로 **문해력, 삶의 힘 UP**

1. 모든 아이의 삶에 스포트라이트를: 학생들의 자존감을 높이는 봉화 교육

가. 놀이교육

봉화초는 학생의 자발성과 자주성을 강조하고, 공감과 소통의 틀 안에서 자유로운 상상력과 창의력이 발현되는 ‘배움이 즐거운 학교’가 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 중심에는 ‘놀이’가 있었으며 ‘놀이 배우는 학교’, ‘숲체험 교실’, ‘학년 놀이마당’, ‘한마음 체육대회’, ‘교육활동 발표회’ 등 다양한 놀이교육 활동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학습 활동에 대한 자신감과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게 되었다.

나. 읽건쓰 문해력 향상을 위한 도서관 활용교육

봉화초 학생들에게 읽건쓰에 기반한 문해력 향상 교육이 절실하다는 교육공동체의 요구를 수용하여, 본교 도서관과 지역 관련기관 등을 연계한 교육을 구상하였다. 이에 다양한 도서관 행사를 비롯하여 ‘독서

동아리 운영', '부모님과 함께하는 저녁 독서', '독서 골든벨' 등의 활동을 실시하였으며, 각 교실에서도 '비경쟁 독서토론', '독서놀이' 등을 통하여 학생들의 문해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방향을 모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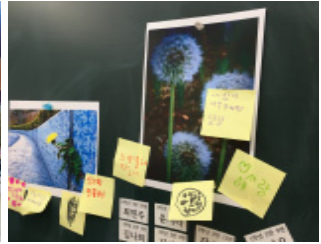
비경쟁 독서토론



부모님과 함께하는 저녁 독서



독서 골든벨



읽건쓰 독서동아리

2. 내 삶의 모든 곳이 무대가 되도록: 삶과 배움이 하나 되는 봉화 교육

- ☆ 교사 공동의 성찰을 통한 수업 실천으로 **미래형교육과정 운영 능력 UPI**
- ☆ 삶과 연결된 실천 중심의 프로젝트 참여로 **미래역량 UPI**
- ☆ 학생이 주인공 되는 프로젝트 운영, 학부모 초대 영화제로 **공교육 만족도 UPI**

가. 지역 사회를 관찰하고 변화시킨 학생들

2023학년도에는 4학년 학생들이 '마을 속 문제 해결자'로 나섰다. '지역사회 탐방'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우리 마을의 문제를 직접 탐색하고 기록하였다. 이 과정은 '관찰 → 질문 생성 → 문제 정의 → 해결책 제안 → 실천'이라는 탐구적 학습 단계를 거쳤으며, 학생들은 그 결과물을 담은 제안서를 서구청에 공식적으로 전달하였다. 이는 학생들에게 배움이 교실 안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사회와 연결되는 것임을 깨닫는 매우 의미 있는 경험이 되었다.

나. 영화의 주인공이 되어본 학생들, 전통을 만들다!

2024학년도에는 6학년 학생들이 '영화제작 프로젝트'를 운영하며, 영화제작의 전 과정을 직접 진행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은 자아 효능감 증대에도 큰 도움이 되었으며 의견이 다른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인성교육까지 아우를 수 있었다. '제1회 봉화 단편 영화제'를 개최함으로써 자신들이 직접 크랭크인하여 땀 흘려 만든 영화를 저녁 시간에 부모님을 초대하여 상영했고, 살아있는 교육과정의 결과물을 통해 공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만족도 향상에도 기여했다. 또한 '봉화 단편 영화제'가 우리 학교의 전통으로 자리 잡기를 바라는 여러 의견들을 수렴하여 2025년에도 동일 프로젝트를 운영하여 학생들의 꿈과 끼를 응원하고 있다.

다. IB PYP 기반 탐구 주제로 더 깊이 있게 배우는 우리

교사들은 기존의 프로젝트 수업에 PYP의 탐구 주제와 탐구 질문을 적용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다수의 워크숍과 협의를 거쳐 PYP 철학을 해석하고 교육과정으로 풀어내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였다. 특히 PYP의 여섯 가지 탐구 주제 중, '자기표현 방식', '세계의 작동 방식' 등은 결대로자람학교의 지역 연계 학습과도 자연스럽게 맞닿아 있다.



4학년 프로젝트
(서구청 제안서 전달)



3학년 프로젝트
(마을 탐방)



6학년 프로젝트
(영화 제작)



6학년 영화제
(레드카펫 입장)

4P 역량 함양을 위한 읽견쓰 프로젝트 운영

구분	1학기	2학기
1학년	▷ 함께 놀며 함께 배우는 우리!	▷ 알록달록 내마음
2학년	▷ '나' 탐구 생활	▷ 모두를 위한 발명: 아름다운 동행을 위한 배려의 완성
3학년	▷ 우리가 사는 곳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보자! ▷ 우리가 사는 지역의 기록 보관소를 만들어 보자!	▷ 환경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 아낌없이 주는 지구
4학년	▷ 같이의 가치, 함께하는 4학년 ▷ 봉화 플리마켓 프로젝트	▷ 너도 할 수 있어! 프로젝트
5학년	▷ 우뚝 서는 나, 함께하는 너, 소중한 우리	▷ 소중한 우리나라: 과거와 현재를 넘나드는 역사 여행
6학년	▷ 바르고 고운 우리말을 지켜줘! ▷ 모의카페 창업 프로젝트	▷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지구촌!

3. 동행과 성장이 빛어낸 명장면: 함께 성장하는 봉화 교육

☆ 함께 성장하기 위한 다문화교육으로 **세계시민역량 UP**

☆ 자연과 함께 어우러지며 성장하는 **지속발전가능역량 UP**

봉화초는 다양한 사람들이 어울려 지내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문화교육을 강화하고, 한국어 습득을 위해 한국어 학급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생태교육을 강조하여 학교 안 생태교육(텃밭 활동, 학교 숲 관찰, 노플라스틱 챌린지)과 학교 밖 생태교육(녹지공원 탐방활동, 해양환경체험, 자원 순환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 밖에도 학생들이 직접 플리마켓을 운영하며 물건을 사고 파는 경제활동을 해봄으로써 합리적인 소비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했다.



다문화교육



해양환경 체험학습



NO플라스틱 챌린지



한국어 학급 운영

4. 미래라는 스크린 위에 희망을 그린다: 미래를 준비하는 봉화 교육

본교는 급변하는 미래 사회와 교육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AI교육 특성화 환경을 조성하고 학생들에게 폭넓은 AI-디지털 교육 기회를 제공하였다. 모든 교실에 최신 스마트TV를 설치하여 가상현실 수업, 스마트 커뮤니케이션 등 미래지향적인 수업을 진행하였으며, 전 학년에 걸쳐 AI-디지털 교육을 실시하였다.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교 구성원들도 AI 교육 소양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교내·외 연수에 참여하였으며, 특히 교사 간 AI 교육 수업 사례를 공유하며 AI 지도 능력을 높여 나갔다.

또한 미래 사회에 대한 고민을 바탕으로 인간이 가진 고유의 장점을 살려주기 위한 교육도 함께 실시했다. 전통의 사물놀이와 탈춤, 현대의 방송댄스, 우쿨렐레 등을 배우며 과거와 현재를 아우르는 한편, 학생들의 일상적인 에피소드를 학생들이 직접 제작하고 상영하는 행사도 가졌다. 학부모님들도 참여할 수 있는 '부모님과 함께 하는 저녁 독서'를 운영하여, 직장 생활로 바쁘신 부모님과 함께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다. 이러한 미래에 대한 고민들은 4학년에서는 온책읽기 수업과 연계한 읽건쓰 활동을 통해, 5학년에서는 인권교육(배리어 프리)을 주제로 한 프로젝트를 통해 심도있게 진행되었다.



진로체험활동



학교 텃밭 가꾸기



학교 숲체험 교실



플리마켓

#3 It's ongoing: 여전히 진행 중인 모든 별들의 이야기



“우리 학교가 ‘결대로자람학교’라고 했을 때 뭐가 다른 건지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 공부하는 프로젝트 수업을 경험하며 수업이 재미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제가 주인공이 되었던 영화제작 프로젝트 수업이었습니다. 자신감이 많이 부족했던 저에게 한 편의 영화를 완성해 가는 과정은,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거라는 스스로에 대한 믿음과 꿈을 갖게 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저를 성장시켜 준 학교와 선생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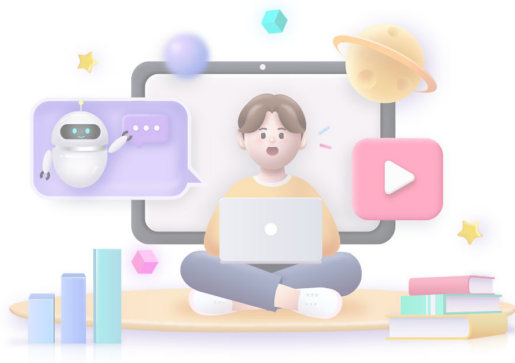
- <2024학년도 6학년 졸업생 인터뷰 중에서>

다양한 프로젝트 수업을 하다 보면, 학생들의 새로운 얼굴을 마주하게 된다. 교실에서 무표정하게 앉아 수업을 듣던 학생들이 아니라, 각자의 방식으로 반짝이며 개성 있게 빛나는 주인공의 얼굴들이다.

이 반짝임을 보기 위해 달려왔던 봉화의 지난 4년간 여정은 이제, 영화의 엔딩이 아닌 새로운 시작으로의 도약을 예고하고 있다. 오랜 시간 공들여 촬영한 영화가 개봉을 앞두고 감독과 배우들, 관객들에게 설렘을 안기듯, 4년 차에 접어든 봉화의 ‘결대로자람’은 교직원, 학생, 학부모라는 각 교육 주체가 각자의 자리에서 빛나는 주인공으로 함께 성장해 왔기에, 앞으로 펼쳐질 또 다른 무대에 대한 설렘으로 가득 차 있다.

2025학년도에도 봉화의 시나리오는 ‘빛나는 나, 꿈꾸는 우리, 행복한 봉화, 세계로 미래로’라는 교육비전 실현을 향해 끊임없이 쓰여질 것이며, 단편적인 시도를 넘어 10년 이상의 긴 호흡을 가진 장기적인 프로젝트들을 매년 개발하고 발전시켜 우리만의 빛나는 시그니처를 만들어갈 것이다.

저마다의 빛깔을 가꾸며 꿈을 키워가는 즐거운 배우터이자 행복한 꿈터인 봉화의 시네마는 미래를 향한 약속이라는 감동적인 엔딩 크레딧을 준비하며, 지금 이 순간에도 아름다운 시나리오를 계속 써 내려가고 있는 중이다.



신흥 어린이, 자연을 품고 문화를 걸어요!



학 교 명	인천신흥초등학교	학 급 수(학 생 수)	18학급(310명)
소 재 지	인천광역시 중구	결대로자람학교 지정 연도	2022. 3. 1.
세 선 주 제	지역 특성을 담은 읽걸쓰 기반 미래형교육과정의 운영, 학생의 성장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1 體仁知로 Change하는 신흥이야기



인천신흥초등학교는 원도심에 위치하며 140년의 전통을 지닌 유서 깊은 학교지만 현재 학생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다문화 학생 비중이 늘면서 문화적 차이에 따른 갈등의 소지가 높아졌다. 이런 학교 상황을 타개하고 보다 역동적인 학교로 *Change* 하기 위하여 교육공동체의 바람을 담은 체(體)인(仁)지(知)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자연과 함께 자라고, 문화적 다양성 안에서 공감과 소통을 배우는 아이들을 키우고자 하였다.

2 사람다움을 배우는 시간, 마음이 자라는 교실



◎ 體仁 몸으로 배우고 마음으로 나눴어요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올바른 인성을 기르기 위해 2023년부터 인성교육 거점센터 조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인성이 최고의 경쟁력이라는 현시대의 요구를 반영하여 인생의 기초체력을 기르는 초등학교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였다. 남부 올바른배움터와 읽걸쓰 기반 미래형교육과정 재구성을 조합하여 실천 체험 중심의 인성교육이 이뤄지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하였고, 만족도 또한 높아 지속적인 운영이 학생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결과를 얻게 되었다.

지역사회 인력풀을 이용하여 다도 체험, 음악 놀이, K-pop댄스 등의 활용을 바탕으로 나눔과 배려를 몸소 실천하며 나를 올바르게 세우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고, 어울리며 실천하는 과정에서 스스로에게 배움이 일어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다.



찾아오는 올바로교실(다도 체험)



찾아오는 올바로교실(음악 놀이)



찾아오는 올바로교실(K-pop댄스)

◎ 體仁 흙 물은 손에서 피어난 따뜻한 마음

학교 텃밭을 조성하여 학생들이 계절에 따라 다양한 작물을 심고 가꾸며 자연의 변화를 관찰하고 생명의 소중함을 학습하게 되었다.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 작물에 대한 소중함이 사람에 대한 소중함으로 흘러가 서로를 존중하는 안정된 교실에서 배움도 싹트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씨앗을 심고 물을 주며 ‘잘 자라줘! 쑥쑥 커! 나만큼 튼튼하게 자라!’ 등 예쁜 말을 해주며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직접 느끼게 되었다. 씨앗이 싹을 틔우고 자라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생명의 신비함과 경이로움도 직접 경험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자연과 환경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키웠다. 직접 기른 무로 깍두기를 담그는 활동에서는 평소 김치를 좋아하지 않던 학생들도 내가 직접 기른 우리 반 무로 만든 김치라며 먹어 보기를 도전하는 등 새로운 모습도 발견할 수 있었다. 친구들과 함께 주도적으로 텃밭을 가꾸면서 자연스럽게 협력하는 태도를 배우고 서로 도우며 배려하는 마음을 키울 수 있었다.

사계절 내내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야하는 텃밭 활동을 통해 또래 관계에서도 작물에 대한 책임감이 흘러가게 되었고 교과 활동에서도 맡은 역할을 성실하게 해내려는 태도들이 조금씩 자라고 있다. 물론 작물 수확 과정에서 맡은 역할을 미루거나 책임을 다하지 않아 다툼이 생기기도 했지만 아이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가 생겨났다.

이처럼 텃밭 교육은 단순히 농작물을 기르는 것을 넘어 학생들이 올바른 인성을 형성하고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또한 여러 마음들이 배움으로 이어져 학습 면에서도 학생 성장에 기여하게 된다.



텃밭 배움터 조성



1인 1배추-수확철 배추밭



직접 기른 무로 내가 담근 김치

3 결대로 꿈과 끼를 키우는 학교



2022년부터 현재까지 학생의 꿈과 끼를 키우고 학생 본연의 걸을 찾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잘하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직접 체험하며 즐기는 문화예술교육 활동으로 개인의 걸을 찾고 서로의 걸을 더해 진정한 하모니를 이루도록 자기주도적 역량과 공동체 역량을 키우고 있다.

◎ 體仁 소리로 하나 되는 순간, 북소리에 담긴 마음의 걸

‘둥, 둥, 둥’ 북소리에 학급은 하나가 되어가고, 학생들의 마음속에는 또 다른 울림이 일어나고 있었다. ‘난타’라는 활동으로 저마다의 결대로 연주하며 조화롭게 소리를 맞추고 울동을 맞춰 결대로자람 문화예술 나눔 활동(학예회)과 졸업식에서 연주할 생각에 조금 더 신중하고 집중하여 연습하였다. 학생들이 북을 칠 때는 무아지경에 빠진 사람처럼 그저 친구들과의 호흡과 리듬에 자기 몸을 맡겨 나만의 걸이 오롯이 나타나도록 집중하고 있다.



문화예술나눔 발표회 공연 ‘난타’



내 마음속 울림 ‘난타’ 연습



북 소리에 담긴 마음의 걸 ‘난타’

◎ 仁知 네 줄의 울림, 마음을 잇는 우쿨렐레

평소 문화예술교육을 접하기 힘든 학생들에게 우쿨렐레 악기 연주 기능을 습득하고 친구들과 함께 연주하며 즐겁게 노래 부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문화예술에 대한 거리감을 줄이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학생들은 자신들이 좋아하는 곡을 선정하고 연주하는 과정을 통해 예술적 감성을 키우고, 타인에 대한 배려와 자신의 꿈과 끼를 계발할 수 있게 되었다.

우쿨렐레 4개의 현이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룰 때 가슴 벅찬 감동과 자신들이 연습한 결과물을 결대로자람 문화예술 나눔 활동에 발표하면서 성취감을 느끼게 되었다. 또한 학생의 타고난 소질과 적성을 계발할 기회를 제공하여 학생들의 재능 발굴 및 특기 신장에 기회가 되어 큰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4. 지역 특성을 담은 읽견쓰 기반 미래형교육과정 운영, 학생의 성장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우쿨렐레로 기초 기능 익히기



우쿨렐레 연주하며 노래 부르기



문화예술 나눔 발표

◎ **體仁** 리듬을 넘고, 마음을 키우는 음악줄넘기

신체를 움직이며 리듬감을 동시에 기를 수 있는 음악줄넘기 활동을 매주 꾸준히 실시 함으로써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박자와 리듬을 느끼고 다양한 동작을 창의적으로 조합하면서 표현력과 창의력도 함께 자라났다. 줄넘기 기술을 익히며 신체 발달뿐 아니라 집중력과 자기조절 능력도 키웠다. 음악과 움직임이 어우러지는 경험은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음악줄넘기는 몸과 마음이 함께 자라는 문화예술 교육활동의 좋은 본보기가 되며, 또한 친구들과 함께 줄넘기라는 교구로 활동하며 협동심과 배려심도 갖게 되었다.



리듬을 넘는 음악줄넘기



음악줄넘기로 하나되는 우리



리듬과 함께 씩씩 씩씩 음악줄넘기

4 다양성을 품은 교실, 미래를 여는 학생 자치



◎ **仁知** 다문화로 배우는 어울림의 가치

인천신흥초등학교는 여러 국적(중국, 베트남, 시리아, 예멘, 키르기스스탄, 일본,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호주, 미국, 러시아, 몽골, 대만, 말레이시아 등)의 학생이 4명중 1명 꼴로 재학 중이다. 그래서 문화의 다양성을 이해하는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다른 문화적 배경을 지닌 친구들과 어울림 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다문화 이해교육, 세계시민교육이 더욱 중요하다. 이에 각 학년별로 다양한 국적의 원어민 강사를 초빙하여 그 나라의 언어, 의식주 등 문화 전반에 대해 알아보고 그 나라의 문화 체험의 시간을 가졌다.



Native에게 배우는 세계시민교육



세계 여러 나라 전통의상 체험



한국어 학급 이중언어말하기 활동

선생님과 문화의 다양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다문화 가정에 대한 편견을 갖지 않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문화 다양성 이해의 시작이라는 것임을 알게 되었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마음과 상호 문화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었다.

◎ 仁知 말하는 교실, 움직이는 학교

2022년 결대로자람학교를 시작하며 학생이 중심이 되는 첫 출발로 학생 자치회의 활성화가 더욱 중요했다. 당시 학급 회장, 부회장이 없었기에 아무 조건 없이 희망하는 학생을 모집하여 신흥 대의원회를 조직하였다. 학기 초에는 학생 자치에 필요한 기본 소양과 회의 절차를 익히고, 이후로 안건을 제시하고 토의하는 과정에 비중을 두었다.

대의원회에서 토의한 안건을 바탕으로 공약 실천, 교내 캠페인 활동, 이웃돕기, 신흥 우체통 설치, 편지 교환 등의 활동을 실천하였다.



월별 실천가치 선정



공약 실천하기(재활용컵 배부)



신흥 우체통(친구와 편지 교환)

학생 자치활동에서 의미 있는 변화는 가치 선정의 시작이 교사 다모임에서 대의원회로 바뀌었다는 점과 학교 대의원회와 학급 다모임이 연계되어 공동가치의 실천 방법을 함께 토론하는 시스템으로 구축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안건을 제시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중심으로 대의원회를 운영함으로써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여 글로벌 리더로서의 첫발을 내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5 신흥 體仁知 (CHANGE) 교육과정, 지속 가능한 미래형 학교로의 도약

지난 4년간 올바로·결대로·세계로 배우며 성장하는 신흥 體仁知(CHANGE)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학교 교육과정 혁신을 꾸준히 추진하였다.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여, 지속 가능한 미래형 학교로 성장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인천신흥초등학교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한다.

먼저, 지속 가능한 미래형교육과정을 더욱 내실화하여, 학생 개개인의 꿈과 끼, 결을 깊이 있게 키우는 맞춤형 교육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올바로·결대로·세계로 향하는 교육과 더불어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 역량을 체계적으로 길러주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성장하는 학습 환경을 조성할 것이다.

또한, 다문화 학생 비율이 높은 학교 특성을 살려 글로벌 시민교육 선도학교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다문화 이해 교육을 넘어,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친구들과 협력하여 살아가는 다문화 모델학교가 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실제적, 실질적, 체험적인 교육이 이뤄지는 글로벌 경험의 기회를 넓혀나갈 것이다. 학생 자치 활동도 한층 내실화하여, 학생들이 학교 운영에 직접 참여하고, 변화를 만들어가는 모델로 발전시키고자 한다. 학생회와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공동 가치를 실천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서 역량을 자연스럽게 함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예정이다.

텃밭 교육의 성공 경험을 기반으로 생태·환경교육을 선도하는 학교로 도약하고자 한다. 단순한 작물 재배를 넘어 생태 전환교육과 연계하여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통합적 교육과정으로 재구성하고, 환경보호도 겸할 수 있는 프로젝트 활동도 활발히 추진할 예정이다.

이 모든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은 교육공동체인 교사들의 역량과 전문성이다. 본교는 교사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힐링할 수 있는 체계적 지원을 강화하여 교원 역량 강화와 전문성 심화를 동시에 이루려 한다. 이를 통해 교사와 학생, 학부모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안전 이



5

**학교와 마을이 연결되는
익견쓰 기반 미래형교육과정은
어떻게 ‘앎과 삶의 주도성’을
기를 수 있는가?**

- 동광중학교
- 인천남중학교

학교 안에서 학교 밖으로! 배움의 테두리 확장으로 성장과 배움 키우기



학 교 명	동광중학교	학 급 수(학 생 수)	3학급(57명)
소 재 지	인천광역시 강화군	결대로자람학교 지정 연도	2022. 3. 1.
세션 주제	학교와 마을이 연결되는 읽걸쓰 기반 미래형교육과정은 어떻게 '읽과 삶'의 주도성'을 기를 수 있는가?		

7 결대로자람학교, 새로운 물결로 다가오다



우리 학교는 '바른 인성으로 서로 신뢰하며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라는 비전을 품고, 학생 개개인이 융합적 사고 역량을 키워 미래를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삶의 힘을 길러 배움을 실천하여 꿈을 성취하며, 나아가 배려와 소통으로 공동체의 성장을 도모하는 사람으로 자라나도록 교육 목표를 설정하고 실천해 왔다.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도면에 자리한 우리 학교는 전교생이 57명인 전형적인 소규모 학교이다. 특히 34명에 달하는 남자 축구부 학생들은 학교생활보다는 축구부 활동에 더 큰 관심을 기울이는 경향이 있다. 이로 인해 1교시부터 6교시까지의 정규 수업 참여도가 낮았고, 이는 종종 수업 분위기를 어렵게 만들곤 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학교는 '결대로자람학교'라는 새로운 교육 모델에 주목하게 되었다. 읽과 삶이 연결된 교육을 통해 학생 개개인의 '나다움'을 찾고 책임감 있는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결대로자람학교의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학교의 모습이 아닐까하는 생각을 하였다.

'결대로 자란다'는 이름이 말해주듯, 학생 각자가 지닌 고유한 특성과 잠재력이 온전히 발현될 수 있도록 학교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 교직원들의 뜻이 모였다. 결대로자람학교의 비전을 체계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교직원들은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활발히 공유하고 심도 있는 고민을 나누었다. 그 결과, '마을(지역)과 함께하는 교육과정'이 학교 교육과 학생들이 살아가는 '읽'과 '삶'을 연결하는 핵심적인 축진제가 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처럼 결대로자람학교는 '제3의 물결'과 같이 우리 학교에 새로운 가능성과 비전을 제시했다. 우리는 이 변화의 물결 속에서 휩쓸리기보다는, 우리 학교와 학생들의 특성에 맞는 '결대로자람학교'를 만들어가기 위해 학생, 학부모, 교직원 모두가 함께 동광교육의 새로운 틀을 구축하고자 노력했다.

2 결대로자람학교, 마을과 깊이 연결되다



우리 학교가 위치한 강화도는 예로부터 군사적 요충지이자 다양한 역사적 사건의 중심지였으며, 유구한 역사와 풍부한 문화유산을 간직한 고장이다. 더불어 한강, 임진강 하구에 펼쳐진 광활하고 희귀한 갯벌 등 빼어난 생태환경을 자랑하며 ‘생명의 섬’이라 불리기도 한다. 이처럼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고 역사, 문화, 아름다운 자연이 어우러진 매력적인 곳에서 우리 학생들은 일상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교육은 더 이상 학교라는 물리적 공간에만 머무를 수 없다. 학생들이 발 딛고 살아가는 ‘마을’이야말로 그 자체로 귀한 배움의 공간이며, 학교에서 얻은 ‘앎’을 삶 속에서 실천하고 확장하는 중요한 장이 된다. 전통적인 교육이 학교 안에서의 지식 습득에 집중했다면, 현대 사회가 요구하는 교육은 학생들이 속한 지역사회와의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전인적인 성장을 지향하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 학교는 학생들이 자신의 삶의 터전인 지역사회와 마을을 깊이 이해하고 애착을 형성할 수 있도록, 마을(지역)과 긴밀히 연계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마을(지역)이 가진 인적, 물적, 생태환경적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학생들이 배우는 내용이 삶의 실제적인 맥락과 연결되도록 힘썼다.

3 한결같은 마음으로 결대로 자라나도록 돕다



마을을 기반으로 운영된 우리 학교의 결대로자람학교는 학생들이 우리 지역에 대한 다양한 내용을 실천적인 방법으로 배우고 익힘으로써 학습 역량과 더불어 공동체에 대한 정의적 발달을 이루고, 그 결과가 다시 지역사회로 환원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를 실현하고자 공동체적 가치와 문화, 민주적 시민의식 함양 등 역량 중심의 학습에 주력했으며, 교육 내용은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나누어 진행했다.

가. 우리 마을에 대해 깊이 알기

우선 학생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을 깊이 이해하고 알아가는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자신이 살아가는 공간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다음 단계의 학습과 활동이 가능하기에, 마을에 대해 알아가는 과정을 결대로자람학교 교육과정의 첫걸음으로 삼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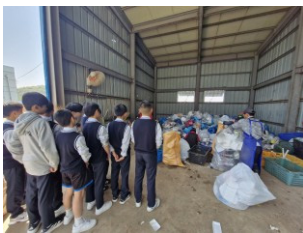
강화도는 위치상 중요한 군사적 요충지이기 때문에 군부대가 많다. 지역 군부대인 학교 위쪽에 위치한 해병대 부대와 자매결연을 맺어 학생들이 직접 부대를 방문하고 군인들의 생활을 접하며 나라 사랑 교육 및 안보 교육을 받았다. 학교 아래 양도면사무소 옆 분리수거장을 찾아 마을 쓰레기 처리 과정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 마을 도서관인 자람도서관을 방문하여 도서관에 있는 다양한 책을 살펴보고 책을 읽는

시간을 가졌다.

학교 뒷산인 진강산 등반을 통해서도 우리 고장의 명산에 대해 생각해 보고, 진강산의 벌대총 전설과 관련된 너럭바위 말발굽 흠을 직접 살펴보고 마을에 얽힌 전설을 탐구했다. 진강산 자락에 있는 조선 후기 학자 정제두의 묘 봉헌제에 학생들이 참가하여 우리 마을의 자랑스러운 학자에 대해 알게 하였다. 또한, 학교 인근의 전통음식체험관에서 전통 떡을 만들고 맛보며 우리 지역의 식문화를 체험했다.

영어 교과와 사회 교과를 융합하여 우리 마을을 조사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안내하는 영어 마을 지도 그리기 활동을 진행했으며, 강화도에 거주하는 대만, 베트남, 모로코, 캄보디아 출신 이주민들을 초청하여 각 나라의 문화를 배우며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강화 역사를 테마로 한 영어 캠프를 통해 역사와 영어를 동시에 익혔고, 평화 전망대를 방문하여 민족 분단의 아픔을 느껴보는 시간도 가졌다. 강화 갯벌 체험에서는 갯벌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 확인하며 자연환경의 소중함을 배우기도 하였다.

이처럼 '우리 마을에 대해 알기' 활동들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삶의 터전인 마을을 다양한 측면에서 깊이 이해하고, 마을과의 관계를 형성하며, 마을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소속감과 책임감을 기를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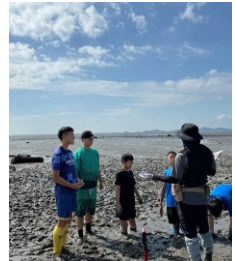
양도면 분리수거장



마을 지도 그리기



진강산 등반



갯벌 체험

나. 우리 마을, 우리의 배움터로 활용하기

마을 자체를 하나의 큰 배움터로 삼아, 마을이 가진 인적, 물적, 환경적 자원을 교육의 도구로 적극 활용함으로써 학습 목표를 달성하고자 노력하였다. 즉, 마을이 교실 밖의 살아있는 교재이자 역동적인 학습 공간이 되었다.

마을에 거주하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학교로 초청하여 학생들에게 생생한 지식과 경험을 전달받는 기회를 마련했다. 양도면 파출소 경찰관으로부터 학교 폭력 예방 교육을 듣고, 양도 농협 직원에게 경제 교육을 받았다. 목공 전문가와 플로리스트는 동아리 활동 강사로 참여했으며, 지역 청년 사업가는 학생들의 진로 연계 활동을 지도했다. 클라리넷부, 금관악기부, 밴드부 학생들은 지역의 악기 선생님과 함께 꾸준히 연습하며 실력을 키워 학교 축제나 음악회에서 멋진 공연을 선보였다.

매년 한 번씩, 마을길 걷기 행사를 통해 학생들이 느리게, 그리고 천천히 우리 마을을 느끼고 체험하며 마을 곳곳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양도면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모두 모여 여름에는 신나는 물놀이 축제를 즐기고 가을에는 아카펠라 공연을 함께 관람하며 우리 지역의 다른 학교 학생들과도 친목을 다지는 계기를 마련했다. 11월 11일 농업인의 날에는 양도면에서 생산된 쌀로 만든 가래떡을 함께 나누어 먹으며 지역 농산물의 소중함을 느끼기도 했다.

학급 학생회에서는 매년 텃밭에 심을 작물을 함께 결정하고, 학년마다 배정된 텃밭에서 고구마, 호박, 상추, 오이, 토마토, 파 등 다양한 작물을 직접 심고 가꾸는 일을 했다. 텃밭에서 자란 농산물은 6월에 열리는 마을 장터 ‘씨마켓’ 학생들이 직접 판매자로 참가하여 마을주민들을 대상으로 정성껏 키운 농산물을 판매했다. 가을에는 배추와 무를 재배하여 학부모와 지역 주민들에게 판매하며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 과정을 경험했다.

이처럼 ‘우리의 배움터인 우리 마을’ 활동들을 통해 학생들은 교실 안에서는 얻기 어려운 실제적이고 살아있는 학습 경험을 하며 배움의 의미를 확장할 수 있었다.



목공동아리



마을길 걷기



가래떡 데이



마을 장터 ‘씨마켓’

다. 내가 주인이 되는 우리 마을

학생들이 자신의 삶의 터전인 마을의 ‘주인’으로서 자라나기 위해서는 마을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책임감을 느끼고, 마을의 발전과 개선을 위해 직접 참여하고 기여하는 경험이 중요하다. 이는 마을을 단순히 배우는 대상을 넘어, 함께 만들어가는 능동적인 주체로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다.

깨끗한 우리 마을을 만들기 위해 자발적인 환경미화 활동을 펼쳤다. 학교 앞 하일리 갯벌 주변 도로에 무단 투기된 쓰레기를 줍고, 우리 마을의 소중한 문화재인 가릉, 굴암돈대, 정제두 묘 주변과 길가의 쓰레기를 수거하였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지역사회의 환경 보전에 직접 이바지하는 경험을 하였다.

학생들의 활기찬 등굣길을 응원하는 ‘등굣길 음악회’에는 지역 주민과 학부모님들을 초대하여 실력 있는 연주자들의 아름다운 음악을 함께 감상하며 힐링과 위로의 시간을 나누었다.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체육 행사로는 함께 웃고 소통하며 마음을 나누는 화합의 장을 만들었다.

또한 마을과 학교가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인 ‘동녘제’를 열었다. ‘마을과 함께하는 교육’이라는 주제 아래, 양도면의 4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과 지역 주민들이 찬조 공연과 축제 부스 운영에 참여하며 더욱 풍성한 마을 축제를 만들 수 있었다.

연말에는 마을 장터 ‘씨마켓’의 농산물 판매 수익금과 동녘제 먹거리 부스 운영 수익금 전액을 양도면 이웃 돕기 성금으로 기탁하며, 학생들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기쁨과 나눔의 가치를 실천했다.

이와 같은 ‘내가 주인이 되는 우리 마을’ 활동들을 통해 학생들은 마을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능동적으로 지역사회에 참여하는 태도를 기르며 시민성을 함양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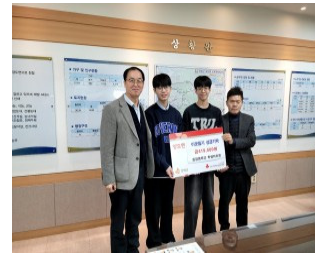
갯벌 정화 활동



골암 돈대 정화 활동



마을과 함께하는 축제



우리 마을 이웃돕기

4 결대로자람학교, 지속적인 성장으로 나아가다



우리 학교는 행복배움학교를 거쳐 올해로 8년째 결대로자람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8년간의 결대로자람학교 운영을 통해 우리 학교는 많은 면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맞이했다. 사립학교의 특성상 교직원 구성원의 변화가 적어 서로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때로는 이러한 익숙함이 변화보다는 안주를 선택하게 만드는 문화로 이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결대로자람학교 운영을 통해 우리는 변화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새로운 시도를 통해 얻는 성장의 즐거움을 몸소 느끼게 되었다.

하지만 결대로자람학교의 비전을 더욱 확고히 하고 지속 가능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직 해결해야 할 도전과제가 남아 있다.

첫째, 지난 8년간 결대로자람학교 운영을 통해 얻은 교육적 성과와 학교문화의 긍정적인 변화를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유지하며 더욱 발전시켜 나갈 구체적인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둘째,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 주민 등 다양한 학교 구성원의 자발적이고 의미 있는 참여를 더욱 확대하고 내실화하여 모든 구성원이 학교 운영의 진정한 주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끊임없이 강구해야 한다.

셋째, 우리 학교는 소규모 학교 특성상 교직원 한 명당 담당해야 할 업무량이 많아 결대로자람학교 운영 과정에서 교직원들의 소진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교직원의 업무 부담을 현실적으로 줄여 건강하게 교육 활동에 전념하고 결대로자람학교의 비전을 함께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 시스템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이러한 도전과제들을 깊이 성찰하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 학교의 결대로자람학교는 '완결'이 아닌 '지속적인 성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골목길에도 남풍이 분다. 교문을 넘어선 마을학교 '인천남중'



학 교 명	인천남중학교	학급 수(학생 수)	18학급(447명)
소 재 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결대로자람학교 지정 연도	2022. 3. 1.
세션 주제	학교와 마을이 연결되는 읽견쓰 기반 미래형교육과정은 어떻게 '읽과 삶의 주도성'을 기를 수 있는가?		

1 결대로자람학교 4년의 교육과정을 돌아보다



2022학년도 결대로자람학교 재지정 후 4년의 시간이 지나고 있다. 매년 새 학년을 시작할 때마다 학생들의 배움이 삶의 힘이 될 수 있는 교육과정은 어떤 것인지, 또 어떻게 운영을 해야 교육공동체 모두가 성장하게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존재한다. 교육활동에 대한 성찰을 통해 조금씩 변화하고 성장하기 위한 교육공동체의 노력이 있었고, 지금도 진행 중이다.

우리의 지난 4년의 시간은 마을과 함께 성장한 시간, 교육과정에 대한 고민들, 학생과 학부모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교육활동으로 집약된다. 교사들의 노력과 적극적인 참여, 학생들의 자발적 활동, 학부모님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4년 간 많은 활동들을 함께 이루어냈다.

학생들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주도적 성장을 할 수 있는 기반 위에 나를 넘어선 우리, 우리를 넘어선 마을을 이해하고 세계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미래교육의 힘이라고 본다. 지역사회의 역사와 문화를 품고 성장해 가고 있는 인천남중 교육과정을 소개함으로써 결대로자람학교의 발전 방향을 함께 논하고자 한다.

2 마을의 삶이 고스란히 묻어있는 학교



인천남중은 1946년 개교하여 80년의 역사를 가진 인천 미추홀구에서 가장 오래된 중학교이다. 제물포역 인근은 인천남중이 키워낸 졸업생의 터전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인천남중은 지역사회 주민들의 삶이 고스란히 묻어있는 '마을 그 자체'이다. 우리 마을은 원도심의 특성이 반영된 독특한 역사 문화 자원을 활용해 과거와 현재의 연결고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를 통해 마을 안에서의 가치를

배우고 나를 이해하고 타인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통해 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회정서학습을 추구한다.

가. 교문을 넘어선 진로 교육 활동

학교의 의미가 마을로 확장됨에 따라서 지역사회와 학교는 서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학교는 마을의 자원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삶과 연계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마을은 학교와 연결되어 주체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갖추고 함께 교육할 준비가 되어있다. 다만 마을의 자원이 한정되어 있다는 한계는 인천남중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였다. 이에 한정적인 자원을 가지고 활동을 하기 위해서 교사들은 교과수업과 연결하고, 진로와 연결하려고 노력하였다.

또한 마을이 가진 잠재력을 극대화하여 교육활동에 연계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였다. 이를 위해 학기 초에 학년별 마을연계 교육과정을 계획하였고, 마을의 인적자원, 물적자원을 활용한 수업을 구상하여 수행평가에도 반영하였다. 마을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체험학습 및 동아리 활동은 학생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

1학년은 아영장에서의 자연탐험 활동, 농장 체험, 영어마을 체험, 개항장 투어, 은율탈춤 등의 체험활동을 통해 다양한 직업군에 대해 이해하였다. 2학년은 숲 체험, 스포츠시설 체험, 인천대공원 투어, 공연 관람 등을 통해 지역시설에 대해 이해하였다. 3학년은 대학교 방문, 전통시장 탐방, 개항장 방문, 문화 예술 공연 관람 등을 통해 직업군에 따른 학과를 탐색할 수 있었다.

교내에서는 마을 주민의 도움을 받아 함께 텃밭을 가꾸고, 텃밭에서 자란 배추를 수확하여 학생들과 학부모가 함께 김장을 하였다. 담근 김치는 마을 주변 독거노인을 비롯한 도움이 필요한 곳에 나누어 주기도 하였다.



김장 봉사활동



수봉도서관 프로젝트



배다리 헌책방 거리



개항장 투어

학교 주변으로 발걸음을 옮기면 가까운 곳에 수봉도서관과 문화회관이 위치해 있다. '도서관이 곧 학교다'라는 주제로 다양한 직업군에 대한 자료를 직접 탐색하고 연구하는 프로젝트를 통해 직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종합적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또한 국어 교과에서 직업인 면담 및 인천의 명소를 찾아 발표하는 수행평가와 연계하여 실시하여 마을과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었다.

마을 자원을 활용한 동아리 활동으로 박물관, 배다리 헌책방, 월미도 등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을 탐방하며 교과서 속의 배움을 꼬집어냈다.

마을 안에서의 교육활동은 마을을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해 이해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직업군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탐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다. 또한 자신의 뿌리를 찾고 부모님과 함께 경험한 교육과정에 대해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 마을을 사랑하는 힘이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게 되고 이러한 배움이 직업인으로 성장을 한 후에 다시 마을로 돌아오게 된다고 믿는다. 학생이 다시 마을의 자원이 되어 순환되는 것이 마을 교육의 목표이다.

나. 읽견쓰와 함께 자라는 학생

나무가 잘 자라려면 좋은 환경이 필요하다. 건강한 흙과 물의 공급이 이루어지는 학교 환경이 조성되어야 학생 또한 나뭇가지처럼 결대로 잘 자라날 수 있을 것이다. 읽견쓰가 녹여진 수업은 나무 생장에 가장 기본이 되는 토양이라고 생각한다. 읽고 쓰고 생각하는 경험이 창의력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양분이 될 것이다.

인천남중의 학교 안에는 학교숲이 조성되어 있다. 많은 선생님들이 학교숲 안에서 야외수업을 진행한다. 교과서에 나오는 작품이 학교숲과 연결되는 수업, 숲에서 시를 쓰고 시집을 출간하고, 계절마다 바뀌는 아름다운 교정의 모습을 그리는 미술수업, 네잎클로버를 찾아 서로에게 힘이 되는 에너지를 주는 활동 등 학교숲과 연계하여 다양한 교과수업이 이루어진다. 이는 학생들의 마음을 건강하게 만들고 인문적, 예술적 소양을 키우는 기초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독서 후에 '남풍록'에 감상문을 작성하고 담당교사의 피드백을 통해 읽고 쓰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생각하고 표현하는 힘을 기른다.



과학의 달 행사



남풍록



스포츠리그 경기



은율 탈춤 전수

학생들은 분자모형 키링 만들기, 인공지능 주제 토론, 디지털 새싹 캠프, 코딩 스쿨, 태양광 에너지를 이용한 로봇 만들기, 대체에너지 탐구하기, 친환경 물병만들기, 업사이클링 방수포 만들기 등 다양한 과학 활동을 체험하였다. 이는 미래사회를 준비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고 경험을 통해 증명해내고 창의적인 방법을 표출해내는 활동이다.

예술분야에서도 학생들의 성장은 계속된다. 인천남중의 밴드부 '인남밴드'는 2023년 청소년밴드 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 제21회 미추홀 청소년 노래댄스대회에서 미추홀구청장상을 수상하였다. 2024년에는 자유학년제 수업으로 은율탈춤 실시한 후 2025년 '은율탈춤 전수학교'로 지정되어 운영 중이다. 이렇게 갈고 닦은 꿈과 끼는 등곶길 음악회, 교사와 함께하는 앙상블 공연, 합창 등에서 마음껏 발산되고 있다. 학교 밖에서는 미추홀구 온마을 축제 찬조 공연, 지역사회 공연 봉사활동을 통해 마을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또한 인천남중의 학생들은 연간 계획에 따라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스포츠 활동을 통해 배려와 존중을 자연스럽게 체득한다. 학생들이 직접 종목과 규칙을 정하고 경기를 중계하는 아나운서와 경기 심판을 정해 자발적으로 운영한다. 누구 하나 심판 판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경기에 진 반도 비난하지 않는다. 학생들이 주인공이 되는 문화가 정착이 되어 공동체 의식이 발현되고 있다.

다. 교육공동체의 힘이 자라는 활동

학생들의 의견이 다양한 분야에 걸쳐 반영되는 학교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다. 학급 회의에서 나온 의견들이 학생회장단의 공약이 되고 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교사와 소통한다. 공약의 이행은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학생대의원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여 우선순위를 학생들 스스로 정한다. 전임 회장의 이행 중인 공약도 새 학년도에 유지할 사업과 해지할 사업으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있다. 유지하는 사업으로 대표적인 것이 시험 기간 중 스터디 그룹의 자율적 운영이다. 공약이 이행되는 과정은 학생 대표들이 기획위원회 및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발표하면서 선생님들과 공유하고 소통한다. 이러한 공식적 회의에 참여하여 의견을 발표하고 수렴하는 과정이 아직은 걸음마 단계이지만 학생도 교육동체의 한 주제로서 공식적 회의체에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생활이 되는 날 결대로자람학교를 운영해 온 노력이 빛을 발하게 된다.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한 활동으로 우산대여소 운영, 시험 기간 중 스터디 교실 운영, E-sports 대회 개최, 인남 편의점, 학교 축제 부스 운영 및 무대 기획 등이 있다. 또한 바른말, 고운말 사용을 장려하며 초코파이를 나누는 가고오정 캠페인,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 학교의 위험 요소들을 찾아내어 지키는 안전지킴이 활동 등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학교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실행해 내는 추진력을 갖게 되고, 졸업 후에도 학교에 대한 애정을 쏟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이외에도 자율동아리 인나미즈(INAMIS)의 폭력예방, 한글날 기념행사 등 학생들에게 교육적 의미를 지니는 주제로 캠페인 활동을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2023학년도 전국 또래상담 사례 공모전에서 교육부장관상 및 다양한 수상 경력을 가진 또래상담반의 활동이 두드러진다. 전교생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더 나아가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등굣길 음악회



남풍제 공연 마당



강원도 체험 활동



안전지킴이 수련 활동

이러한 학생의 주도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교사는 전문적학습공동체 모임을 통해 성장하고 있다. 학년 중심의 전문적학습공동체 활동은 학생의 다양한 개성을 존중하고 바른 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운영되었다. 여기에서 교사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학교 내에 7개의 주요 현안들에 대한 주제를 중심으로 연구하면서 학교와 학생에 대해 연구하였다. 올해는 학생들의 사회정서학습에 관한 주제를 잡고 공동수업디자인 등 수업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모든 교사가 함께 디자인한 내용으로 자신의 수업을 공개하고 있다. 수업 공개 후 참관한 선생님들과 수업에 대해 나눔을 가지면서 수업에 대한 힘을 키우고, 수업을 공개하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함께 성장하고 있다.

학부모들의 관심과 주도적인 참여는 학교와 함께 할 때 시너지를 내고 한 번 더 성장하게 된다. 학교만족도를 조사하면 학부모님들의 참여도가 생각보다 낮게 나타난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서는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소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학부모 역시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교육활동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학교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매월 학부모 교실을 운영하여 자녀에 대한 이야기, 자녀와 함께 하는 배드민턴 교실, 진로에 대한 연수 등 다양한 수업을 계획하고 운영하였다. 가정통신문으로 실시한 교육활동 내용을 안내하기도 하였다. 학부모회는 등교맞이 행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학생들에게 긍정의 에너지를 심어주었다. 또한 스포츠 한마당, 시험 기간 응원 캠페인, 축제 부스 운영 및 공연 마당 참여 등 학교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교사와 협력하여 학생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활동들을 기획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학부모회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다. 이러한 노력은 학생, 교사, 학부모의 교육공동체가 함께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학교 문화가 유지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화 되어야 할 것이다.

3 모든 날, 모든 순간, 남풍이 함께 분다.



인천남중학교의 교육 비전은 ‘내가 즐거운 학교, 우리가 행복한 학교’이다. 배움이 삶이 되고, 삶이 곧 배움이 되는 공존을 꿈꾼다. 한정된 학교 교육 자원을 마을에서 제공받으며 교육의 장으로 확장하면 교육 내용이 풍부해지고 교육공동체가 성장한다. 나아가 나의 성장이 곧 마을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고자 한다.

이 과정 속에는 인성과 개성이 전제된다. 이를 반영한 인천남중의 교육과정 키워드가 바로 ‘남풍결정’이다. ‘남풍’은 긍정적이고 따뜻한 변화의 바람, ‘결’은 학생들의 개성을 발현하고 타인과 협력하여 자아를 성숙시키는 과정을 나타낸다. ‘정’은 정서적 가치가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학생들의 균형잡힌 성장을 강조한다. 따라서 ‘남풍결정’의 의미는 학생들이 따뜻한 인성을 가지고 학생들의 개성을 존중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정서학습을 추구하는데 있다.

교육공동체와 함께 만드는 교육은 학교를 넘어서 평범한 모든 일상, 모든 순간에 존재하게 될 것이다. 남풍은 언제나 분다.

6

**3주체의 주도성과 성장을 이끌어내는 결대로자람고등학교
일꾼쓰 기반 미래형교육과정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은 무엇인가?**

- 강화여자고등학교
- 대인고등학교

교육공동체의 주도성과 협력으로 만들어가는 읽건쓰 기반 미래형교육과정



학 교 명	강화여자고등학교	학 급 수(학 생 수)	22학급(478명)
소 재 지	인천광역시 강화군	결대로자람학교 지정 연도	2022. 3. 1.
세션 주제	3주체의 주도성과 성장을 이끌어내는 결대로자람고등학교 읽건쓰 기반 미래형교육과정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은 무엇인가?		

1 주도성과 협력을 통한 읽건쓰 기반 미래형교육과정으로의 도약



강화여고는 2018년 행복배움학교 1기 지정 이후, 민주적인 교육공동체 문화를 형성하고 지역자원을 활용한 창의적 교육과정을 실현해오며, 미래핵심역량을 갖춘 인재 육성이라는 목표를 지속적으로 추구해왔다. 특히 지역의 역사·문화, 생태, 평화 등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빛깔 있는 창의적 주제중심 교육과정을 8년째 발전시켜 왔으며, 학생들의 창의성과 주도성을 끌어내기 위해 교사와 학생이 함께 협력하며 교육과정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제 그동안의 교육적 성과를 성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고자 한다.

학교 비전인 '서로 존중하며 소통하는 민주적 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 교직원·학생·학부모는 3주체 협의회를 통해 교육과정을 함께 평가하고 있다. 협의회를 통해 도출된 의견은 기획위원 워크숍의 주요 논의 주제로 반영되며, 심화 토론을 거쳐 다음 해 교육과정의 개선 사항이 마련된다. 이후 2월 전체 교직원 워크숍을 통해 다시 한 번 논의되어, 다음 연도 교육과정에 3주체의 의견이 실제로 반영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읽건쓰 기반 미래형교육과정은 교육 주체 간 다양하고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요구한다. 교직원, 학생, 학부모의 주도적인 참여는 이러한 협력의 과정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고, 학교를 삶과 연결하는 읽건쓰 기반 미래형교육과정의 방향성을 구체화하는 핵심 동력이 된다.

이에 결대로자람학교 2기로서 운영된 지난 4년 간, 우리 학교가 각 교육 주체별로 주도성을 실현하고 협력적 교육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를 되돌아보고자 한다.

2 학생주도성, 학교 문화를 이끈다



우리 학교에는 학생들이 교육과정 속에 들어가 기획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다양한 기획단이 존재한다. 창의적 주제중심 교육과정 학생기획단, 자율교육과정 학술제 서포터즈, 교육과정 서포터즈, 결대로자람 기획단, 학생회, 기숙사 자치위원회 등은 교육과정 운영의 핵심 동력이다. 이들 기획단은 학생들의 자율성과 주도성, 협업 능력을 극대화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실제로 학생기획단의 운영은 '과연 학생들의 자율성만으로 학교 행사가 가능할까?'라는 의문이 기우에 불과하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해 주고 있다. 연말 자율교육과정과 기숙사 자치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기획력과 실행력이 잘 드러나는 사례이며, '갑비랑 축제'는 학생주도성이 가장 뚜렷한 대표 행사다. 학생회와 학년회는 자치 문화를 일상화하며, 리더십 캠프를 통해 자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한다. 행사 당일에도 학생들이 직접 사회를 맡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높은 창의성과 주도성을 발휘한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학생들은 단순한 참여를 넘어, 학교 문화를 함께 만들어가는 능동적 주체로 성장한다.

강화여고는 학생들의 창의성과 주도성을 함양하기 위해 2018년부터 창의적 주제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해왔다. 2022학년도에는 학년별로 1학년은 '강화 역사·문화', 2학년은 '평화', 3학년은 '생태·환경'을 주제로 교육과정을 구성하였으며, 2023년부터는 SDGs(지속가능발전목표)를 기반으로 한 주제통합 교육과정으로 확장·발전시켰다. 학생들은 기후 위기, 생태, 환경, 평화 등 SDGs의 17개 주제를 자신의 진로나 삶과 연계하여 심화 탐구함으로써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키워가고 있다. 이러한 탐구는 단순한 지식 습득에 그치지 않고, 학생 스스로 프로젝트를 설계하고 실천으로 이어가는 과정을 통해 주도성과 실행력을 실제로 발휘하고 기를 수 있도록 한다. 학생들은 동일한 주제에 관심 있는 친구들과 팀을 이루어 1년간 협업하며 공동체 속에서 성장의 기회를 갖는다.

SDGs 기반 통합교육과정은 기존의 단회성 탐구를 넘어, 학년별 주제를 위계화하고 나선형 구조로 심화 학습이 가능하도록 체계화되었다. 특히 강화여고에서 실행해 온 탐구 방식은 읽건쓰 기반 미래형교육과정의 방향성과 일치한다. 가령 학생들은 강화 지역의 교통 인프라 부족, 인구 문제, 경제 구조 등 실제로 겪는 지역 현안을 중심으로 문제를 인식한다. 또한 인터뷰와 실태조사를 실시한 뒤 리포트, 에세이, 발표 자료, 카드 뉴스 등 다양한 형태의 산출물을 제작하며 대안을 제시하며 탐구를 수행한다. 이러한 활동은 학생들에게 자신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된 현실을 주도적으로 탐구하는 소중한 경험을 제공하며, 삶과 배움의 일치를 실현하는 교육적 의미를 지닌다.



학술제 기획단



반별 SDGs 주제 부스



SDGs 주제중심 조별탐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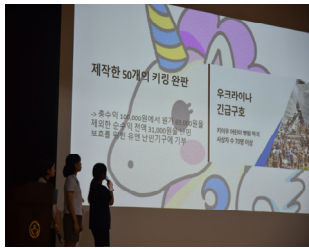


학술제 주제중심 융합탐구 마당

SDGs 활동 보고서



SDGs 활동보고서



삶과 연계한 프로젝트



2023 학생회 선거



2022 등갓길 학생회날 행사

3 교사 주도성은 미래형교육과정을 이루기 위한 초석이다



강화여고는 미래형교육과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전문적학습공동체의 활성화, 배움 중심 수업의 혁신, 교육과정 편성의 다양화 등 다방면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축적해오고 있다. 이러한 성과는 교사들의 협업과 고민, 성찰을 바탕으로 구축된 것으로, 본교는 이를 통해 자체적인 미래형교육과정 운영의 틀을 만들어가고 있다. 특히 미래형 공간 혁신, 학습자 주도형 교육과정, 그리고 학교 특색이 반영된 창의적 교육과정 모델을 탐구하며 실천해 왔으며, 그 중심에서 전문적학습공동체가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통해 융합수업 연구와 수업 나눔이 활성화되었고, 수업과 평가의 연계 강화라는 교육 혁신을 이루어가고 있다. 이는 교과 시간과 학교 자율교육과정 안에서 구체화되며,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철학과 방향성을 학교 현장에 안착시키는 기반이 되고 있다.

2022학년도에는 학년별 전학공과 함께 비담임 교사가 참여하는 주제형 전학공을 운영하였다. 진로 교사의 제안으로 학기말 자율교육과정이 처음 도입되었고, 주제중심 교육과정과 수업나눔축제에 더해 학술제를 신설하여 학생들이 진로와 관련된 심화 탐구 결과를 발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담임 교사 간의 활발한 토의와 협업을 통해 이루어졌다. 1학년은 ‘강화 역사·문화’를 주제로 학급별로 세부 주제를 선정해 탐구하고, 우수한 조가 무대 발표를 진행했다. 2학년은 ‘평화’를 주제로 운동장과 교실에서 부스를 운영하고, 강당에서는 퍼포먼스와 골든벨을 개최하여 학생 참여형 프로그램을 구현했다. 3학년은 ‘생태’를 주제로 반별 탐구 결과물을 공유했다. 이와 같은 프로그램은 교사들의 집단지성과 협력, 그리고 학생 기획단의 주도적 참여가 결합되어 성공적으로 운영되었다.

2023학년도 강화여고는 자율교육과정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심화-융합수업의 날’을 운영하였다. 이 과정에서 전문적학습공동체는 융합수업 연구의 장으로 기능하며, 담임과 비담임 교사를 통합한 전학공 내에서 2~3인 팀을 구성해 SDGs 7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독서와 융합수업을 공동 기획·실행하였다. 초기에는 교과 간 융합에 어려움을 느끼는 교사도 있었지만, 학생을 위한 공동의 취지에 공감하며 긍정적 인식이 형성되었고, 주제별 독서 기반 융합수업 프로젝트가 완성되었다. 학생들은 팀별 산출물을 제작하며 창의적 융합학습의 성과를 보였다. 또한 1학년 특색사업으로 ‘독서 올림픽’이 시행되어 SDGs 관련 도서를

학급별로 순환해 읽고, 자율교육과정 기간 중 독서 골든벨을 운영하여 읽기-탐구-토론-표현으로 이어지는 학습 확장을 실현하였다.

2024학년도에는 융합수업이 한층 더 발전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담임과 비담임 교사를 통합하여 학년별 전학공을 구성한 방식은 그대로 유지하되, 보건, 사서, 특수, 영양 등 비교과 교사들도 전학공에 참여하여 함께 융합수업을 연구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차별성을 보였다. 또한 팀 구성 시 문과와 이과 교과 교사들이 한 팀을 이루도록 조정하여, 더욱 풍부하고 다양한 문이과 통합 융합수업 프로젝트가 운영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자율교육과정의 한 축을 구성하게 되었고, 학생들의 산출물은 내용과 완성도 면에서 한층 더 빛나는 성과를 보여주었다.

4 교과의 벽을 넘어, 다양성으로 하나 되다.

2024학년도 1학년부는 전문적학습공동체(전학공)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1학기 자율교육과정 기간 중 '다양성'을 주제로 교과융합주제탐구 프로젝트를 실시하였다. 전학공 논의를 통해 세계시민으로서 다양성의 가치를 내면화하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에 따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측면에서 다양성을 분석하고 이를 지키기 위한 사회적 활동을 기획·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프로젝트를 설계하였다. 학생들은 교과 교사들이 제시한 다양성 관련 소주제를 참고해 모둠별로 탐구 주제를 정하고, '위대한 쇼맨' 영화를 디딤 영상으로 시청한 뒤 탐구 활동을 진행하였다. 탐구 결과물은 패들렛에 업로드해 학급 및 학년 단위로 공유되었으며, 활동 과정에서 드러난 학생들의 역량과 산출물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반영되었다. 3일 간의 프로젝트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자료 활용, 사회문제 분석, 협업 및 의사소통 능력을 키우며 의미 있는 성장을 이루었다.



프로젝트 산출물(패들렛)



프로젝트 산출물 학급 공유



프로젝트 산출물 학년 공유

5 배관공에서 함께 성장하기



배관공이란 ‘배움 중심 수업에 관심 있는 공동체’를 의미하며, 학생 주도의 배움이 있는 수업을 위해 강화여자고등학교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교내형 전문적학습공동체이다. 2021년부터 결성되어 2024년에는 전체 교사 41명 중 14명이 회원이며, 월 2회 2시간씩 방과후 모여 수업을 주제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올·결·세 교육사업 운영에 공모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였다. 모두 14차례에 걸친 전학공 활동 시간을 통해 ‘나의 수업 이야기’를 중심으로 한 수업 사례 및 수업에 대한 고민을 회원들과 공유하는 교내·외 수업 공개 및 수업 토크, 에듀테크 활용 연수, 사제동행 수업 컨퍼런스 등을 진행하였다. 배관공 활동을 통해 배관공 소속 교사들은 좋은 수업을 위해 고민하고 실천하고 때로는 좌절하는 교사가 자신분이 아님을 느끼면서 격려와 지지 속에 강한 연대 의식을 느낄 수 있었다. 또한 다른 선생님들과 수업을 주제로 발표하고 공감하며, 그동안 쌓아두었던 수업과 평가의 노하우 등을 공유하는 시간들을 통해 함께 성장하는 기쁨의 시간을 가졌다.

지금까지의 배관공 활동을 통해 우리 학교는 새로운 숙제를 가지게 되었다. 수업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수업과 평가 관련 노하우를 함께 나누었지만 정례화된 수업 공개를 통한 수업 성장의 단계까지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비록 지금은 소수의 교사들에 의해 수업 공개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앞으로도 지속될 배관공 활동과 이에 대한 반성, 그리고 토론 속에서 수업 공개의 필요성과 참여 교사가 더욱 확산되고, 나아가 정례화된 수업 공개가 전체 교사들에게까지 파급되어 우리 학교 문화 속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또한 올해는 IB 기반 수업 평가 혁신에 관해 함께 연구할 예정이다.



나의 수업 이야기



수업 공개



사제동행 수업 컨퍼런스

6 학교와 마을이 연결되는 교육, 학부모가 이끄는 변화



학부모 역시 교육과정 운영의 주체가 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2017년부터 9년째 운영되고 있는 사회적 협동조합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교직원, 학생, 학부모가 함께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운영함으로써, 미래형교육과정 실현에 기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학부모는 교사와 협력하여 지역사회 연계 교육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고, 학생들이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미래형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예를 들어 사회적 협동조합에서는 학부모가 이사회에 참여하고 총회 및 건강매점을 함께 운영한다. 또한 학생들이 직접 기른 텃밭 작물로 학부모와 함께 김장을 담가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기부하거나, 학생들이 개발한 창업 아이템을 실제로 판매해보는 창업 페스티벌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2024년에는 학부모회가 지역 연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글로벌세프고등학교와 협력하여 요리 동아리 학부모회와 함께 푸드트럭 행사를 성공적으로 기획·운영하였다. 이 과정은 학교장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련 부서 및 동아리 지도교사의 협조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향후 지역 연계 교육과정 개발에 대한 학교 간 논의와 협력으로 확장되었다. 다만 사회적 협동조합의 매점 운영은 코로나19 이후 지속적인 적자를 겪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교육청의 적극적인 행·재정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한편 학부모들은 지역 주민들과 함께 강화여고 기숙사 이전 추진 위원회에 참여하여, 학생들의 안전한 생활 공간과 교육 여건 확보를 위한 목소리도 내고 있다.

또한 2023년부터 교사·학생·학부모가 함께 교육과정을 평가하고 교육 현안을 논의하는 3주체 협의회(교육공동체 협의회)를 운영해 오고 있다. 이 과정을 통해 학부모는 교육과정 운영의 협조적 주체로서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학부모의 주도적인 참여와 협력은 교육과정을 한층 풍요롭게 만드는 촉진제로 작용하고 있으며, 교장 및 행정실과의 협력 또한 미래형교육과정 개발의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다.



사회적협동조합 정기총회(3주체)



텃밭 가꾸기와 순무 김장김치 지역사회 기부



지역사회 연계 글로벌 세프고 푸드카 지원



학부모와 함께하는 축제

7 미래형교육과정을 위한 도약을 위해, 다함께



결대로자람학교 운영 4년을 마무리하며, 그간의 교육 활동을 성찰하는 3주체 대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대토론회에서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은 물론 행정실 구성원까지 한자리에 모여,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개선 방안을 함께 논의하였다. 특히 지역 연계 교육과정과 읽건쓰 기반 미래형교육과정의 발전 방향을 중심으로, 강화여고만의 특색 있는 교육과정이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이 이루어졌다. 행정실에서는 결대로자람학교의 지속적 운영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안하였으며, 학부모들도 학교 발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며 의미 있는 기여를 하였다. 이러한 3주체의 협력과 주도적인 참여는 앞으로 다가올 결대로자람학교 3기 운영의 든든한 발판이 될 것이며, 학교가 한층 더 도약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5 3주체 대토론회



의견 공유



교사토론모듬



학생성찰모듬



학생, 학부모, 교사가 함께하는 읽건쓰 중심의 교육과정 실천 사례



학 교 명	대인고등학교	학급 수(학생 수)	32학급(900명)
소 재 지	인천광역시 서구	결대로자람학교 지정 연도	2022. 3. 1.
세션 주제	3주체의 주도성과 성장을 이끌어내는 결대로자람고등학교 읽건쓰 기반 미래형교육과정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은 무엇인가?		

1 큰 꿈을 찾아가는 학교, 더불어 행복한 학교



인천 서구의 단 한 곳, 결대로자람학교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유일한 출발점인 대인고등학교는 지난 8년 간 ‘결’을 따라 흐르는 교육의 힘을 믿으며 묵묵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그 여정을 걸어왔다. 사립고등학교만의 장점과 단점이 존재하지만, 그 속에서도 학생 한 명 한 명의 고유한 색깔과 가능성을 존중하며, 삶과 얹이 하나되는 교육을 고민하고 실천해 왔다. 그 고민과 실천이 가능했던 것은 바로 우리 학교가 결대로자람학교였기 때문이다. 지난 4년을 발판 삼아, 또 다른 4년을 준비하는 새로운 해라는 점에서 올해는 더욱 특별하다.

특히 우리 학교는 교실을 넘어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가 함께하는 프로젝트를 만들고자 노력해 왔다. 학생의 주도성과 자율성을 담은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부모와 교사가 학생의 곁에서 함께 성장해 왔다. 이러한 세 주체의 활동과 마음이 모이는 지점이, 바로 읽건쓰 활동이다. 우리는 도서관을 하나의 거점으로 생각하고, 세 주체가 하나되는 모습을 만들어 왔다고 자부한다.

2 읽건쓰 중심으로, 삶과 삶이 연결된 교육



대인고등학교는 지난 4년 간 결대로자람학교로서 읽건쓰 활동을 중심에 둔 교육 실천을 이어왔다. 우리는 배움이 교실 안에 머물지 않고, 학생의 삶과 연결될 수 있도록 고민해 왔고, 그 해답 중 하나가 바로 도서관 중심의 읽건쓰 교육과정 운영이었다.

대인도서관은 단순히 도서관이라는 공간을 넘어, 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함께 모여 읽고 쓰며 성장하는

교육공동체의 중심지로 기능했다. 특히 4년 동안 계속 이어서 진행해 오고 있는 학생 학부모 독서 글쓰기 모임은 대인고등학교만의 소중한 전통이자 자산으로 자리 잡았다. 이 모임은 구성원 모두가 매주 한 권의 책을 읽고 생각을 나누는 소통의 장이 되었고, 관련된 내용으로 에세이를 쓰며 돌아보는 성찰의 장이 되기도 했다. 학생의 경우에는 2학기 꿈두레 공동교육과정 문예창작 입문 수업에 참여하여 심화되었으며, 학부모의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독서 모임을 이어가기도 했다. 특히 학부모와 학생이 함께 2년 연속으로 출간했으며, 학부모들이 독서 모임의 경험을 쌓아 학생 독서 토론 지도를 직접 하기도 했다.

또한 김호연, 장강명, 심윤경 등 다양한 작가를 초청하여 교사, 학생, 학부모가 같이 참여하였으며, 단순히 작가 초청 활동으로 끝나지 않도록 지속적인 독서 활동과 체험 활동으로 발전시켜왔다. 도서관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학교 인근의 지역 책방을 탐방하였으며, 아라뱃길 걷기 봉사를 여러 해 이어오는 등 다양한 현장으로 우리의 공간을 확대해가고 있다.



학생 독서 글쓰기 모임(2022~현재)



학부모 독서 글쓰기 모임(2022~현재)



교사, 학생, 학부모 읽건쓰 출판 기념회(2023~현재)

3 수평적 소통과 협력의 학교문화 조성



우리 학교는 교육공동체 모두가 주체적으로 참여하며 상호 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한 학교문화를 조성하고자 다양한 실천을 이어오고 있다. 먼저 학교 홈페이지, 리로스쿨, 학년 밴드 등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을 병행 운영함으로써 학생, 교사, 학부모 간의 실시간 소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교육 활동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열린 소통의 장을 마련하였다.

학생 자치의 실현의 경우 학생회 임원들의 열정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학생 리더십 캠프를 운영하고 학생회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동일했으나 자치활동을 꾸려가는 내용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지난 4년 간 이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 학생회 임원 선거 과정부터 임원이 성장하는 과정임을 알고 노력해 왔다. 특히 학생들을 동일한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각종 회의에서 그 목소리를 중요하게 듣기 위해 노력해 가는 구조가 만들어지면서 학생회가 학교 문화를 능동적으로 이끌어 나가게 되었다.

지난 4년 간 학부모회도 활발하게 성장하였는데, 무엇보다도 정기적인 학부모-교사 간담회의 역할이 컸다. 또한 학생-학부모-교사가 함께하는 학교평가위원회 회의를 활성화하며 학부모 역시 교육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무엇보다 학부모가 스스로 움직이는 활동을 만들게 되었다. 예를 들어

졸업생을 위한 포토존을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만들고 워크숍을 기획하여 함께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내 아이만을 위한 활동이 아니라 학부모가 스스로 성장하고 모든 아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활동을 펼치는 것이 바로 진정한 교육공동체로서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든다.

마지막으로 교직원 간의 정기적인 대토론회를 통해 상호 존중과 이해를 기반으로 한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이 토론회는 단순한 회의를 넘어, 교육 철학과 실천 방안을 공유하고 의견을 조율하는 협력의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다. 초기에는 토론을 해도 실현이 되지 않는다는 불신이 존재했으나 관리자의 즉각적인 피드백을 받으면서 차츰 나아졌다. 서로가 비록 의견이 다르더라도 의견을 공개적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의 의의도 찾아가고 있다. 예전에는 관리자에게 직접 호소했다면 이제는 정기적인 토론 자리에서 학교의 문제점과 대안을 이야기하게 되었다. 이러한 다양한 실천들은 모두가 주체가 되는 ‘열린 학교’, ‘함께 만드는 교육’을 구현하는 데 밑거름이 되고 있다.



교직원 모듬 토론(2024)



신학년을 위한 워크숍(2025)



학생리더십캠프(2024)

4 학생주도성 기반 미래형교육과정 설계 및 실천



대인고등학교는 결대로자람학교의 비전 아래, 학생이 배움의 주체로 성장하는 교육을 실현하고자 교육과정을 꾸준히 재구성하고 실천해 왔다. 그 중심에는 학생주도성과 자기결정권을 핵심 가치로 삼은 미래형 교육 실천이 있다. 특히 ‘주제탐구아카데미’, ‘교과융합 프로젝트 수업’, ‘교과목 선택 박람회’는 대인고만의 색깔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실천 사례들이다.

주제탐구아카데미는 대인고가 학생의 탐구력과 사고력을 기르기 위해 개발한 학생 주도형 탐구 수업이다. 학생은 관심 분야에서 스스로 탐구 주제를 설정하고 자료를 수집·분석하며, 최종적으로 연구 보고서와 발표 자료를 완성한다. 지도교사는 과정 중심의 피드백을 제공하되, 학생이 주도적으로 학습 과정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수업은 단지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학생이 스스로 질문을 만들고, 답을 찾아가는 학문적 성장의 여정이 된다. 이를 통해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힘을 기르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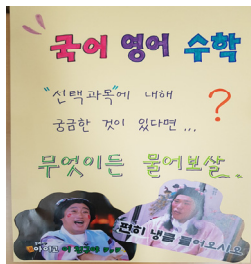
교과융합 프로젝트 수업은 여러 교과가 공동 주제를 중심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운영되는 수업이다. 학생은 단일 교과가 아닌 현실 문제를 중심으로 여러 관점에서 사고하고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예를 들어, ‘기후위기와 인간의 삶’이라는 프로젝트 주제는 국어, 과학, 사회, 예술 교과가 함께 협업해 운영된다. 과학에서는 기후 변화 데이터를 분석하고, 국어에서는 관련 다큐멘터리를 시청하고 비평문을 작성하며, 사회에서는 기후 정책을 조사하고 토론을 진행한다. 예술 교과에서는 이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포스터나 창작물을 발표한다. 이와 같은 수업은 학생들이 지식을 넘어서 실제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를 하게 하며, 융합적 사고력을 자연스럽게 기른다. 이러한 프로젝트 수업은 대부분 팀 기반으로 진행되며, 학생들이 스스로 역할을 나누고 협업을 통해 결과물을 도출하는 과정을 경험하면서 민주적 소통과 공동의 책임감을 내면화하게 된다.

학생주도성은 단지 수업 시간에만 발현되는 것이 아니다. 대인고는 매년 ‘교과목 선택 박람회’를 운영하여, 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배움의 경로를 직접 설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행사는 단순한 과목 설명회를 넘어서, 선배 학생이 후배 학생들을 위해 직접 교과 부스를 운영하고 홍보자료를 제작하며 과목 정보를 안내하는 상호 소통의 장이다. 학생들은 해당 과목의 수업 방식, 활동 예시, 수행 과제, 평가 방법 등을 듣고 자신에게 맞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배움에 대한 자기주도적 의사결정 경험이 축적되고, 교사 역시 학생의 진로와 관심을 더 정교하게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과목 선택을 위한 교과서 전시회 및 부스 운영(2022)



과목설명회 안내 자료(2023)



주제탐구아카데미(2024)

5 결대로 자라온 시간, 함께 자라갈 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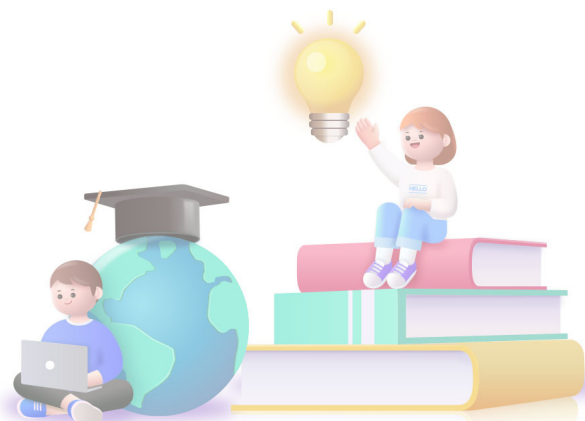
지난 3년 간, 그리고 올해까지 대인고등학교는 결대로자람학교로서 학생이 자신의 삶을 주도할 수 있는 교육을 실천하고자 쉼 없이 걸어왔다. 학교 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읽건쓰 기반 교육, 세대가 함께 읽고 나누는 독서 모임, 학생이 기획하고 발표하는 주제탐구아카데미, 교과의 경계를 허문 융합형 프로젝트 수업, 그리고 교과목 선택권을 보장하는 선택 박람회까지 우리는 교과와 생활, 사고와 실천이 연결되는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의 주도성과 자기표현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 결과, 학생들은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닌 자신만의 질문을 갖고 세상을 탐색하는 주체적인 학습자로 성장해 가고 있다. 특히 학생들이 직접 쓴 글이 책이 되고, 탐구가 발표로 이어지는 경험은 ‘내가 배우는 이유’에 대한 확고한 인식을 심어주었다. 학교는 더 이상 가르치는 공간이 아니라, 배움이 발생하는

공동체로 기능하고 있다.

하지만 분명한 과제도 남아 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극복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성과일 수도 있는 ‘익숙함’이다. 결대로자람학교 활동을 오랜 시간 이어온 만큼 우리에게 결대로자람학교의 여러 활동은 마치 공기와도 같다. 하지만 그만큼 새로운 시도로 보이지 않을 수 있다. 두 번째로 구성원이 크게 바뀌지 않는다는 점도 우리가 극복해야 하는 부분이다. 사립고등학교의 특성상 새로운 인원이 많지 않다 보니 해 오던 활동에 변화를 주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우리는 스스로 계속 쇄신하고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을 찾아야 한다. 지금까지 했던 성과를 무시하고 바꾼다는 의미가 아니라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한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어온 읽건쓰 활동을 지역 책방과 아라뱃길 걷기 봉사로 확대했지만 지역의 다른 인프라를 활용하지는 못했다는 평가가 있다. 다양한 사회단체나 수도권매립지, 국립생물자원관, 서구청이나 서구보건소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의 성장과 발전을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교육활동이야말로 삶과 삶으로 연결되는 읽건쓰 활동의 기본이라고 생각한다. 교육은 학교만의 일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가 함께하는 일이라는 관점에서, 학부모와 졸업생, 예비학부모와 예비 학생들을 포함한 다양한 주체들이 교육의 동반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서구 지역의 유일한 결대로자람 고등학교라는 점에서 고등학생이 펼칠 수 있는 다양한 지역활동의 본보기가 되어 인근 지역의 고등학교와 함께 나누고자 한다. 서구 지역의 아동지도 봉사나 서구보건소와 함께 펼치는 활동, 공존천을 중심으로 하는 다양한 교육활동 등을 더 확대해가고자 한다. 이는 분명 의미 있는 시도가 될 것이며, 의미 있는 씨앗이 될 것이라고 자부한다.

대인고등학교는 앞으로도 학생 개개인의 ‘결’을 존중하며, 그들이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설정해 나갈 수 있도록 결대로자람학교의 정신을 이어갈 것이다. 변화의 중심에서, 교육의 본질을 지켜나가는 이 길 위에서, 우리는 더욱 단단해질 것이다.



7

함께 걷는 결대로자람고등학교 교육공동체, 어떻게 학생 성장을 이끌어내고 있는가?

- 인천대중예술고등학교
- 인천예일고등학교



함께 배우고 함께 자라다



학 교 명 | 인천대중예술고등학교

학급 수(학생 수) | 21학급(388명)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결대로자람학교 지정 연도 | 2022. 3. 1.

(최초 지정 연도) | 2018. 3. 1.

세션 주제 | 함께 걷는 결대로자람고등학교 교육공동체, 어떻게 학생 성장을 이끌어내고 있는가?

7 열정을 가지고 도전하며 함께 성장해 가는 공동체



우리 학교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국 최초 대중예술계열의 공립고등학교인 ‘인천대중예술고’로 탈바꿈한 지 6년 차가 되었다. 실용음악과, 연기예술과, 실용무용과, 영상제작과, 총 4개 학과로 편성되어 있으며 388명의 학생들이 열정적으로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학교이다.

‘꿈을 실현하는 행복한 학교’라는 교육 비전 아래 ‘창의적 재능과 바른 인성을 갖춘 예술인 육성’을 교육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각 학과 특성에 맞게 학교 시설을 리모델링하고, 교육과정도 새롭게 편성하였다. 실기 고사를 통해 우수한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으며 선발된 학생들은 의욕적으로 학교 교육과정에 참여하면서 역동적인 학교로 변화하고 있다.

우리 학교는 전년도에 실시한 교육공동체 성찰협의회와 성장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새 학기 시작 전인 2월에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우선 전문교과 학과부장과 보통교과 부장, 학생자치회를 담당하는 안전생활부장, 축제 및 동아리를 맡고 있는 예술체육부장, 학부모회를 담당하는 세계시민교육부장 등과의 협의회를 통해 교육활동에 필요한 요구 사항을 파악한다. 이 협의회는 예산을 필요한 분야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학생들이 자신만의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적의 교육환경을 마련하는 데 기여한다. 이를 통해 교사, 학생, 학부모로 구성된 교육공동체는 ‘열정’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도전’하며, ‘우리 함께’ 성장해 나가는 학교 문화를 실천해 나간다.

2 예술로 하나 된 우리 공동체의 성장 과정



우리 학교는 우수한 실기 강사의 확보와 다양한 공연 무대 준비를 해야 하는 특수성 때문에 학과별 교육 활동 지원만으로도 결대로자람학교 예산의 한계가 있다. 그래서 또 다른 주제의 운영 과제를 정해서 실천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공동체협의회를 통해 우리 학교는 학과별 교육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학과를 지원하고 보통교과의 수업을 지원하며 학생 자치 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정했다.

실용음악과는 ‘음악은 함께할 때 깊은 울림을 만들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성장해 나갔다. 누군가 연주에 또 다른 누군가의 리듬이 더해지고, 그 위에 함께하는 마음이 더해지면서 음악을 만들어갔다. 교육공동체라는 이름 아래 모인 학생, 교사, 학부모도 각자의 자리에서 다른 역할을 하더라도 함께 한 방향을 향해 나아간다면, 음악처럼 어우러질 수 있으리라 믿었다. 낯선 채로 다가가는 일은 조심스럽기도 했고, 시간이 걸리기도 했지만, 실용음악과의 공연 무대 중심 교육은 우리 공동체를 끈끈하게 연결해 주었다. 솔로 음악으로는 이뤄낼 수 없는 것을 합주 공연과 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함께’의 힘을 믿었고, 학부모들은 자녀의 주도적인 몰입과 성장을 지켜보면서 조금씩 학교 일원으로 스며들었다. 교사들은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파악하고 조정하면서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신뢰를 쌓아갔다.

연기예술과 또한 함께 공연을 준비하며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사이에 점차 공동체 의식이 형성되었다. 학부모들도 공연을 함께 준비하며 자녀의 몰입과 변화를 지켜보며 학과에 대한 신뢰를 쌓아갔다. 연기, 움직임, 음악, 기술이 하나 되는 종합예술인 연극·뮤지컬을 완성하기 위해 학생들은 평균 500시간 이상의 연습에 참여한다. 작품과 인물 이해를 위한 대본 분석, 발성·발음 훈련, 보컬과 움직임 훈련을 거치며, 협업의 중요성과 타인에 대한 존중하는 법을 배워 나갔다.



실용음악과
음악을 함께 만드는 과정



실용음악과
학생 주최 교내 버스킹



연기예술과 학생회
(학과 소통, 규칙 논의)



연기예술과
'1인극 공연'(수어와 연극 결합)

실용무용은 K-POP으로 대중들에게 친숙하지만, 공립학교 교육과정 내에서는 생소한 영역이다. 따라서 우리 학교 실용무용과의 방향을 정하고 나아갈 길을 찾아가는 것이 앞으로 공교육의 나침반이 되는 것이었기에 그 책임이 크게 느껴졌다. 심층 면접을 통한 실력 있고 인품 갖춘 우수한 강사진을 선발하였고 코칭 수업 및 평가, 교육과정 재구성을 진행하면서, 수업 발표 및 공연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과정 자체이자 산출물이 되도록 고민하였다. 전문가 특강, 수업 발표회 등을 통해 학생들의 전공 교과에 대한 전문성을 향상시켰고 학생들의 자발성을 이끌어가면서 효과적인 교육과정을 도출해 내고자 노력한

결과, 2022~2023년 교육과정이 안정적으로 정착되었다. 이제는 실용무용과의 모든 행사는 누가 말하지 않아도 각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춤에 대한 감각과 열정, 교육철학을 갖춘 교사들의 교육과정 운영은 열정적인 학생들을 행복하게 춤추게 하고, 학부모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은 학생들을 춤만이 아닌, 춤도 잘 추는 글로벌 인재로 성장시키고 있다.

영상제작과 학생들은 드론 영역과 영상 제작 영역으로 양분되어 전공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게다가 축구 선수로 입학한 학생 모두가 영상제작과에 편성되어 관심사가 각기 다른 세 그룹의 학생들이 만나게 된다. 각자의 성향과 능력, 학교생활에 대한 기대치가 크게 차이가 나서 1학년 시기에 서로 어울림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였다. 또한 영화 제작 동아리 활동을 통해 영화 기초 지식, 시나리오 쓰기, 카메라 운용, 음향 및 편집 작업을 익히며 영상을 제작하였고, 그 작품들을 상영하는 ‘비상영화제’ 축제를 열었다. 학부모와 친구를 초청하여 자신이 참여한 영상을 함께 감상하는 시간을 통해 가족의 응원을 받으며 함께 즐거움을 느끼는 시간을 경험하였다.



실용무용과
수업발표회(연중)



실용무용과
전문가 특강



영상제작과
교과보충 집중 프로그램 운영



영상제작과
‘비상영화제’

3 조금씩 가까워지며 함께 만들어간 공동체 성장 과정



교사와 학부모는 학생들의 성장과 변화를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학생의 걸을 살린 교육의 가치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학생 스스로 배우고 도전하는 과정 속에서 교사와 학부모는 때로는 조력자가 되고, 때로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었다. 교사들은 외부 전문가 특강 실시를 하는 등 학과별 전문적학습공동체 활동을 활발하게 하며 전문성 신장을 위해 노력하였다. 특히 연기예술과 교사들은 2주에 한 번씩 전학공 모임을 통해 공연 관련 사항을 공유하고 보완점을 논의하였다. 입시 교육과 조명·음향 기술 지도까지 함께 준비하며 예술의 변화를 배우고자 노력하였고, 이를 수업에 투입하였다.

학부모가 자발적으로 구성한 학부모밴드와 파파밴드는 다양한 무대에서 학생들과 함께 공연하였다. 특히 아버지들로 구성된 파파밴드는 2025년 1월 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단독 공연을 하기도 하였다. 공연을 준비하면서 자녀와 함께 한 무대에 서면서 학생들을 보다 깊게 이해하게 되었고, 이 과정은 모두에게 특별한 배움이 되었으며, 앞으로도 예술을 통해 서로를 이어주는 소중한 힘이 될 것이다.



실용음악과 교사
전문적학습공동체



연기예술과 교사
전문적학습공동체



학부모밴드 교육청 행사 공연



파파밴드 제1회 공연

4 쉽지 않았던 순간과 솔직한 고민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함께 해결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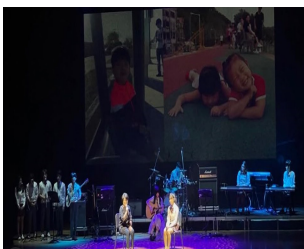
실용음악과 학생들이 주도하는 음악 공연과 프로젝트는 늘 새로웠으나, 한편으로는 어려운 과정의 연속이었다. 공연을 준비하며 겪는 갈등과 변수들, 그리고 음악의 한 역할을 맡아 맞닥뜨리는 책임감은 학생들에게 단순한 ‘연습’ 그 이상의 경험이었다. 교사들은 학생들의 성장을 위해서 무엇이 진짜 도움이 되는 것일지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고민했다. 서로 일처럼 수업에 대한 고민의 해답을 찾아가고, 학생들의 어려움을 함께 의논했다. 학부모에게는 교사들의 고민과 노력, 학생들의 진심과 잠재력을 터놓고 공유했다. 그 낯설고 어설퍼던 순간들이 모여 결국 우리 교육공동체가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만든 시간이었다. 어설펠 부분이 있을지라도 결과보다 과정을 바라보기로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기적으로 학생 한 명, 한 명과 이야기를 나누며 학생과 교사 간 꾸준한 믿음을 쌓아갔다. 학생들은 실용음악과 학생회를 중심으로 학과 행사, 공연 콘셉트 설정, 포스터 제작, 곡 선정과 편곡, 공연 당일 무대 운영까지 기획과 실행을 주도했고, 지역사회 연계 공연을 통해 음악을 넘어 사람들과 소통하는 법을 배워갔다. 학부모와의 소통도 개선의 중요한 열쇠였다. 공연 준비 과정과 학생들의 노력을 정기적으로 SNS와 홈페이지를 통해 공유하며 학부모들이 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했다. 이를 통해 학부모들은 공연을 단순한 결과로만 보지 않고, 자녀들의 성장 과정으로 받아들이며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었다. 우리는 이렇게 실용음악과 공연을 통한 우리만의 답을 찾아가고, 그 길 위에서 진짜 공동체가 되어갔다.

결석과 지각은 연기예술과 연습 전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공동체를 위한 규칙들의 필요가 생겨났다. 또한 한정된 배역으로 인한 갈등과 시기, 질투, 자녀 배역에 대한 부모의 아쉬움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했다. ‘주인공만 있는 연극은 없다’는 말처럼 협동과 배려 없이는 무대를 만들 수 없다는 사실을 학생들 스스로 마주해야 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학과 학생회를 통해 소통하였고, 규칙과 건의 사항을 함께 논의하였다. 평일 동아리 시간과 주말에는 사제동행으로 연극·뮤지컬을 관람하고, 감상과 분석을 통해 예술적 언어를 함께 나누며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공감의 장’과 ‘사회정서프로그램’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감정을 조절하는 방법을 배웠으며, 공연에서는 ‘1인 1역’ 원칙 아래 연기와 스태프를 함께 맡아 모두가 주인공이

되는 경험을 하였다. '1인극 만들기'를 통해 대본 작성부터 연기까지 모든 과정을 스스로 만들며 주인공이 되는 경험과 함께 타인의 역할도 존중하는 법을 배웠다.

실용무용과는 학생들의 열정을 단순히 춤만 잘 추는 댄서가 아닌 학생들을 춤으로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글로벌 인재로 춤도 잘 추는 역량 갖춘 예술인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교사로서의 고민이 더 해지기 시작하였다. 역량을 함양하여 글로벌적인 관점을 갖고 춤으로 소통하기 위해 해외 공연도 추진하게 되었다. 실용무용과 학생들은 중국과 우즈베크에서 공연을 통해 소통하였으며, 스스로 준비한 티칭 계획서를 바탕으로 현지 학생들을 가르치는 과정을 통해 국제적 감각을 키워나갔다. 그러나 부족한 예산, 크고 많은 다양한 행사를 소화하기에 적은 교사 인원, 교사의 영역을 넘어서는 엔터테인먼트 관련 업무 등 운영 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항상 함께하고 교사들을 지치게 했다. 교사는 교육과정 전문가라는 필수 역할을 하며, 최신 트렌드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춤을 보는 안목, 공연에 대한 기획력, 작품 전반에 대한 감각이 요구되는 예술 감독이자 제작자가 되어야 했다. 교사들은 전문적학습공동체 모임을 통해 함께 모여서 문제점을 논하고,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해결책을 마련해 나갔다. 또한 학생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열정적인 학부모의 긍정적인 학교 활동 참여를 이끌어내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며 교육과정 산출물의 질을 높여가고자 노력하였다.

영상제작과는 학과명 개편과 함께 학과의 정체성 정립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였다. 드론 영역과 영상 제작 영역 두 개의 영역이 서로 협업할 수 있도록 학과 협의체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시도를 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했고, 차년도 교육과정을 협력하여 완성하였다. 영상제작과 자율동아리 '시네아스타'는 학교에서 배운 전공을 바탕으로 지역 사회에 기여할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다. 동아리 지도교사는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기관을 찾게 되었고 노인복지회관과 협력하게 되었다. 2023년부터 미추홀구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는 '장수 사진'을 촬영하여 선물하는 재능 기부 활동을 하며 봉사의 기쁨을 느끼는 경험을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인천대중예술고등학교는 결대로자람학교로서 사진을 출력하고 액자는 만드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실용음악과
지역연계 정기 공연 '화석'



연기예술과
사제동행 공연 관람



실용무용과
텐진 공연



시네아스타 동아리
'장수 사진' 촬영

5 주인공이 된 우리 아이들, 무대 위에서 더 빛난다



우리 학교 학생들은 무대에 올라가면 반짝반짝 빛이 난다. 노래가 좋고, 연기가 좋고, 춤이 좋고, 영상 제작이 좋아서 우리 학교를 선택한 학생들답게 좋아하는 교육활동을 하니 매사 열정적이다. 이런 학생들을 만난 교사들도 변하였다. 한 번이라도 더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그 무대가 완벽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의미 있는 수업을 만들기 위해 고민한다. 또한 학부모들도 학생들의 공연이 있을 때면 학부모회 중심으로 도우미 역할을 자처한다. 학교 구성원 모두 학생들이 끝없이 도전하고 꿈을 이루기 위해 열정을 가지고 노력하는 모습에 덩달아 최선을 다하게 된다. 우리 결대로자람학교는 학생들이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지원할 것이다. 학생들의 전공에 대한 전문성을 신장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고, 무대에 설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대중예술 계열이라는 학교의 특수성을 반영한 우리 학교만의 결대로자람학교 운영의 특별함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학생 한 명 한 명이 학교에 오는 것이 행복하고, 그 행복한 학교 안에서 교육공동체 모두 생기 넘치게 생활하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결대로자람학교 운영의 목표일 것이다.



결대로 성장을 위해 함께 만들어 가는 예일 교육공동체



학 교 명 | 인천예일고등학교

학급 수(학생 수) | 24학급(601명)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계양구

결대로자람학교 지정 연도 | 2022. 3. 1.

(최초 지정 연도) | 2022. 3. 1.

세션 주제 | 함께 걷는 결대로자람고등학교 교육공동체, 어떻게 학생 성장을 이끌어내고 있는가?

7 함께하는 예일 교육공동체 여정의 시작



2022년 결대로자람학교의 시작과 더불어 인천예일고에 점차 변화가 시작되었다. 2020년과 2021년의 암울했던 코로나 시간을 보내며 학생들의 학교생활기록부 내용은 줄어들었으며, 그만큼 축 처져 있는 학생들의 어깨를 보면서 교사들은 머리를 맞대고 방법을 찾아야 했다. 모든 교사가 전문적학습공동체에 참여하여 학생들의 결대로 성장이라는 같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였으며, 학교 비전인 '기본 인성과 미래 역량을 갖춘 큰 사람(된 사람, 든 사람, 큰 사람)'을 기르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코로나로 위축되었던 학생과 학부모의 활동에도 바람을 불어 넣으며 결대로 성장을 시작하게 되었다.

학교 교육의 성공은 거창한 학교 시스템이나 관리자의 역량이 아니라 무엇보다 교육공동체가 한 곳을 바라보며 민주적 협의 과정을 거치는 학교문화가 중요하다. 따라서 본교는 이러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학생, 교사, 학부모가 모두 함께 같은 방향을 향해 각자의 자리에서 충실히 역할을 수행하며 지난 4년 간 결대로 성장을 이끌어 왔다.



결대로자람학교 대토론회



결대로자람 워크숍



학부모 동아리 활동



수업 평가 연구를 위한
IB 교사 모임

2 민주적 교육공동체 운영을 통한 결대로 성장



본교는 지난 4년 간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주제 중심 소그룹 토론회와 모든 교사가 참여하는 대토론회를 거치며 교사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학교 운영에 적극 반영하고, 전체 교사가 함께 고민하여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고 있다. 이렇듯 자유로운 분위기의 소그룹 토론에서 대토론회까지 맥을 이어가고 있으며, 토론에서 그치지 않고 그 결과에 따라 변화되는 학교문화를 함께 성장하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2022 개정 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에 발맞춰 탐구기반 프로젝트 수업 및 미래형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모든 교사가 참여하는 교과별 전문적학습공동체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위해 매월 셋째주 금요일 6, 7교시를 전문적학습공동체의 날로 정하여 교과별 수업 평가혁신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고 있다.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 확보를 위해 다양한 선택과목 편성으로 교사들은 다 교과, 다 학년의 수업임에도 바쁜 시간을 쪼개어 수시로 대화하며 학생 중심의 수업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수업 나눔을 통해 같은 교과 뿐만 아니라 교과 간 융합 수업의 기초를 다지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학생들과 학부모는 학교를 신뢰하며 학교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것은 교사들의 작은 움직임이 교육공동체의 협력을 이끌어내며 학교문화를 변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또한 학생 중심의 다양한 교내 활동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캠페인 활동 및 생태 텃밭 나눔 활동, 어린이 과학관 실험 봉사 등 지역사회의 특성을 살린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생 스스로 배움의 주체가 되는 학교문화의 기틀을 다질 수 있었다.



주제 중심 소그룹 토론



주제 중심 소그룹 토론



전문적학습공동체 활동



전문적학습공동체 활동 평가회

3 학생주도적인 프로젝트 활동을 통한 효율적인 생활공동체 운영



가. '맑음과 밝음과 따뜻함으로 평화롭고 행복한 학급 만들기' 활동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는 2월, 결대로자람학교 워크숍에서 '지난 4년 간 학생들의 결대로 성장을

이끌었던 원동력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교사들은 입을 모아 ‘학급 특색 프로젝트 활동’을 첫 번째로 꼽았다. ‘맑음과 밝음과 따뜻함으로 평화롭고 행복한 학급 만들기’라는 큰 목표 아래 2022년부터 시작된 학급 특색 프로젝트 활동은 해를 거듭하면서 점차 그 틀이 잡혀갔으며, 10년, 20년 후에도 변함없이 운영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다.

매주 월요일 7교시는 ‘학급 특색 프로젝트’ 활동을 위한 학급 자율시간으로, 학급 구성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주제를 선정한다. 선정된 주제를 바탕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학생이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자율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공동체 의식 및 학생주도성을 함양하게 된다. 이는 신뢰와 존중의 관계로 발전하며, 현재 우리 학교에서는 생활교육과 학교폭력예방교육을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학급별 특색있는 프로젝트 운영을 위해 학급 자치 비용 외로 예산이 더 필요한 학급에는 결대로자람학교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학기 말 축제 기간에 모든 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여 1년 동안 수행한 결과를 발표하며 공유함으로써 공동체 문화를 형성한다. 프로젝트 활동의 중간 단계마다 교사들의 끊임없는 피드백 과정을 거치며 학생들은 더욱 성장해가고, 최종 결과를 축제처럼 즐기면서 발표하는 시간은 교사, 학생, 학부모가 다 함께 즐기면서 성장하는 축제의 장이 된다.



학급 특색 프로젝트
자료 조사



학급 특색 프로젝트
교실 내 중간 발표



학급 특색 프로젝트
발표회



학급 특색 프로젝트
발표회

나. 지역사회와 더불어 성장해 가는 결대로자람학교

본교는 지역사회의 문제를 합리적으로 인식하며 책임감을 갖고 해결하는 세계시민 역량을 함양하기 위하여 지역과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에듀테크 기반 과학기술과 인공지능이 적용된 스마트팜 운영과 학교 텃밭을 통해 학생들이 직접 농작물을 키워 수확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우리가 먹는 음식이 정성으로 키워지는 과정을 배우고 음식물 쓰레기가 적게 나오는 방법을 고민하게 되었으며, 수확물 나눔 과정을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기를 수 있었다. 또한 학교 인근에 위치한 어린이 과학관에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실험 봉사활동과 우리말 사용에 대한 거리 캠페인, 환경보호를 위한 자원순환 캠페인 등을 실시하며 마을과 함께 성장하고 있으며, 세계 각국의 재외동포 학생들과 국제학술문화교류 활동을 통해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세계시민으로서 소통의 범위를 넓힐 수 있었다.



도시농부 프로젝트
(생태텃밭 운영 및 수확물 나눔)



스마트팜 운영 및 수확물 나눔



어린이 과학관 실험 봉사



재외동포학생
국제학술 문화 교류



재외동포학생
국제학술 문화 교류



우리말 사용
거리 캠페인 활동



자원순환
캠페인 활동

4 예술과 일상이 만나는 시간을 통한 문화예술교육의 내실화

본교는 각 학년 2개 학급이 미술 중점 교육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는 미술 중점 학교이다. 학교 곳곳에 예술과 접할 수 있는 다양한 갤러리들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비롯하여 학생들의 예술적 소양을 키우기 위한 다양한 장이 마련되어 있다. 교육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국악 수업과 아침 등굣길을 밝혀주는 등곶길 음악회, 그리고 상시 운영되는 예향 갤러리를 통해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예술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시켜 학생들의 다양한 능력을 발굴하고 있으며, 문화예술교육의 내실화에 힘쓰고 있다.



등곶길 음악회



예향 갤러리



평전 국악 콘서트



초현실주의 실기 특강

5 결대로 성장을 위해 나아가는 인천예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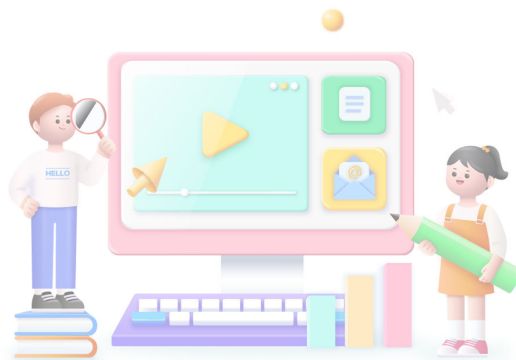


4년 간의 결대로자람학교 운영을 마무리하며 학생들의 결대로 자람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에 대한 교사들의 고민이 있다. 함께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수업 나눔을 실천하며 학생들의 결대로 성장을 지원하고자 노력하였던 시스템이 흔들리지 않고 계속 발전되어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결대로자람학교는 소수 몇 명의 교사들의 힘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하는 교육공동체의 협력으로 이루어지는 성장 시스템이다. 따라서 구성원들이 바뀌어도 그 체제는 변함없이 계속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전입 교사들과 함께하는 워크숍 및 연수를 실시하고, 신입생을 대상으로 하는 오리엔테이션과 신입생 학부모 대상의 연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다양한 주제의 전문적학습공동체 지원을 통해 수업 혁신과 미래형교육과정 운영이 계속될 수 있어야 하며, 학기 말에는 환류 시스템이 작동하는 평가회 및 대토론회를 통해 1년간의 운영을 되돌아 보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지난 4년 간 인천예일고에 일어난 변화를 되돌아보니, 민주적인 공동체 문화와 관리자의 수평적인 리더십 실천으로 자율적인 토론 문화가 정착되었으며, 학생 주도적인 자치 문화의 확대와 학부모 및 지역사회의 학교 운영에 대한 참여도 점차 확대되었다.

교육공동체의 힘으로 인천예일고는 읽건쓰 기반 미래형교육과정을 실현하고 있으며 더 발전해 나갈 것이다. 학생들의 공동체 의식과 주도성이 함양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하고 노력할 것이며,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학생들의 결대로 성장을 이루는 학교로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



Memo



▶ 기획

김현주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마을협력과장
이현희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마을협력과 장학관
최혜봉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마을협력과 장학사
이남주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마을협력과 장학사
박준현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마을협력과 장학사

▶ 검토위원

백승국 인천도담초등학교 교사
김수진 인천동수초등학교 교사
노영웅 인천장아초등학교 교사

2025 결대로자람학교 실천사례집

결대로 빛나는 우리학교 이야기

발행일 | 2025. 6.

발행처 |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마을협력과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9(구월동) (우) 21544

홈페이지 | <https://www.ice.go.kr/hyuksin/main.do>

* 교육용 교재 활용 이외에 무단복제 및 콘텐츠 배포, 사용을 금합니다.